E 11-2017-04

2017 제6권 제4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Tel 061-820-2366)
김원정 연구원 wonjeong@krei.re.kr(Tel 061-820-2188)

CONTENTS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곡물 전체[1)]

2016/17 세계 곡물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2,573백만 톤, IGC는 4.35% 증가한 2,584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60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과 소비량의 경우에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공급량의 경우에는 2.3~4.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소비량의 경우에는 2.4~4.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교역량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전망하였는데 먼저 USDA의 경우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IGC와 FAO는 각각 전년 대비 0.3%, 0.4% 감소한 383백만 톤, 393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재고율 전망치는 USDA, IGC, FAO 순으로 24.4%, 24.6%, 26.3%이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2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457	2,573	4.7	2,478	2,584	4.3	2,534	2,600	2.6
공급량	3,036	3,176	4.6	3,052	3,176	4.1	3,189	3,261	2.3
소비량	2,433	2,553	4.9	2,459	2,551	3.7	2,518	2,578	2.4
교역량	377	413	9.4	384	383	-0.3	394	393	-0.4
기말재고량	602	623	3.3	593	627	5.7	661	678	2.5
재고율	24.8	24.4		24.1	24.6		26.3	26.3	

자료 :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1.2. 쌀

2016/17년 세계 쌀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80백만 톤, IGC는 2.1% 증가한 482백만 톤, FAO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498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과 소비량 그리고 교역량의 경우에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공급량의 경우에는 0.3~1.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소비량의 경우에는 1.0~1.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IGC, FAO 순으로 24.6%, 24.7%, 34.4%이다.

표 2. 세계 쌀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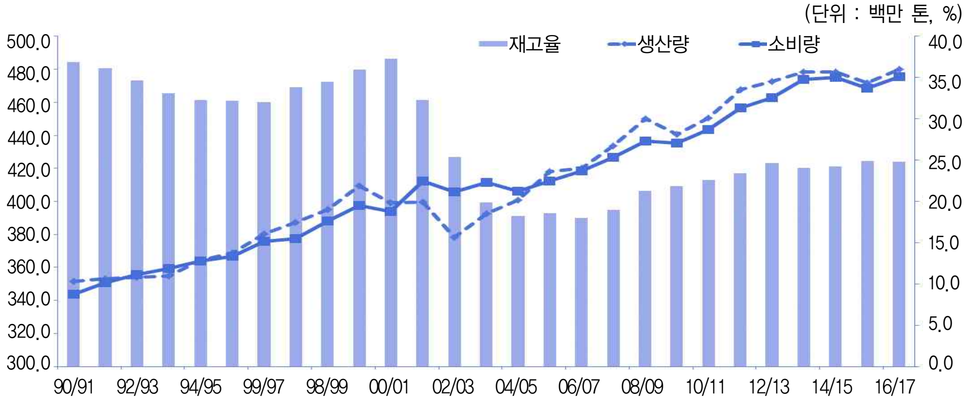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3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2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72	480	1.7	472	482	2.1	492	498	1.2
공급량	587	596	1.6	593	600	1.3	667	669	0.3
소비량	471	479	1.7	475	482	1.5	495	500	1.0
교역량	40	41	2.1	39	41	5.1	42	43	3.6
기말재고량	116	118	1.3	118	119	0.8	171	172	0.6
재고율	24.7	24.6		24.8	24.7		34.5	34.4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1.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1.3. 밀

2016/17년 세계 밀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751백만 톤, IGC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752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758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먼저 공급량의 경우 USDA는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IGC는 3.5%, FAO는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량의 경우에는 2.5~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4.0~6.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재고율은 IGC, FAO, USDA 순으로 32.0%, 32.5%, 33.7%이다.

표 3. 세계 밀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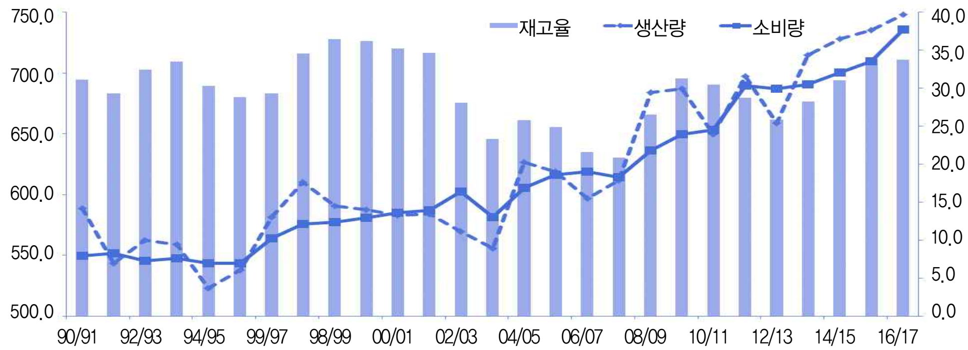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2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735	751	2.2	737	752	2.0	735	758	3.1
공급량	953	991	4.1	941	974	3.5	947	983	3.8
소비량	712	741	4.1	720	738	2.5	714	739	3.5
교역량	173	181	4.8	165	169	2.4	167	172	3.0
기말재고량	240	250	4.0	221	236	6.8	225	240	6.7
재고율	33.7	33.7		30.7	32.0		31.5	32.5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2. 세계 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1.4. 옥수수

2016/17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평균 약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USDA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1,04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7.8% 증가한 1,049백만 톤, FAO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1,035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과 소비량에 대해서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먼저 공급량의 경우 1.9~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소비량은 3.0~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역량과 기말재고량에 대해서는 세 기관이 상이한 전망을 하였다. 먼저 교역량의 경우 USDA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53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전년 대비 변화 없는 136백만 톤으로 전망하였고, FAO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38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FAO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 세계 옥수수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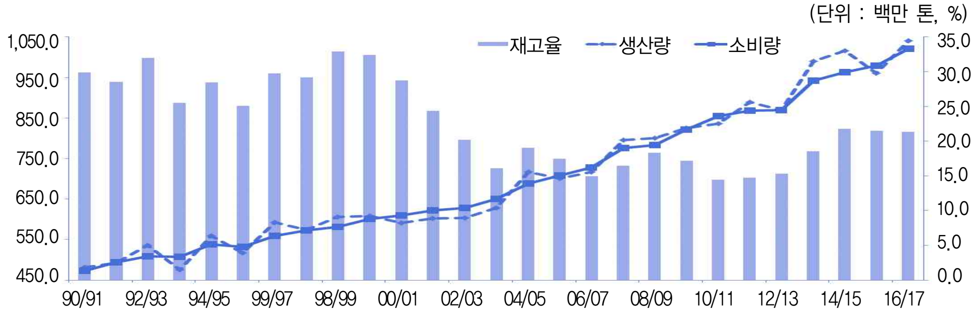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2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962	1,049	9.1	973	1,049	7.8	1,006	1,035	2.9
공급량	1,172	1,260	7.6	1,180	1,259	6.7	1,230	1,253	1.9
소비량	961	1,039	8.2	970	1,035	6.7	1,008	1,038	3.0
교역량	120	153	27.2	136	136	0.0	140	138	-1.4
기말재고량	211	221	4.7	209	224	7.2	218	214	-1.8
재고율	21.9	21.2		21.5	21.6		21.6	20.6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3. 세계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1.5. 대두

2016/17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336~341백만 톤으로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USDA는 전년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전년 대비 6.7%, FAO는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의 경우에는 세 기관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먼저 공급량의 경우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6.9%, 4.5% 증가한 417백만 톤, 36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38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량의 경우에는 4.0~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교역량의 경우 3.7~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재고율은 IGC, FAO, USDA 순으로 10.5%, 13.1%, 25.0%이다.

표 5. 세계 대두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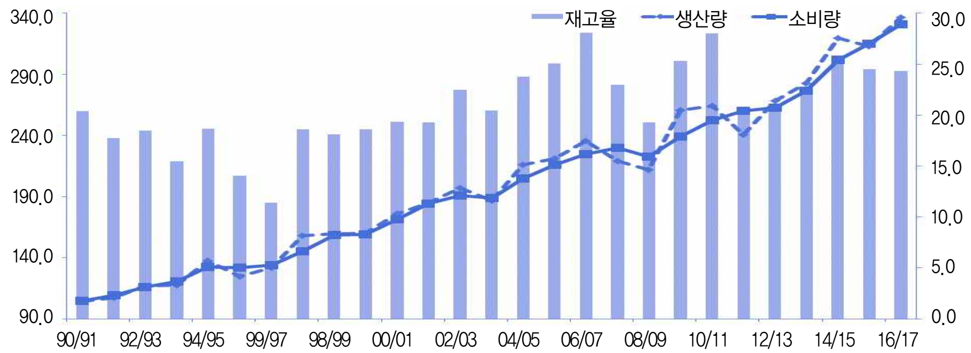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2월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3월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13	341	8.9	315	336	6.7	315	337	7.0
공급량	390	417	6.9	353	369	4.5	359	380	5.8
소비량	315	332	5.3	321	334	4.0	320	336	5.0
교역량	132	141	6.8	134	139	3.7	135	141	4.4
기말재고량	77	83	8.1	32	35	9.4	43	44	2.3
재고율	24.3	25.0		10.0	10.5		13.4	13.1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4. 세계 대두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2. 월별 선물가격 동향

▌수급여건 개선으로 곡물 선물가격 안정세 전망

3월 밀 선물 가격은 미국 겨울밀 주산지의 가뭄으로 3월 중순 잠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평야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농무부의 수급 발표에서도 세계 밀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연이은 풍작으로 여유로운 수급여건이 지속되면서 밀 선물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호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밀 생산량은 전월 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의 경우 밀 수확이 완료되었고 서부지역의 단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상여건이 개선된 동부지역은 단수가 크게 늘어 전월 대비 생산량이 상승하였다. 2017년 2월 밀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66달러였으며, 3월 현재 밀 선물 가격은 톤 당 155달러로 전월 대비 6.9%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하였다.

3월 옥수수 선물 가격은 남미지역의 생산량이 상향 조정되고, 미국 조류독감 발병에 따른 사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또한 달러화 강세 및 기술적 매도세 유입 등도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17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기상호조로 단수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월 27일 기준, 브라질 1기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53%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느린 상황이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육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단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월 옥수수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45달러였으며, 3월 현재 옥수수 선물 가격은 톤 당 140달러로 전월 대비 3.7%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하였다.

3월 대두 선물 가격은 브라질의 기록적인 수확량 전망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금년 봄 미국의 파종면적 증가 전망 또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3월 초순과 중순에 브라질 북부와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대두 선적이 지연 된 점이 추가적인 대두 가격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2016/17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배 면적의 경우 전월

대비 0.1%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단수가 전월 대비 1.4% 증가하며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재배면적은 전월과 비슷하지만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육에 도움이 되는 기상이 지속되면서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수확률 또한 작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산지인 Mato grosso의 수확률은 현재 95% 수준이다. 향후에도 주산지의 건조기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 수확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2월 대두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381달러였으며, 3월 현재 대두 선물 가격은 톤 당 357달러로 전월 대비 6.3%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하였다.

표 6.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2015/16	2016/17	2016.3	2017.2	2017.3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177	155	174	166	155	-12.3	-11.1	-6.9
옥수수[2]	145	139	143	145	140	-4.6	-2.1	-3.7
대두[2]	348	370	328	381	357	6.1	8.8	-6.3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17년 3월 가격은 2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17년 3월 가격은 2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그림 5.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 2001.1~2017.3

(단위 : 달러/톤)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3. 월별 현물가격(FOB) 동향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생산량 증가로 수출 가격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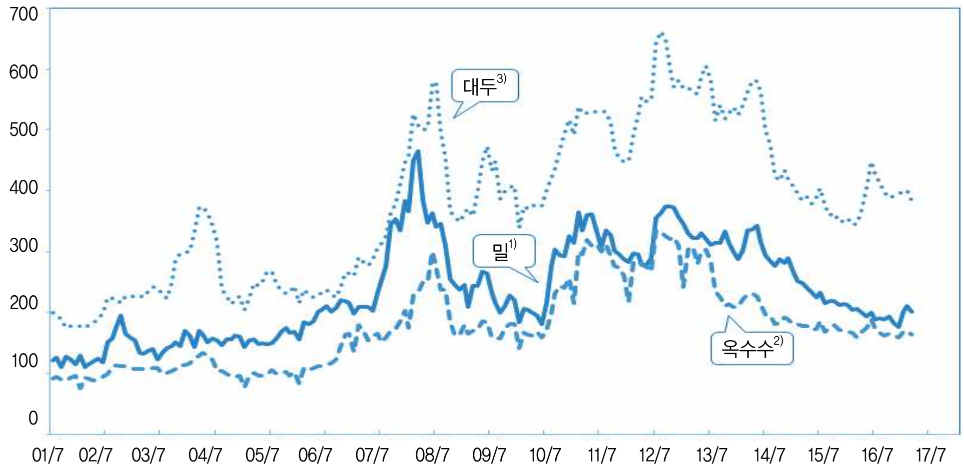
3월 밀 현물 가격은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 전망 등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세계 밀 소비량 증가는 인도의 식용 밀 소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EU의 경우 수입 주정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료용 밀을 대체 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 소비량이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호주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캐나다는 수출 감소로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년 3월 현재 밀 수출 가격은 톤 당 200달러로 전월 대비 4.8%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2% 하락하였다.

3월 옥수수 현물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2016/17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이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였으나 남미의 기록적인 생산량 전망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옥수수 소비량이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에탄올 생산 증가에 따라 산업용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나 조류독감 발생으로 사료용 소비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6/17년 세계 옥수수 재고량은 남미 지역의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말재고량은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7년 3월 현재 옥수수 수출 가격은 톤 당 164달러로 전월 대비 3.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하였다.

USDA 수급보고서에서 대두 생산량이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말재고량 또한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량과 수출량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브라질은 생산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7년 3월 현재 대두 수출 가격은 톤 당 384달러로 전월 대비 4.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2% 상승하였다.

그림 6.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01.7~2017.3

(단위 : 달러/톤)



주: 1) 밀은 US HRW Gulf
2) 옥수수는 US 3YC Gulf
3) 대두는 US 2Y Gulf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중립종 쌀 가격 약세 지속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은 동아시아지역의 입찰과 라마단 기간 전 중동지역에서의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3월 13일 기준 중립종 쌀 가격은 톤 당 575달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2% 하락한 수준이다.

태국 장립종 쌀의 경우 월초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순 이후 수확을 앞두고 상인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3월 13일 기준 장립종 쌀 가격은 톤 당 380달러로 전월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하였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태국의 경우에도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재배 면적 및 단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7. 쌀의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01.7~2017.3

(단위: 달러/톤)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7.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2015/16	2016/17	2016.3	2017.2	2017.3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213	192	207	211	200	-9.8	-3.2	-4.8
옥수수[2]		172	164	162	169	164	-4.5	1.0	-3.4
대두[2]		378	395	345	401	384	4.6	11.2	-4.4
쌀[3]	태국	386	382	379	376	380	-1.0	0.3	1.1
	캘리포니아	768	600	790	575	575	-21.9	-27.2	0.0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17년 3월 가격은 2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17년 3월 가격은 2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 연도는 8-7월이며 2017년 3월 가격은 13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USDA Rice Outlook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세계 곡물 수급 상황은 남미 중심의 곡물 공급량 증가로 인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곡물 생산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되어 옥수수 및 대두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또한 대두를 제외한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 밀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미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들의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사료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곡물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요 곡물 수입국들의 수입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요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하여 곡물의 기말 재고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북반구 주요 곡물 생산국들에서는 새로운 곡물 생산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이들 국가의 곡물 파종 정도와 기후 조건이 향후 세계 곡물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옥수수 및 소맥 생산량은 줄이는 대신 채산성이 좋은 대두의 생산량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 31일에는 미국 농무부의 파종 예상 면적 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 내 곡물별 파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분기별 곡물 재고 보고서 역시 당일 발표될 예정이며 미국 내 곡물별 재고 변화가 향후 곡물 수급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세계 곡물 수급 전망(WASD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보고서를 통해 올해 3월 주요 국가들의 곡물 수급 관계 변화를 밀, 옥수수, 대두 순으로 차례대로 살펴본다.[1)]

---

* agscouter@naver.com

1) 본문 자료는 3월 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림과 표에 대한 자료 출처는 생략함.

1. 밀

세계 밀 수급량

16/17년 세계 밀 공급량과 관련하여 전월 대비 기초 재고량이 0.2% 하락한 반면 생산량 및 수입량은 각각 0.4%, 1.2% 상승했다. 아르헨티나, 호주, EU의 생산량 증가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의 수입량 증가로 전월 대비 공급량이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모두 10.5%, 2.2%, 4.0% 상승했다. EU, 우크라이나,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 증가와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 증가로 인해 15/16년 대비 공급량은 늘었다. 16/17년 세계 밀 수요량과 관련하여 전월 대비 사료용 소비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제분용 및 기타 소비량 증가로 상쇄되어 전체 소비량은 0.1% 상승하고 수출량 또한 1.1% 늘었다. 인도, 서남아시아의 밀 소비량 증가와 아르헨티나, 호주의 밀 수출량 증가로 전월 대비 수요량이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사료용 소비량, 전체 소비량, 수출량 모두 7.1%, 4.1%, 4.8% 상승했다. EU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밀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미국, 호주, 러시아의 밀 수출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27.1%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으나, 15/16년과는 동일한 기말 재고율을 기록했다.

표 1. 세계 밀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구분	14/15	15/16 (a)	16/17. 17.2월 (b)	16/17. 17.3월 (c)	증감율	
					c/b	c/a
공급량						
기초재고량	194.92	217.52	240.77	240.29	-0.2	10.5
생산량	728.28	735.25	748.24	751.07	0.4	2.2
수입량	159.08	169.89	174.51	176.63	1.2	4.0
수요량						
소비량(사료용)	131.75	138.52	148.98	148.32	-0.4	7.1
소비량(전체)	705.69	712.48	740.40	741.42	0.1	4.1
수출량	164.42	172.79	178.99	181.02	1.1	4.8
기말재고량	217.52	240.29	248.61	249.94	0.5	4.0
기말재고율	25.0	27.1	27.0	27.1	0.1%p	0.0%p

국가별 밀 생산량

전월 대비 EU의 밀 생산량이 줄었으나, 호주 및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 우크라이나, 중국의 밀 생산량이 줄었으나,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은 대폭 늘었다. 특히 러시아와 호주의 밀 생산량이 15/16년 대비 각각 1,146만 톤, 1,083만 톤 증가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역시 15/16년 대비 각각 674만 톤, 470만 톤 증가했다. 반면 EU의 밀 생산량은 15/16년 대비 1,534만 톤 줄어들어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다.

그림 1. 전월 대비 밀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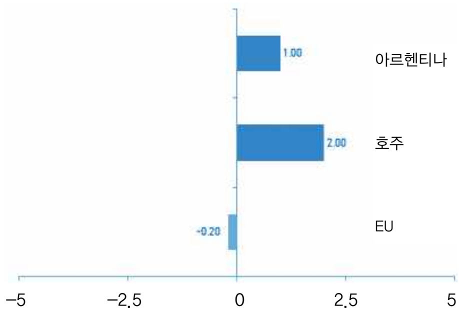


그림 2. 15/16년 대비 밀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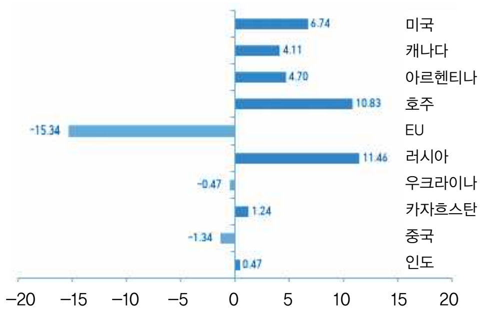


표 2. 국가별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55.15	56.12	62.86	62.86
캐나다	29.42	27.59	31.70	31.70
아르헨티나	13.93	11.30	15.00	16.00
호주	23.74	24.17	33.00	35.00
EU	156.91	160.00	144.86	144.66
러시아	59.08	61.04	72.50	72.50
우크라이나	24.75	27.27	26.80	26.80
카자흐스탄	13.00	13.75	14.99	14.99
중국	126.21	130.19	128.85	128.85
인도	95.85	86.53	87.00	87.00

국가별 밀 소비량

전월 대비 EU의 밀 소비량이 소폭 줄어듦에 반해 인도 및 서남아시아의 밀 소비량은 늘었다. 특히 인도의 밀 소비량은 130만 톤 증가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의 밀 소비량이 228만 톤 줄어듦에 반해 주요 국가의 밀 소비량은 증가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밀 소비량이 15/16년 대비 각각 959만 톤, 600만 톤 늘었다. 그밖에 미국, 러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주요 국가의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했다.

그림 3. 전월 대비 밀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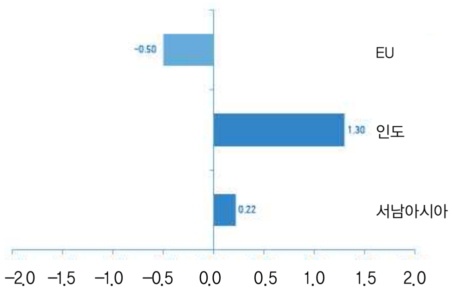


그림 4. 15/16년 대비 밀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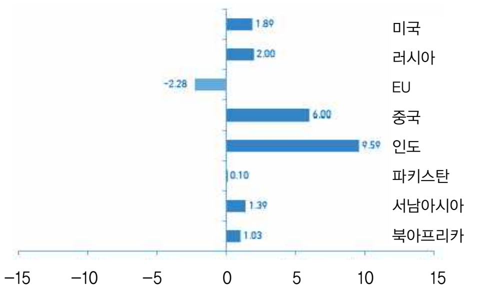


표 3. 국가별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31.33	32.02	33.91	33.91
러시아	35.50	37.00	39.00	39.00
EU	124.68	130.98	129.20	128.70
중국	116.50	112.00	118.00	118.00
인도	93.10	88.55	96.84	98.14
파키스탄	24.50	24.40	24.50	24.50
서남아시아	36.14	37.30	38.47	38.69
북아프리카	42.73	43.65	44.68	44.68

국가별 밀 수출량

전월 대비 캐나다의 밀 수출량이 소폭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및 호주의 밀 수출량은 크게 증가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 캐나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량이 감소했다. 특히 EU의 경우 밀 생산량 급감으로 15/16년 대비 수출량은 918만 톤 줄었다. 반면 미국, 호주, 러시아의 경우 밀 수출량은 각각 681만 톤, 938만 톤, 296만 톤 늘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생산량 증가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5. 전월 대비 밀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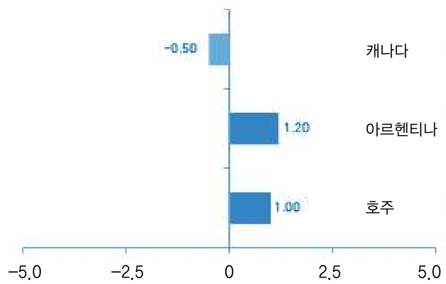


그림 6. 15/16년 대비 밀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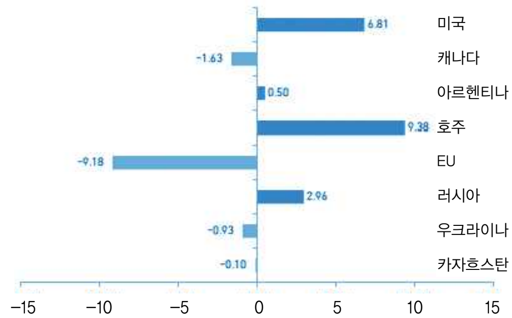


표 4. 국가별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23.52	21.09	27.90	27.90
캐나다	24.16	22.13	21.00	20.50
아르헨티나	5.30	9.60	8.90	10.10
호주	16.59	16.12	24.50	25.50
EU	35.42	34.68	25.50	25.50
러시아	22.80	25.54	28.50	28.50
우크라이나	11.27	17.43	16.50	16.50
카자흐스탄	5.54	7.60	7.50	7.50

국가별 밀 수입량

전월 대비 인도의 밀 수입량이 180만 톤 증가했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소비량이 크게 늘어 16/17년부터 수입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전월 대비 증가함은 물론 14/15년 및 15/16년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14/15년 15/16년 대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 밖에 북아프리카 및 중국의 밀 수입량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림 7. 전월 대비 밀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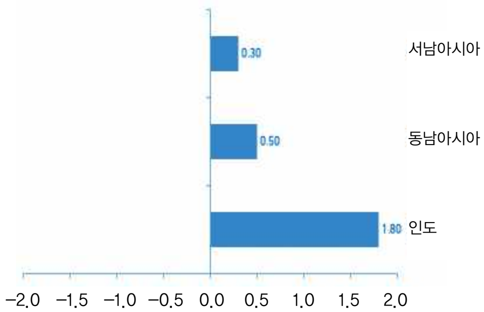


그림 8. 15/16년 대비 밀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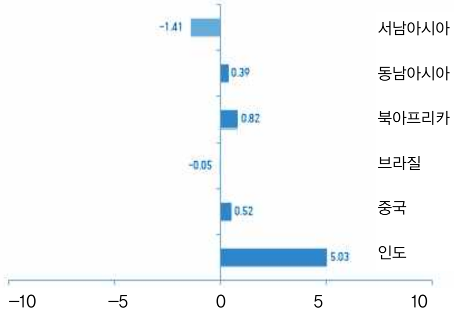


표 5. 국가별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서남아시아	21.27	19.14	17.43	17.73
동남아시아	19.86	24.61	24.50	25.00
북아프리카	25.43	27.78	28.60	28.60
브라질	5.37	6.75	6.70	6.70
중국	1.93	3.48	4.00	4.00
인도	0.05	0.47	3.70	5.50

국가별 밀 기말 재고율

전월 대비 캐나다, 호주, 인도의 밀 기말 재고율이 상승함에 반해 주요 국가의 밀 기말 재고율은 전월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밀 기말 재고율이 상승함에 반해 다른 국가들의 밀 기말 재고율은 하락했다. 특히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출량 증가로 인해 기말 재고율은 하락했다. 인도의 경우 소비량이 크게 늘어 기말 재고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표 6. 국가별 밀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4/15	15/16 (a)	16/17. 17.2월 (b)	16/17. 17.3월 (c)	변동폭(%p)	
					c/b	c/a
미국	37.3	50.0	50.2	49.7	-0.5	-0.3
캐나다	21.4	17.2	19.7	21.7	2.0	4.5
호주	19.6	24.2	20.5	21.9	1.4	-2.3
러시아	10.8	9.0	16.4	16.4	0.0	7.4
우크라이나	25.0	10.9	8.2	8.2	0.0	-2.7
카자흐스탄	26.3	17.7	22.2	22.2	0.0	4.5
아르헨티나	41.2	4.0	2.8	2.0	-0.8	-2.0
EU	8.0	8.5	6.6	6.5	-0.1	-2.0
인도	17.8	16.2	8.2	8.6	0.4	-7.6

2. 옥수수

세계 옥수수 수급량

16/17년 세계 옥수수 공급량과 관련하여 전월 대비 기초 재고량은 0.2% 상승했으며 생산량 및 수입량 또한 각각 0.9%, 0.3% 상승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공급량이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기초 재고량 및 생산량이 각각 0.6%, 9.1% 상승한 반면 수입량은 2.0% 하락했다. 주요 국가의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 15/16년 대비 공급량은 늘었다.

16/17년 세계 옥수수 수요량과 관련하여 전월 대비 사료용 소비량은 0.2% 상승했으며 전체 소비량 및 수출량 또한 각각 0.6%, 2.7% 상승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의 소비량 증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출량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옥수수 수요량이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주요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로 인해 전체 소비량 및 수출량 모두 8.2%, 27.2% 상승했다.

전월 대비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남미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늘어 0.1%p 상승했으나, 15/16년 대비해서는 수요량 증가로 인해 1.0%p 하락했다.

표 7. 세계 옥수수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구분	14/15	15/16 (a)	16/17. 17.2월 (b)	16/17. 17.3월 (c)	증감율	
					c/b	c/a
공급량						
기초재고량	174.78	209.70	210.39	210.87	0.2	0.6
생산량	1,015.58	961.85	1,040.21	1,049.24	0.9	9.1
수입량	125.16	139.92	136.77	137.19	0.3	-2.0
수요량						
소비량(사료용)	584.45	598.93	629.06	630.24	0.2	5.2
소비량(전체)	980.66	960.69	1,033.03	1,039.43	0.6	8.2
수출량	142.20	120.23	148.97	152.92	2.7	27.2
기말재고량	209.70	210.87	217.56	220.68	1.4	4.7
기말재고율	18.7	19.5	18.4	18.5	0.1%p	-1.0%p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전월 대비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남미 주요 산지 양호한 날씨로 생산량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1기작 옥수수 생산에 이어 2기작 옥수수 생산 상황 역시 상당히 양호하여 전월 대비 500만 톤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의 경우 생산 면적 증가와 단위당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옥수수 생산량이 각각 100만 톤, 160만 톤 증가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주요 국가의 옥수수 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15/16년 대비 3,927만 톤 증가했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역시 15/16년 대비 옥수수 생산량이 각각 2,450만 톤, 850만 톤 늘었다. 그 밖에 주요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 역시 15/16년 대비 증가했으나, 중국의 경우 15/16년 대비 옥수수 생산량이 508만 톤 줄었다.

그림 9. 전월 대비 옥수수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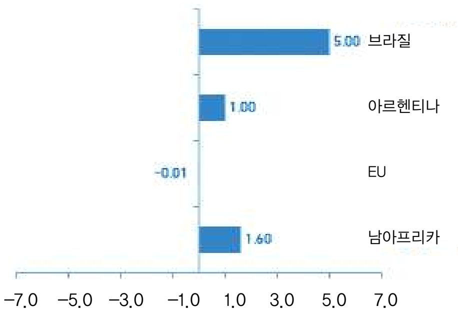


그림 10. 15/16년 대비 옥수수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표 8.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361.09	345.51	384.78	384.78
브라질	85.00	67.00	86.50	91.50
아르헨티나	29.75	29.00	36.50	37.50
우크라이나	28.45	23.33	28.00	28.00
EU	75.73	58.41	60.31	60.30
남아프리카	10.63	8.21	13.00	14.60
중국	215.65	224.63	219.55	219.55

국가별 옥수수 소비량

전월 대비 주요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EU의 옥수수 소비량이 30만 톤 감소했다. 반면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의 소비량은 소폭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량은 증가함에 반해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줄어 전체 소비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1,598만 톤, 1,350만 톤 늘었다.

그림 11. 전월 대비 옥수수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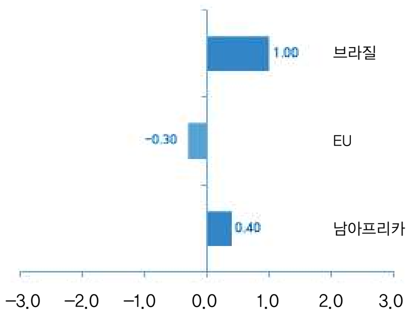


그림 12. 15/16년 대비 옥수수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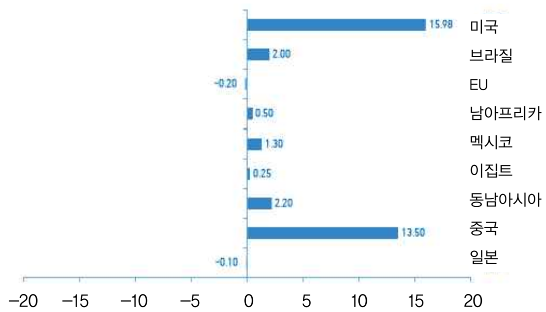


표 9. 국가별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301.79	298.87	314.85	314.85
브라질	57.00	57.50	58.50	59.50
EU	77.88	73.20	73.30	73.00
남아프리카	11.65	11.20	11.30	11.70
멕시코	34.55	37.30	38.60	38.60
이집트	13.90	14.85	15.10	15.10
동남아시아	38.60	40.90	43.10	43.10
중국	202.00	217.50	231.00	231.00
일본	14.60	15.20	15.10	15.10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전월 대비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량이 각각 300만 톤, 50만 톤 증가했다. 이들 국가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급량 증가로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15/16년 대비해서는 주요 국가의 옥수수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미국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출량이 각각 1,680만 톤, 832만 톤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및 우크라이나 역시 생산량 증가로 인해 15/16년 대비 수출량은 각각 380만 톤, 210만 톤 증가했다.

그림 13. 전월 대비 옥수수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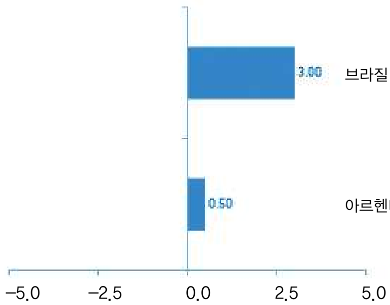


그림 14. 15/16년 대비 옥수수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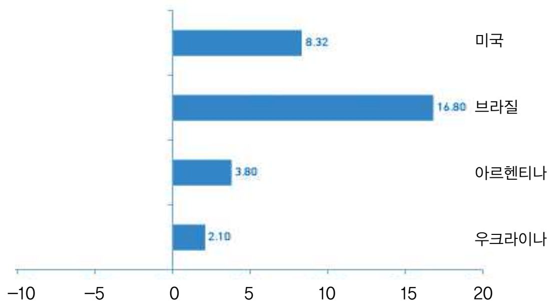


표 10.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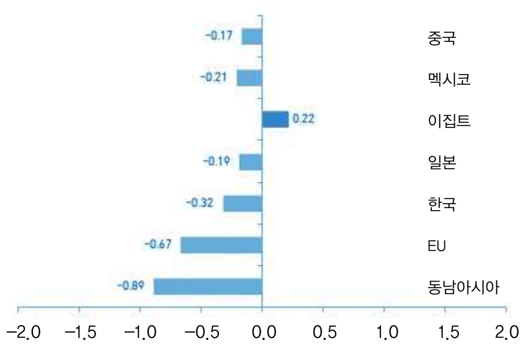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47.42	48.20	56.52	56.52
브라질	34.46	14.20	28.00	31.00
아르헨티나	18.96	21.70	25.00	25.50
우크라이나	19.66	16.60	18.70	18.70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그림 15. 15/16년 대비 옥수수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전월 대비 주요 국가의 옥수수 수입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6년 대비해서는 이집트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옥수수 수입량이 줄었다. 이집트의 경우 옥수수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재고량 증가에 따른 내수 소비 진작으로 옥수수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일본, 멕시코, EU, 동남아시아 등의 옥수수 수입량은 15/16년 대비 다소 줄었으나, 14/15년 대비해서는 늘었다.

표 11.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중국	5.52	3.17	3.00	3.00
멕시코	11.34	14.01	13.80	13.80
이집트	7.84	8.78	9.00	9.00
일본	14.66	15.19	15.00	15.00
한국	10.17	10.12	9.80	9.80
EU	8.91	13.77	13.10	13.10
동남아시아	12.83	15.19	14.30	14.30

국가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전월 대비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각각 1.2%p, 1.3%p 상승했다. 이들 국가의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폭이 더 커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및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변동이 없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브라질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이 하락한 반면,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상승했다.

표 12. 국가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4/15	15/16 (a)	16/17. 17.2월 (b)	16/17. 17.3월 (c)	변동폭(%p)	
					c/b	c/a
미국	12.6	12.7	15.9	15.9	0.0	3.2
브라질	8.6	9.1	7.5	8.7	1.2	-0.4
아르헨티나	10.3	3.4	5.8	7.1	1.3	3.7
우크라이나	6.3	2.4	5.7	5.7	0.0	3.3

3. 대두

세계 대두 수급량

16/17년 세계 대두 공급량과 관련하여 전월 대비 기초 재고량은 0.8% 하락함에 반해, 생산량 및 수입량은 각각 1.2%, 0.6% 상승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기초 재고

량이 1.2% 하락함에 반해 생산량 및 수입량은 각각 8.9%, 3.7% 상승했다. 미국,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증가와 중국의 대두 수입량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16/17년 세계 대두 수요량과 관련하여 전월 대비 전체 소비량은 착유용 소비량 증가 영향으로 0.3% 증가했으며 수출량 또한 0.7%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전체 소비량 및 수출량이 각각 5.3%, 6.8% 늘었다. 중국의 소비량 증가와 미국 및 브라질의 수출량 증가로 인해 수요량이 크게 증가했다.

세계 대두 기말 재고율은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량이 늘어 전월 및 15/16년 대비 0.4%p씩 상승한 17.5%를 기록했다.

표 13. 세계 대두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구분	14/15	15/16 (a)	16/17. 17.2월 (b)	16/17. 17.3월 (c)	증감율	
					c/b	c/a
공급량						
기초재고량	61.75	77.49	77.19	76.59	-0.8	-1.2
생산량	319.60	312.81	336.62	340.79	1.2	8.9
수입량	124.36	133.34	137.43	138.25	0.6	3.7
수요량						
소비량(착유용)	264.41	276.26	290.74	291.55	0.3	5.5
소비량(전체)	302.00	314.92	330.75	331.70	0.3	5.3
수출량	126.22	132.13	140.11	141.10	0.7	6.8
기말재고량	77.49	76.59	80.38	82.82	3.0	8.1
기말재고율	18.1	17.1	17.1	17.5	0.4%p	0.4%p

국가별 대두 생산량

전월 대비 주요 국가의 대두 생산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400만 톤 늘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미국, 브라질,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증가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15/16년 대비 각각 1,035만 톤, 1,150만 톤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두 생산 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로 15/16년 및 14/15년 대비 각각 130만 톤, 590만 톤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대두 생산량은 15/16년 및 14/15년 대비 각각 111만 톤, 75만 톤 증가했다.

그림 16. 전월 대비 대두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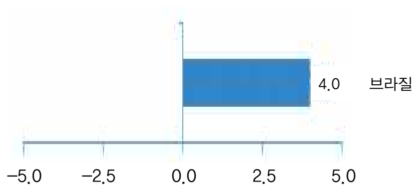


그림 17. 15/16년 대비 대두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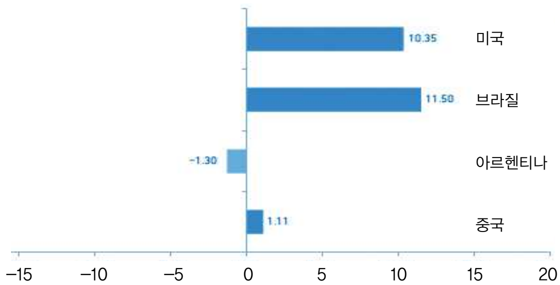


표 14. 국가별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106.88	106.86	117.21	117.21
브라질	97.20	96.50	104.00	108.00
아르헨티나	61.40	56.80	55.50	55.50
중국	12.15	11.79	12.90	12.90

국가별 대두 소비량

전월 대비 미국, 브라질, 중국의 대두 소비량은 약간 증가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대두 소비량은 증가했다. 특히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대두 소비량은 15/16년 대비 610만 톤 늘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두 소비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8. 전월 대비 대두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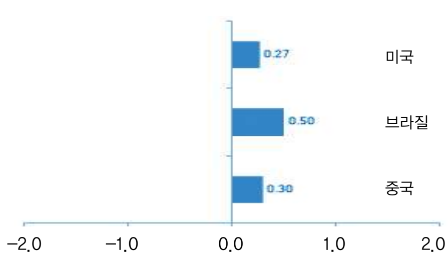


그림 19. 15/16년 대비 대두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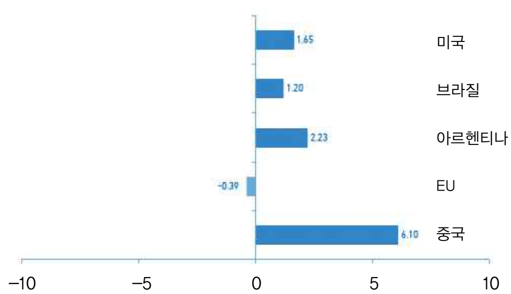


표 15. 국가별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54.96	54.64	56.02	56.29
브라질	43.79	43.40	44.10	44.60
아르헨티나	44.18	47.52	49.75	49.75
EU	15.57	16.68	16.29	16.29
중국	87.20	95.00	100.80	101.10

국가별 대두 수출량

전월 대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이 68만 톤 감소함에 반해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150만 톤 증가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이 92만 톤 감소함에 반해, 미국,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각각 242만 톤, 662만 톤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소비량 증가 대비 생산량 부진으로 수출량이 줄었으나,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두 수출량은 늘었다.

그림 20. 전월 대비 대두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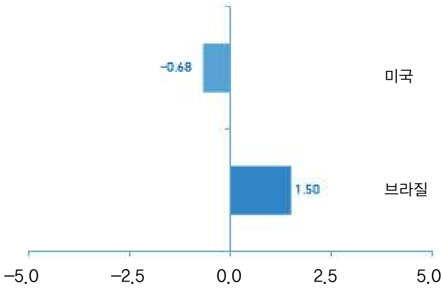


그림 21. 15/16년 대비 대두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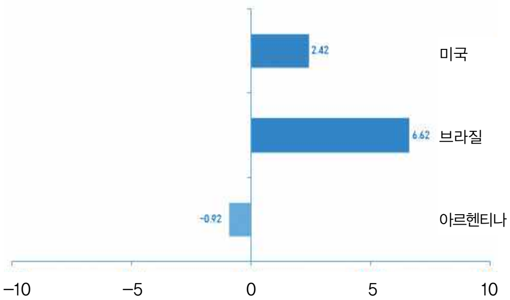


표 16. 국가별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미국	50.14	52.69	55.79	55.11
브라질	50.61	54.38	59.50	61.00
아르헨티나	10.57	9.92	9.00	9.00

대두 수입량

전월 대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100만 톤 증가했으나 멕시코의 대두 수입량은 10만 톤 감소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377만 톤 증가한 반면, EU의 대두 수입량은 121만 톤 감소했다.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그 밖에 멕시코, 일본 등의 수입량은 큰 변동 없이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입해 오고 있다.

그림 22. 전월 대비 대두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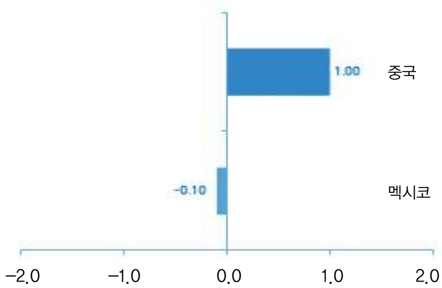


그림 23. 15/16년 대비 대두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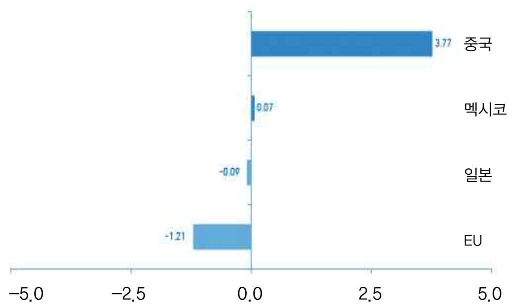


표 17. 국가별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4/15	15/16	16/17.(2월)	16/17.(3월)
중국	78.35	83.23	86.00	87.00
멕시코	3.82	4.13	4.30	4.20
일본	3.00	3.19	3.10	3.10
EU	13.91	15.01	13.80	13.80

국가별 대두 기말 재고율

전월 대비 EU의 대두 기말 재고율이 0.2% 하락한 것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소폭 상승했다. 특히 브라질의 기말 재고율이 전월 대비 1.0% 상승했는데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밖에 미국 및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각각 0.4%, 0.7% 상승했다.

15/16년 대비해서는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기말 재고율이 각각 5.6%, 1.2% 상승했으나 아르헨티나, EU, 중국의 기말 재고율은 각각 5.0%, 1.4%, 2.4% 하락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소비량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기말 재고율이 크게 하락했다.

표 18. 국가별 대두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4/15	15/16 (a)	16/17. 17.2월 (b)	16/17. 17.3월 (c)	변동폭(%p)	
					c/b	c/a
미국	4.9	5.0	10.2	10.6	0.4	5.6
브라질	20.1	18.5	18.7	19.7	1.0	1.2
아르헨티나	58.3	55.6	50.6	50.6	0.0	-5.0
EU	4.3	6.7	5.5	5.3	-0.2	-1.4
중국	19.5	17.8	14.7	15.4	0.7	-2.4

해외 곡물 선물 3월 동향과 4월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요약] 3월 21일 현재까지 미국의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은 2월말 대비 옥수수 -3.3%, 대두 -3.3%, 소맥 -3.9% 하락했다. 우선 곡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1) 2월 전망에서 언급했던 남미산 곡물 생산량 증가 전망, 2) 3월 9일 발표된 농무부 WASDE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2016/17년 곡물년도의 미국산 대두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10.6%로 전년도의 5.0% 대비 늘어날 전망인 점, 3) 미국 재배지역의 강우 예보 속에 건조한 날씨로 인한 4월의 옥수수 파종 작업 지연 우려 제한, 4) 미국의 대두 작부면적 증가 전망 등이 곡물 가격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 실제 3월 24일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래소가 대두의 국내 생산량 증가 전망을 언급하며 남미산 생산량 증가 우려 속에 시카고 대두선물 가격은 2016년 10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4월 곡물 선물 시장은 시장 외적 요인을 보면, 달러화 약세 요인들이 곡물 공급량 증가 전망 속에서도 곡물 가격의 낙폭을 일부 제한할 전망이다. 이들 요인으로는 1) 3월 FOMC 회의 이후 연내 4차례 금리인상 우려가 축소된 부분, 2)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 감세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부각 등이 달러화 약세를 부각시킬 요인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제조업 주도의 경기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 이는 달러화의 강세 요인을 언제든지 재현시킬 부분이므로 곡물 가격의 반등 폭도 제한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4월 미국산 곡물 가격은 보합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장 수급 요인은, 미국 농무부가 3월 9일 발표한 곡물수급(WASDE)에서 미국산의 2016/17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곡물 수급에 대한 우려 요인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남미산 곡물 생산량 증가 전망, 그리고 미국의 4월 옥수수 파종 시기를 앞두고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강우량 예보로 인한 작황 개선 기대감 등은 **곡물 가격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트: 블룸버그, USDA, 삼성선물]

---

* ryanlim@naver.com

1. 곡물 3월 동향: 남미 곡물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하락

3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3월 21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원면	원유
전년말比 (%)	+1.0%	-1.1%	+1.4%	-10.2%	+8.2%	-13.9%
전월말比 (%)	-3.3%	-3.3%	-3.9%	-10.1%	+0.7%	-11.4%

3월 21일 현재까지 미국의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은 2월말 대비 옥수수 -3.3%, 대두 -3.3%, 소맥 -3.9%를 기록했다. 우선 곡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1) 2월 전망에서 언급했던 남미산 곡물 생산량 증가 전망, 2) 3월 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WASDE 수급전망 보고에서 2016/17년 곡물년도의 미국산 대두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10.6%로 전년도의 5.0% 대비 늘어날 전망인 점, 3) 미국 재배지역의 강우 예보 속에 건조한 날씨로 인해 4월 중순부터 실시될 옥수수 파종 작업 지연 우려가 제한된 점 등이 곡물 가격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

실제 3월 24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래소가 대두의 국내 생산량 증가 전망을 언급함에 따라, 남미산 생산량 증가 우려 속에 시카고 대두 선물 가격은 2016년 10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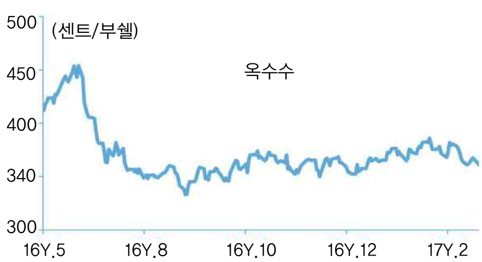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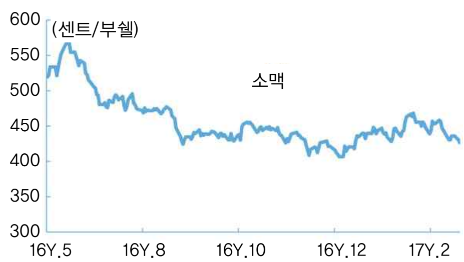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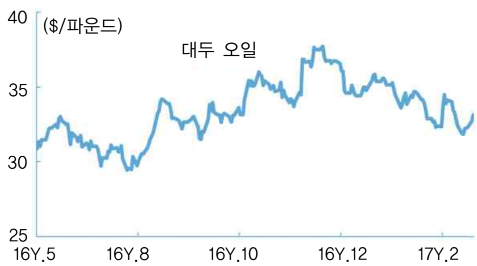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그림 4. 대두 오일 선물 가격 추이



곡물 수급외적 요인으로는 3월 14~15일 개최된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향후 달러화 강세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래 주요 환율 차트에서 보듯, 현재 단기적으로는 1) 유가 하락, 2)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정책 지연 우려 등, **달러화 약세를 부각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장외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며, 결국 미국산 곡물 선물 가격의 급락 흐름을 일부 제한할 부분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 브라질 헤알화 추이

그림 6. 호주달러 환율 추이

표 1. 주요 농산물 선물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추이(3/21일 종가 기준)

상품	현재	전주말	주간 변동	주간 변동률 (%)	전월말 대비 (%)	전년 대비 (%)	거래량	거래량 증감	미결재 약정	미결재 약정 증감
옥수수	367.5	364.3	3.25	0.9	-3.3	1.0	652,764	-145,208	613,602	-3,377
대두	1,000	1,006.5	-6.50	-0.6	-3.3	-1.1	408,949	-125,058	310,061	-8,997
소맥	436.25	440.5	-4.25	-1.0	-3.9	1.4	253,566	-23,464	238,178	18,954
대두유	32.3	32.7	-0.38	-1.2	-2.3	-5.1	277,552	20,343	193,794	15,041
원면	78.36	77.3	1.07	1.4	0.7	8.2	53,028	-19,204	160,294	591
원당	18.17	18.2	-0.05	-0.3	-10.1	-10.2	259,260	-97,752	303,263	-756
커피	142.05	141.4	0.70	0.5	1.5	3.8	66,451	-3,309	93,451	-1,669
돈지육	77.33	76.9	0.43	0.6	-1.7	-0.2	64,359	-20,878	80,245	8,019
생우	109.68	107.5	2.18	2.0	3.3	6.1	97,716	-25,448	146,376	20,718

2. 곡물 선물 4월 전망

▌시장 외부 환경 1: FOMC의 금리인상 기조 변화 없음. 문제는 속도

우선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FOMC 관계자들의 향후 금리 전망 스탠스가 시장이 우려하던 연내 3차례를 상회하는 4차례 금리 인상 우려가 제한된 부분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국과 남미의 곡물 생산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들 곡물 가격의 급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실제 이 같은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래 차트에서 보듯 국채 10년물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순매수 포지션이 차트의 좌측 계약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 국채선물 매도는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포지션)이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미국 장기 인플레 기대치 추이

그림 8. 미 국채 10년물 선물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축소

그림 9. 달러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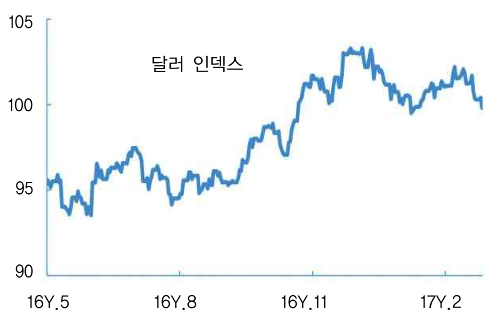


그림 10. 유로화 환율 추이

하지만 이 같은 금리 인상 속도 둔화 기대 속의 달러화 약세 흐름은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FRB 의장은 강연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각종 지표들을 볼 때,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를 통한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 달러화의 강세 흐름은 언제든 재부각되면서 곡물 선물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할 부분이다.

시장 외부 환경 2: 트럼프 행정부 경기부양 정책 지연 우려 부각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5일 공화당 출신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그 동안 의회 통과를 호언해왔던,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자신의 의료보험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 철회를 통지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가 올해 1) 재정지출 확대, 2) 기업 감세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의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즉 그 동안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부분들이 반전 흐름을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러화 약세 흐름 속에 미국산 곡물선물 가격 하락을 제한할 부분이다.

그림 11. S&P 500 주가지수 추이

그림 12. 미국 장기 인플레 기대 추이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의료보험 법안 표결 철회는,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 1) 재정지출 확대, 2) 기업 감세 확대 정책으로 **정책 수행 중심축이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실행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불거진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요인 부각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의 달러화의 강세 전환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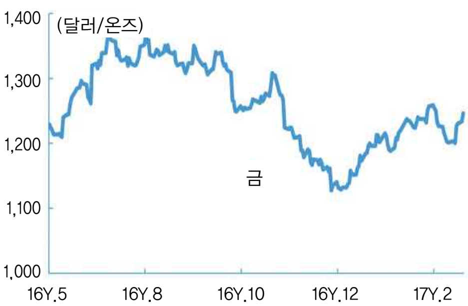
시장 외부 환경 3: 유가 하락. 상품 가격 전반의 밴드권 움직임.

최근 원유 가격은 그 동안의 상승 흐름에서 벗어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조정 움직임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OPEC과 非OPEC 회원국 간의 원유 감산 합의 속에 원유 및 가솔린 가격이 반등한 후에 나타나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원유 가격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반전은, 최근 미국 내에서 캐나다산 원유 송유관 재추진이라는 원유 공급 증가 요인들로 인해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1) OPEC 내에서 이라크의 증산 가능성 등 올 하반기 이후 원유 감산에 있어 공동보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일부 시장 전망, 2) 유가가 50달러 대를 상회하면서 최근 들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의 시추장비 수가 증가하며, 향후 원유 생산량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부분 등도 원유 가격 하락을 이끌며 상품 가격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13. 원유 가격 하락, 트럼프의 원유 공급 확대 정책 기대로

그림 14. 금 선물, 브렉시트, 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강세 반전



또한 아래 원유, 가솔린, 천연가스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축소 움직임에서 보듯, 최근 이들 선물 가격들의 단기 급등 이후 차익실현 포지션이 급증한 부분도 이번 원유 선물 가격의 조정 원인이다. 즉 현재의 유가 하락은 단기 차익실현을 위한 포지션 정리에 따른 측면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유가 급락 흐름이 장기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림 15. WTI 원유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그림 16. 금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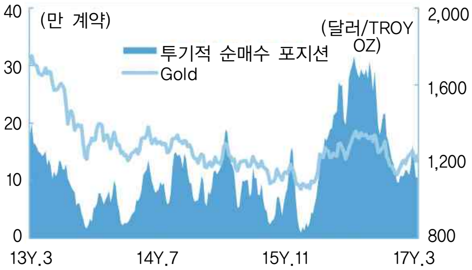


그림 17. 가솔린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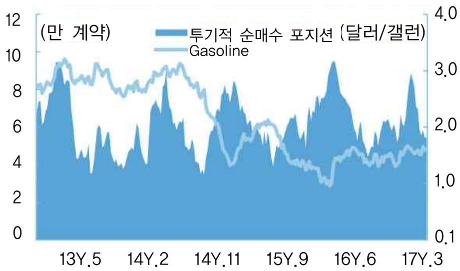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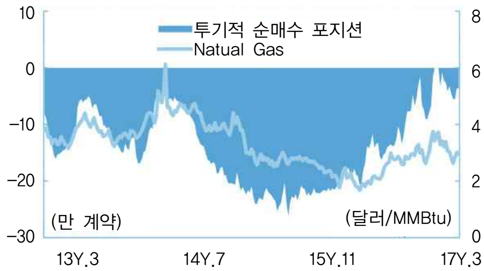


그림 18. 천연가스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시장 외부 환경 4: 그러나 여전히 미국 개인소비 심리는 개선 중

최근의 상품 가격 조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소비와 관련된 소비자 신뢰지수, 인플레 기대 심리 등의 지표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미국의 제조업 관련 경제지표들의 개선에서 보듯 글로벌 제조업의 회복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는 결국 제조업 생산과 관련한 각종 상품가격의 회복이라는 큰 흐름을 통해, 상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19. 미국 FRB 3월 금리 추가 인상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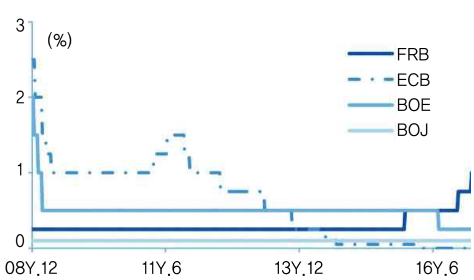


그림 20. 미국 인플레 확률 지수 상승 흐름 이어짐

실제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개인소비의 회복과 관련해서 각종 소비자심리지표들이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와 인플레 확률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그림 21.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회복 흐름 이어짐

그림 22. 미 경기선행지수 개선과 인플레 확률 상승

이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용시장의 개선 움직임은 개인소득/지출, 그리고 소매판매의 개선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 견조한 고용시장 흐름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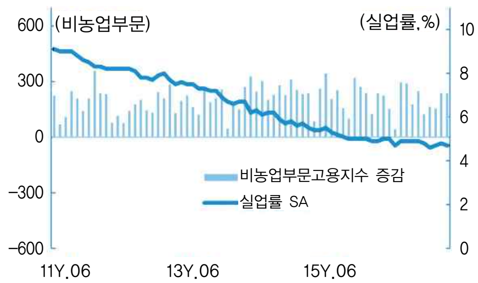


그림 24. 실업수당 신청자 수 감소 흐름 이어짐

그림 25. 미국 개인들 소득/지출 회복 흐름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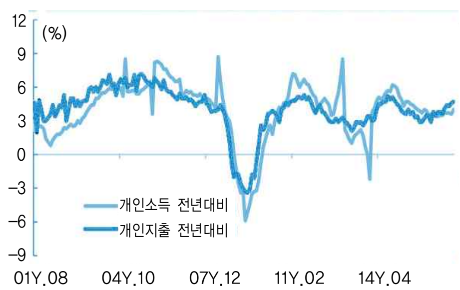


그림 26. 소매 판매 개선 흐름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래 차트에서 보듯 **계절적인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증가 폭의 축소가 예상되는 점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를 축소시킬 요인이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7. 계절적 고용자수 증가세 둔화 요인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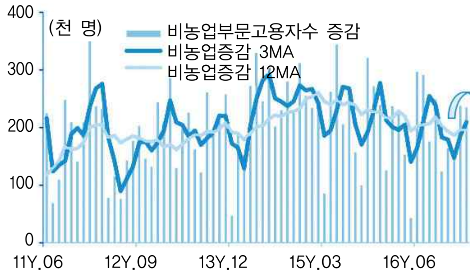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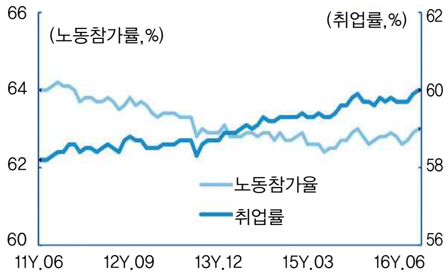


그림 28. 노동참가율 증가는 실업률 하락 제한 요인



시장 외부 환경 5: 미국 제조업 개선 흐름은 이어짐

최근의 상품 가격 조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글로벌 및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제조업의 회복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결국 제조업 관련 각종 상품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곡물 가격 또한 현재 일시적 조정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같은 상품 가격 회복이라는 큰 흐름으로 인해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29. 글로벌 제조업 주도 경기회복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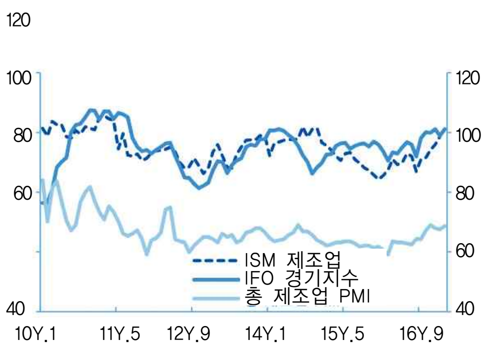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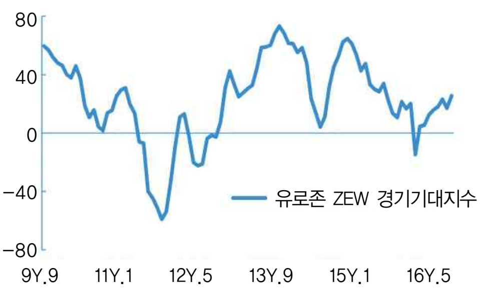


그림 30. 유로존 ZEW 경기기대지수 회복 흐름 이어감



특히 지난 3월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글로벌 경기 회복은 2016년 후반부터 1)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확대 움직임, 2) OPEC의 감산 합의 이행 속에

유가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상품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 3)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관련해 IT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성장, 낮은 인플레율, 저금리 등 그 동안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 미국 제조업 지표들의 개선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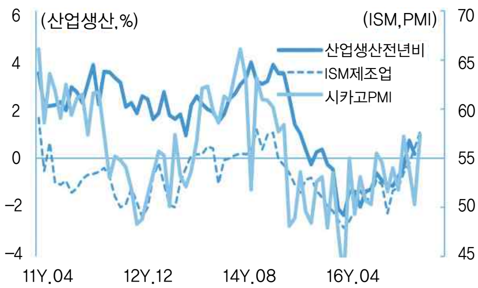


그림 32. 미국 ISM 신규수주 추이

그림 33. 주택시장 심리는 고용 개선 속에 견조한 모습

그림 34. 기존 주택 판매 개선 흐름 이어짐

그림 35. 독일 산업생산 반등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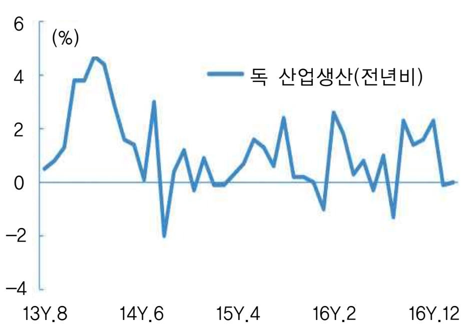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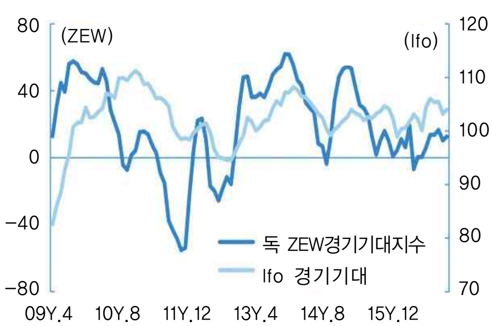


그림 36. 독일 경기기대 지수 회복세 지속



▌시장 외부 환경 6: 유럽의 정치적 이벤트들로 인한 우려는 잔존

지난 3월 네덜란드의 하원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정치적 집권력을 가지는 데 실패했지만,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2017년에 많은 정치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1) 4~5월의 프랑스 대통령 선거, 2) 9월 독일 의회 선거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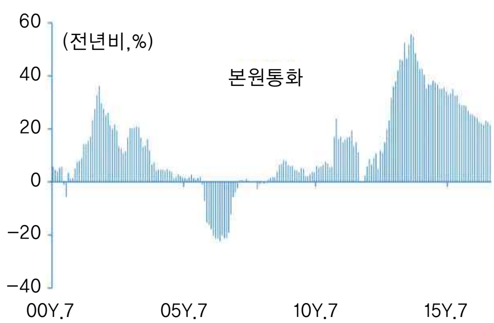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프랑스의 대선으로 좌파 성향의 르펭 당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 경우 르펭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져 시장에 미칠 충격파는 제한될 전망이다.

▌시장 외부 환경 7: 일본은행은 3월 이후 다시 움직일까?

마지막으로 지난 2, 3월 전망에서 언급해 온 언제 다시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림 37.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 혼란 속 엔화 강세 재연

그림 38. 향후 BOJ의 양적 완화 재점화 여부에 주의



달러엔 환율은 미국 재무부의 4월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본의 수출 회복 흐름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달러엔 환율 수준이 100엔 대 초반이라는 점 등이 **엔화 약세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 일본 기업들의 3월말 결산을 앞둔 자금 본국 송환 흐름, 2) 일본 대기업 도시바가 원전사업부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회계부정과 반도체 관련 자회사 매각 움직임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도 엔화 강세를 초래했다.

그림 39. 경기회복 기대 속에 닛케이 주가 지수 회복

그림 40. 일본 대외 수출 증가 폭 확대

그림 41. 일본 실업률 하락 흐름 지속

그림 42. 다만 아직 기업들이 지갑을 완전히 열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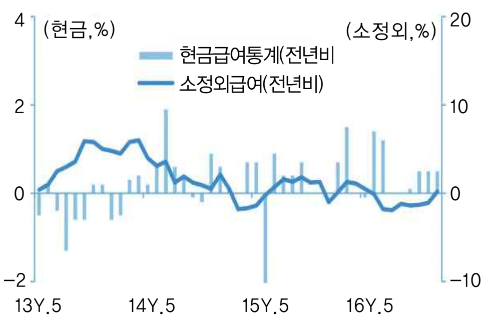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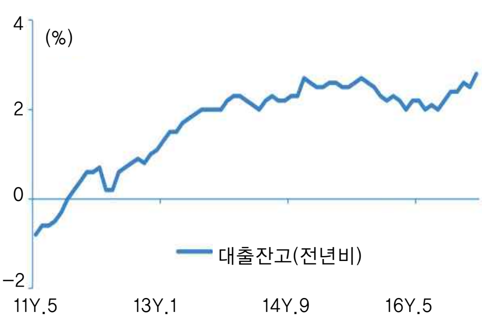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 기계수주 회복세 전환

그림 44. 경기회복 기대 속에 대출 증가 흐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美日 정상회담이 원만히 종료된 상황에서, 1)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보고서 발표, 2) 일본 기업들의 3월말 결산기일 등이 지나면서 다시금 엔화 자금의 해외 유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자산에 대한 일본 자금의 투자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비중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한 만큼 주식, 상품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달러화 강세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국산 곡물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할 부분임은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上記 차트들에서 보듯 일본의 경기회복 흐름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美 농무부 3월 수급 전망: 대두 생산량 증가 예상은 가격 제한

미국 농무부가 3월 9일 발표한 3월 글로벌 곡물수급전망자료(WASDE)에서 미국산 곡물의 2016/17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는 소맥이 49.7%로 2월의 50.2% 대비 0.3%pt 하락하며 전월 기록한 1월 대비 3.2%pt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미국산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15.9%로 전월과 동일했고, 대두는 10.6%로 전년도의 5.0% 대비 큰 폭 늘어날 전망으로 대두 선물 가격 조정 요인을 제공했다. 특히 남미의 올해 대두 생산량 증가 전망도 이 같은 대두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전한 남미산 생산량 증가 전망은 곡물 가격 상승 제약 요인

다음과 같은 곡물 생산량 증가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어 곡물 선물 가격 반등을 제한할 전망이다. 이들 요인들은 1) 3월 9일 USDA 수급전망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곡물 생산량 전망치가 예상보다 큰 폭 상향 수정, 2) 3월 23일 남미 아르헨티나 곡물 거래소가 자국의 대두 생산량 증가 전망 발표, 3) 최근 날씨 호전으로 남미 곡물 재배지역의 작황 개선 기대, 4)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강우 소식으로 옥수수 파종 시기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제한되며 옥수수와 소맥의 생산량 증가 전망 부각, 5) 3월말 작부의향 면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2월 USDA 전망 포럼에서 대두 작부면적이 전년대비 460만 에이커 증가한 8,800만 에이커를 기록하고, 옥수수는 400만 에이커 감소한 9,000만 에이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점 등이다.

USDA 3월 수급전망에서 옥수수 생산량은, 브라질산이 전월대비 500만 톤 상향 수정된 9,150만 톤(전년도 6,700만 톤), 아르헨티나 산이 100만 톤 상향 수정된 3,750만 톤(전년도 2,900만 톤)을 기록했다. 또한 대두의 경우도 브라질산이 400만 톤 상향 수정된 1억 800만 톤을 기록했고, 아르헨티나산은 전월과 동일한 5,500만 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에서 언급한,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가 2월 9일 발표한 2016/17년도 5차 주요 곡물 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주요 곡물의 작부면적은 전년도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생산량은 엘니뇨로 인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전년도를 크게 상회할 전망으로, 옥수수는 전년대비 31.4%, 대두는 10.6% 증가가 예상되었다.

한편 호주도 겨울작물(3~6월에 파종해서 10월에서 다음해 2월에 걸쳐 수확함)의 생산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45.4%를 예상하고 있다.

4월 전망 정리: 남미 작황 개선 기대로 인한 가격 조정 흐름 지속

곡물 시장 외적 요인을 보면, 달러화 약세 요인들이 곡물 공급량 증가 전망에도 곡물 가격의 낙폭을 일부 제한할 전망이다. 이들 요인으로는 1) 3월 FOMC 회의 이후 연내 4차례 금리인상 우려가 축소된 부분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2)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 감세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부각 등이 달러화 약세를 부각시킬 요인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제조업 주도의 경기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 이는 달러화의 강세 요인을 언제든지 재현시킬 부분이므로 곡물 가격의 반등 폭도 제한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감안할 때 4월 미국산 곡물 가격은 보합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장 수급 요인은, 미국 농무부가 3월 9일 발표한 곡물수급(WASDE)에서 미국산의 2016/17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곡물 수급에 대한 우려 요인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남미산 곡물 생산량 증가 전망, 그리고 미국의 4월 중순 옥수수 파종 시기를 앞두고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강우량 예보로 인한 작황 개선 기대감 등은 곡물 가격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주간 수출검사 물량 추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을 제한할 요인이다.

그림 45. 옥수수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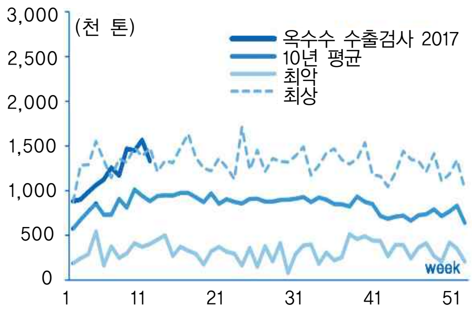


그림 46. 옥수수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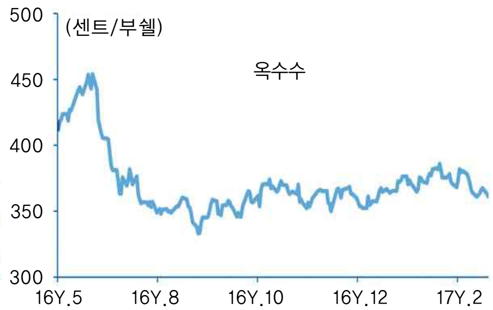


그림 47. 대두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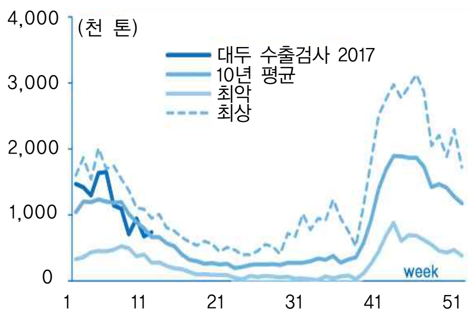


그림 48. 대두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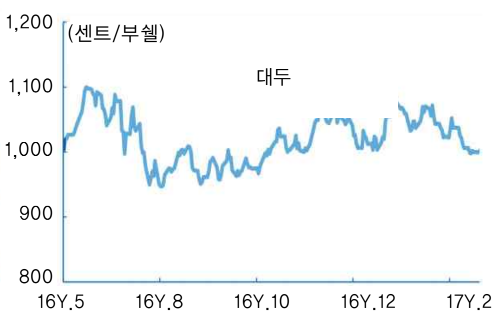


그림 49. 소맥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50. 소맥 선물 가격 추이

곡물 선물 포워드커브 현황: 향후 남미 작황에 주의

지난 3월 월간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미국산 곡물 수출 검사의 계절적 요인과 연계해서 향후 포워드 커브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옥수수는 2015년과 2016년 초반 포워드커브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향후 글로벌 수급 문제는 제한적인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옥수수 파종과 관련해

곡물 재배지역 날씨와 파종 상황이 단기적으로 가격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림 51. 2017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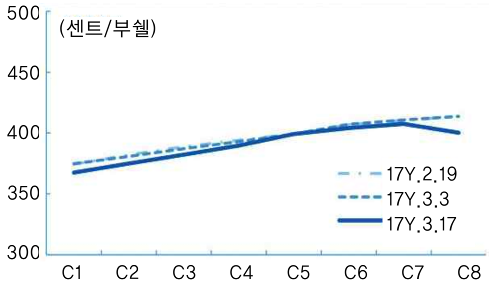


그림 52. 2015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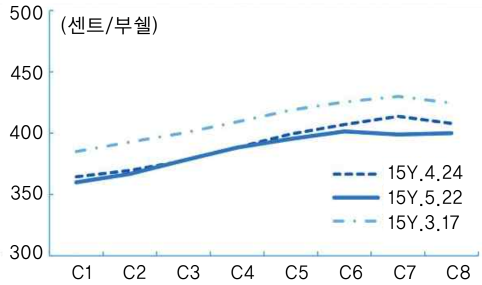


그림 53. 2017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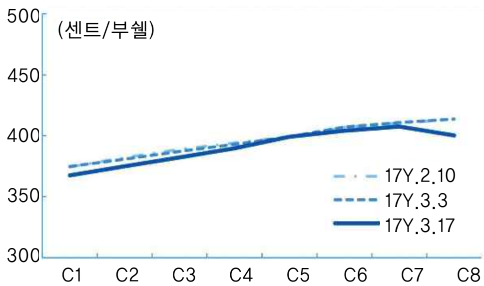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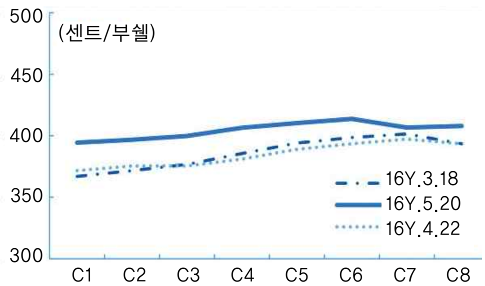


그림 54. 2016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소맥은 1) 3월 USDA 수급 전망에서 나타난 소맥 재고율 추가 하향 조정, 2) 향후 미국 재배 지역의 봄철 날씨에 따른 파종 상황 변화 등에 의해 가격 움직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49.7%로 여전히 높은 미국의 소맥 기말재고율과 호주의 소맥 생산량 증가 전망 등은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림 55. 2017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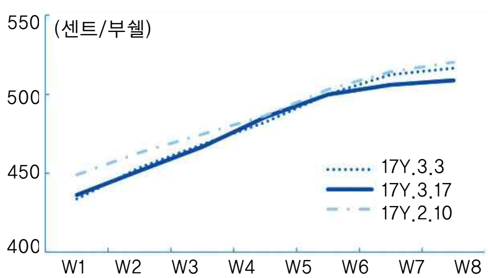


그림 56. 2015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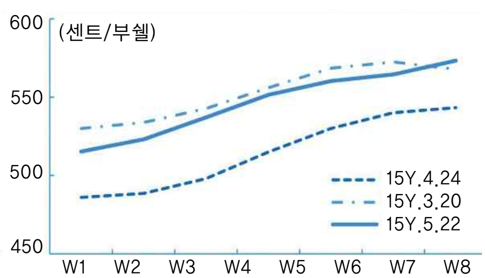


그림 57. 2017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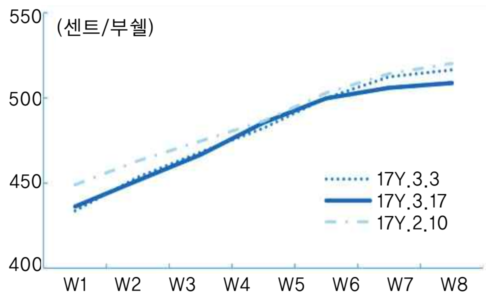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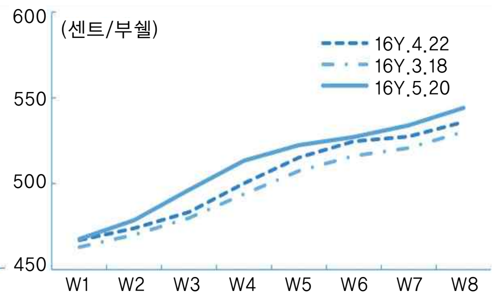


그림 58. 2016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대두 또한 2015년과 2016년의 포워드 커브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이다. 다만 2017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가격이 상승한 이후, 3월은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진 상황이다. 향후 남미산 대두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제한될 전망이다.

그림 59. 2017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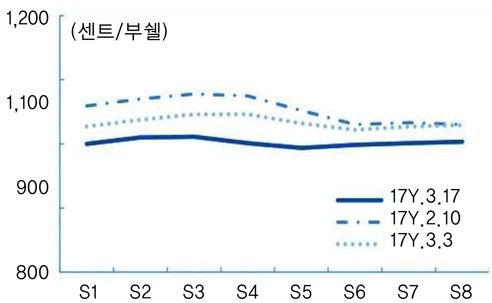


그림 60. 2015년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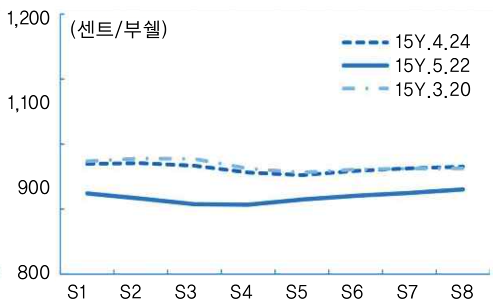


그림 61. 2017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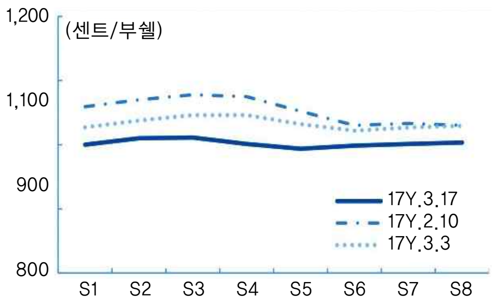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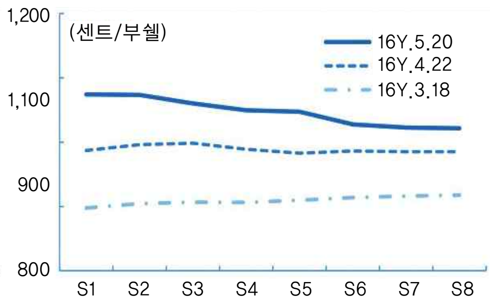


그림 62. 2016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옥수수/대두, 옥수수/소맥 상대 가격 비율 반등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비율은 2월 전망 작성 시점의 0.3576에서 0.3607로 상승했다. 이는 남미산 대두 수확량 증가 전망이 대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옥수수/대두 선물의 상대가격 비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남미산 대두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추가적인 同 비율의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림 63. 옥수수/대두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옥수수/소맥 선물 가격 비율은 3월 전망 작성시점의 0.8317 대비 상승한 0.847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USDA 3월 수급전망에서 미국산 소맥의 기말재고율이 2월에 이어 추가로 하향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옥수수 4월 파종 시즌을 앞둔 가운데 향후 날씨로 인한 미국산 옥수수 파종과 관련한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우려가 옥수수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64. 옥수수/소맥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옥수수와 소맥의 추가 확대 가능성

다음 Managed Fund들의 옥수수 선물 투기적 포지션은, 투기적 순매수에서 소폭의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매도세 강화는 제한될 전망이다. 물론 남미산 대두의 생산량 증가 전망은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 조정 요인이기 때문에, 대두는 아직 추가적인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축소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하겠다.

그림 65. 옥수수 선물 Managed Fund 순매수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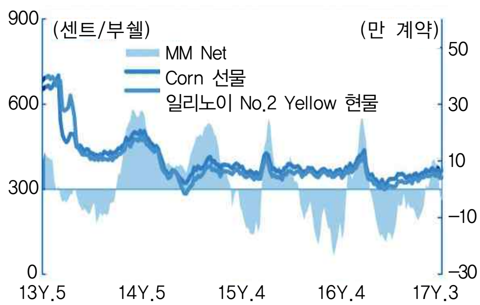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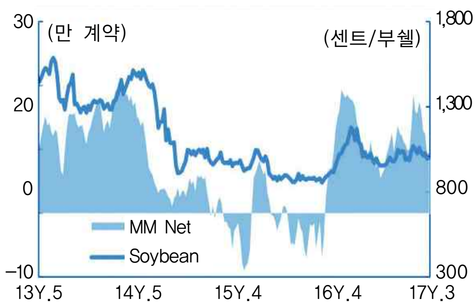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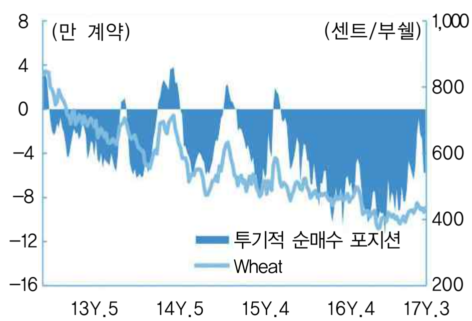
그림 66. 대두 선물 Managed Fund 순매수 포지션 추이



소맥은 2월 USDA 수급전망에 이어 3월 USDA 수급전망에서도 미국산 소맥의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순매도 포지션의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미국산 소맥의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49.7%로 높다는 점은 소맥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기 힘든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67. 대두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그림 68. 소맥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옥수수 파종 시기를 앞두고 미국 재배 지역의 강우 예보

아래 차트들을 보면 미국 중서부 재배지역의 강우 예보가 나오고 있어, 향후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옥수수 파종과 관련해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부분이다.

그림 69. 미국 강수량 전망(3월 2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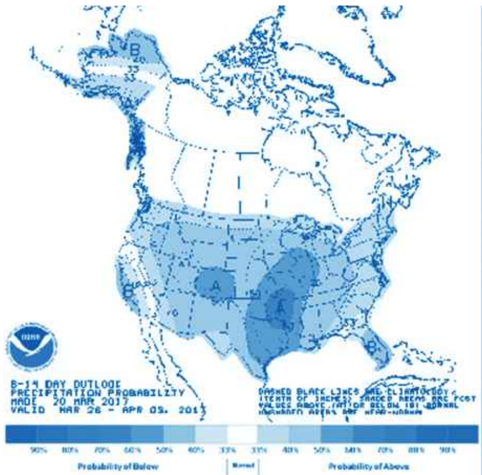


그림 70. 강수량 전망(3월 21일 기준: 향후 8~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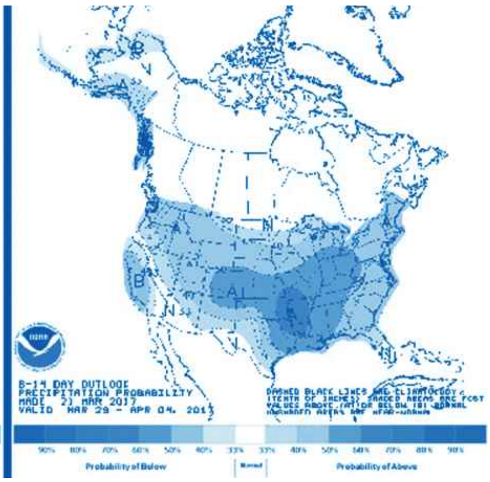


그림 71. 미국 기온 전망(3월 2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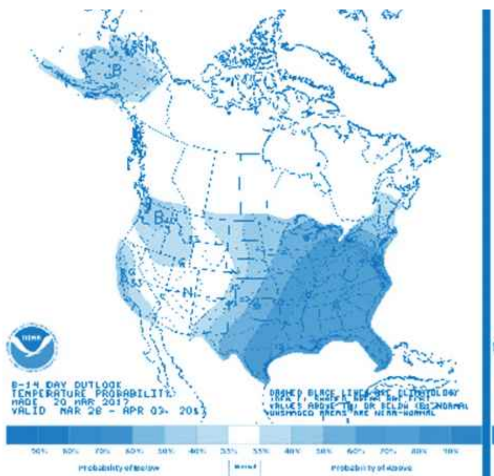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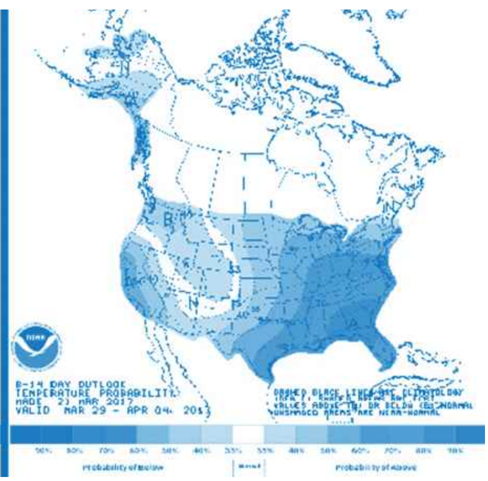


그림 72. 기온 전망(3월 21일 기준: 향후 8~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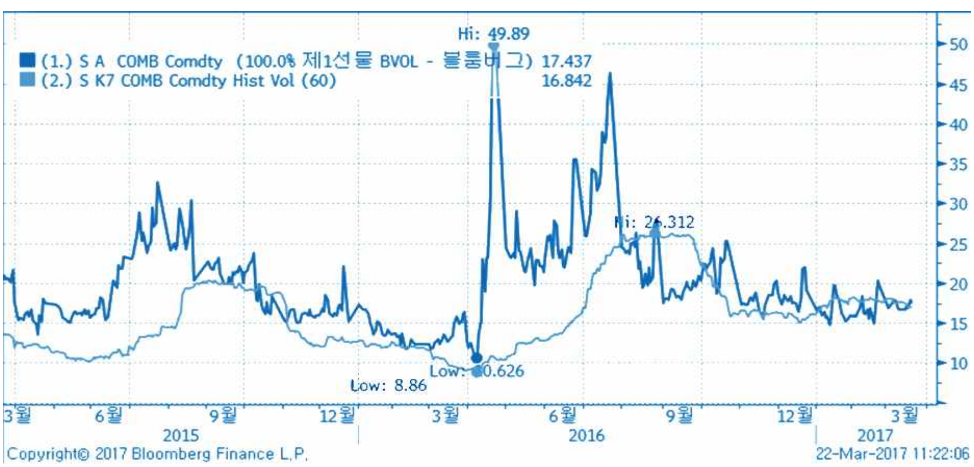
옥수수, 대두 선물 내재 변동성 예상대로 급등 후 조정

옥수수의 내재변동성(흰색 실선)은 전월 16.42에서 2월 22일에는 27.05까지 급등한 후 19.58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역사적 변동성(노란색 실선)은 전월 보고서 작성 시점의 17.28에서 16.09로 하락했다.

그림 73. 옥수수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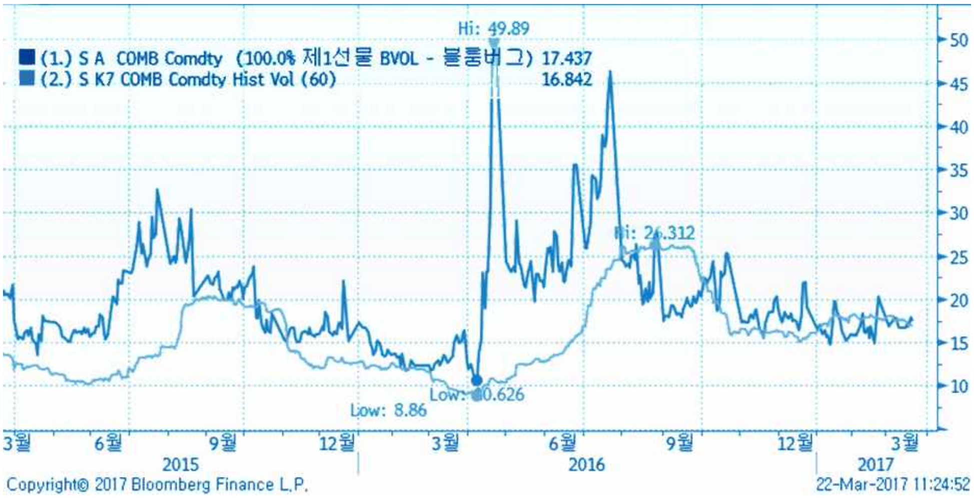
대두의 내재변동성도 전월의 15.43에서 2월 22일에 20.28로 급등한 후, 17.43으로 하락했다. 역사적 변동성은 전월의 17.95에서 16.84로 하락했다.

그림 74. 대두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소맥의 내재변동성은 전월 보고서 작성 시점의 22.35에서 17.44로 하락했다. 역사적 변동성도 전월의 21.83에서 16.84로 하락했다.

그림 75. 소맥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 소장)*

연준은 왜 이토록 금리인상에 적극적일까?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산유국들은 감산까지 한다는데 유가는 왜 이토록 못 오르는 것일까? 취임 첫날부터 이것저것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트럼프는 과연 무엇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미국 정치판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아베에게도 위기가 닥친 것인가? 네덜란드 국민이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표출했으니 프랑스 대선도 무난하게 끝날 것인가? 글로벌 증시는 마침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4월에도 궁금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불확실성(1) 연준(Fed)의 통화정책 & 유가 추이

작년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2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美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dot plot)에서는 2017년 중 추가 세 차례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에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월 이후 3월 초에 이르기까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갑자기(?)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더니([자료 1] 참조),

* jopok5298@nate.com

그림 1. 갑자기(?) 금리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연준 인사들

인용: Bloomberg, CNBC

3월 15일 FOMC에서 아닌 게 아니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75 ~ 1.00%로 25bp 인상하였다. 상식적으로는 미국 국채수익률(즉, 금리)의 상승 및 달러강세,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되는 연준의 3월 금리인상이었지만 막상 시장은 연준의 완화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며 금리인상 충격을 잘 견뎌내었다([자료 2] 참조).

연준은 왜 이토록 금리인상에 적극성을 띠며 이토록 서두르는 것일까? 일단 연준의 그 동안 對시장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옐런 의장이 불만을 토로하였듯이 지표로 나타나는 고용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잘 오르지 않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도 기대에 못 미치는 데에다, 응답자들의 심리나 기대가 반영되는 소프트 데이터(soft data)의 호조와는 대비를 이루는 산업생산이나 소매판매 등의 하드 데이터(hard data)의 여전한 부진 내지 침체는 연준이 내세우는 금리인상 이유에 고개를 갸웃하게끔 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여건이 허락할 때 정책금리를 좀 올려뒀다가 향후 경기침체에 양적 완화(QE)와 같은 연준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는 금리를 낮추는 전통적 통화정책 대응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그림 2.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나 시장은 믿지 않는 금리 정상화 의지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언급한 'Animal spirit'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시장의 야성적 충동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애니멀 스피릿 운운은 의역하자면 뉴욕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내달려 왔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發 금융위기'로 인한 아찔함을 경험한 연준으로서는 금융시장의 지나친 침체도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과도한 시장 과열도 반갑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음모론적 서적에서 묘사하는 연준과 많이 다르다. 善意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는 연준이라고 가정한 추론이다). 연준이 점진적이나마 꾸준하게 금리인상을 도모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만간 들이닥칠 '韓-美 금리역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연내 두 번만 더 올려도 한국은행이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제는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정책금리에서부터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이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유가 전망의 어려움 & WTI 선물가격 주간차트

인용: 조선일보(左上), GB칼텍스(右上), Infomax(3/24 현재)

[그림 3]의 국제유가 전망 그래픽은 시장에서의 예측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나 IMF, 세계은행 같은 쟁쟁한 기관들이 예측한 2017년 국제유가는 배럴 당 70~80 달러대를 내다보았지만 막상 2017년 1분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배럴 당 50 달러대를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감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한 데 비해 원유에 대한 수요는 예상만큼 활발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최근 글로벌 달러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유가는 하락함으로써 시장가격의 결정 변수 중 수급(需給)을 당할 것은 없음도 확인된다. 국제유가 추이를 살피면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4월 이후 유가가 현 레벨에서 더 오르지 못한다면 이제 인플레 지표에서 유가의 전년 대비 상승세로 인한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물가의 회복 없이 중앙은행들의 리플레이션 유도 정책과 금리정상화는 그 만큼 힘들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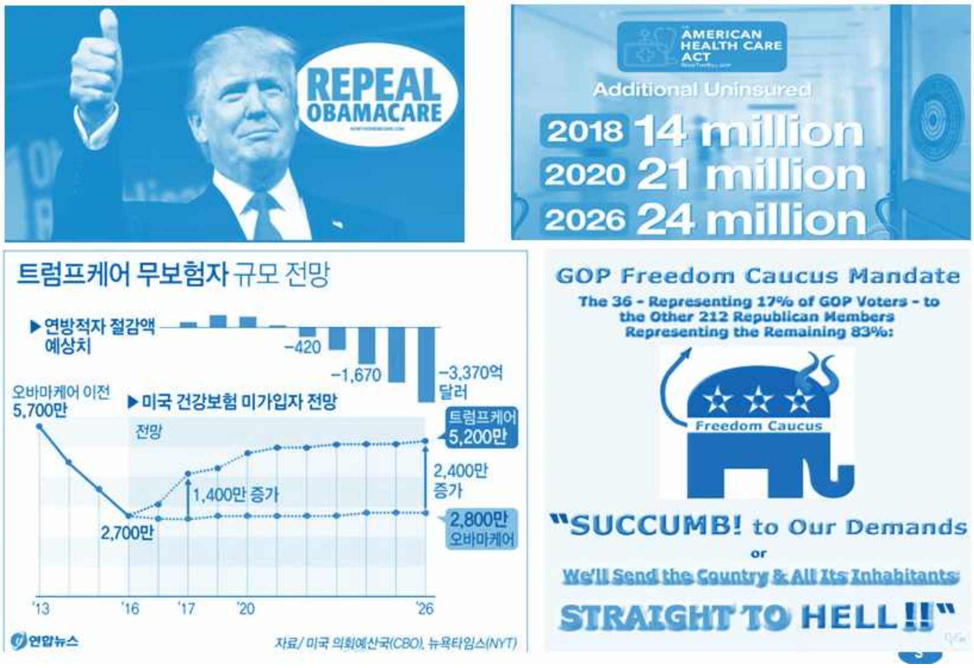
불확실성(2)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마치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낼 때에도 필자는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느끼기보다는 아마추어리즘과 저러다 정치권의 반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다. [그림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트럼프의 사람들'도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였다기보다는 어쩌다 맺어진 트럼프와의 인연으로 미국 재무장관까지 오른 스티브 므누신은 과거 로버트 루빈이나 헨리 폴슨이 지녔던 존재감을 내보이지 못하면서 약체(弱體)라는 인상을 준다. 임기 초의 서슬 퍼런 권력을 즐길만한 시점임에도 백악관 참모 간에 팀웍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분위기인 데에다 FBI 등 정보기관들은 계속해서 트럼프(와 주변 인사들)의 미심쩍은 對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여차하면 뭔가 한 방 터뜨릴 기세이다.

그림 4. 약체(弱體) 美 재무장관 & 혼란스러운 백악관 내부 기류

인용: CNBC, 한겨레신문

그림 5. ‘트럼프 케어’ 법안 철회... 트럼프의 첫 좌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트럼프가 공언해 왔던 ‘오바마 케어(Obama care)’ 폐기는 실패로 끝났다([그림 5] 참조). 세금 잡아먹는 하마인 데에다 강제적 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일부 미국 국민들의 반감에 편승한 선거 전략이었는데,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와중에도 집권 여당이라 할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프리덤 코커스) 등의 반발로 하원 표결을 하루 미루는 해프닝 끝에 결국 3월 24일에 ‘트럼프 케어 철회’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자칭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로서는 첫 좌절이라 할 만한데, 이번 ‘오바마 케어 폐기 실패’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세제 개혁,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확대 등도 의회로부터 순조로운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을 짐작케 한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취임연설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너무 기성 정치권을 매도해 왔던 데 따른 역풍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트럼프가 펼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달려 왔던 그간의 장세에 대한 점검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림 6. 美 다우존스 지수 일간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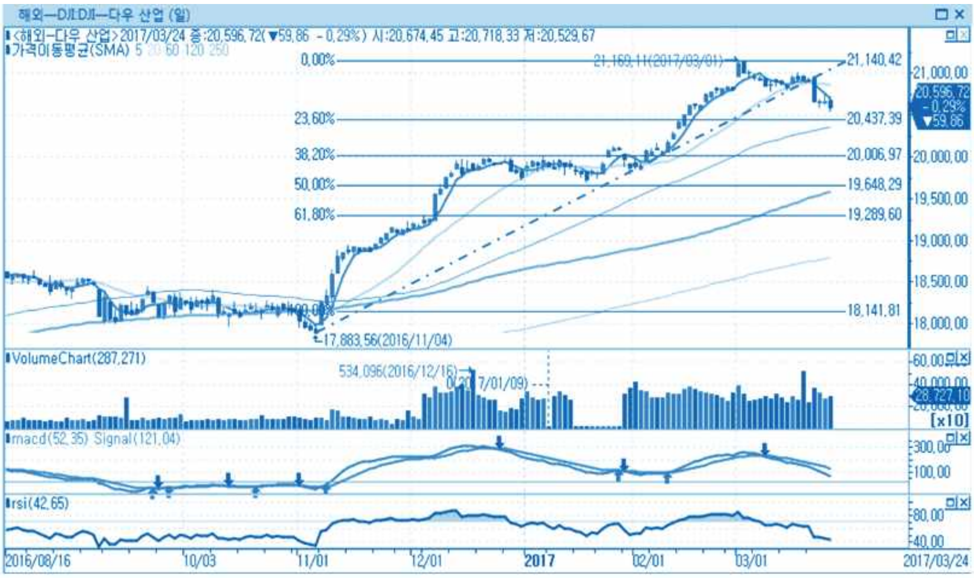


차트 인용: Infomax(3/24 현재, 이하 같음)

그림 7. 美 국채(10년)수익률 주간차트

그림 8. 달러인덱스 주간차트

‘트럼프 랠리(Trump rally)'의 상징인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트럼프 당선 무렵부터 시작되는 단기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고 기술적 보조지표들은 과매수 국면에서 매도 다이버전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증시의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끄는데,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 매수세를 형성했던 세력들이라면 지금쯤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겠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작년 11월 이후 상승 폭의 절반 내지 61.8% 조정 레벨까지의 추가하락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이끌어낸다([그림 6] 참조). 연준이 양적 완화 종료에 이은 금리인상에 나섰음에도 美 국채수익률은 버냉키의 입에서 “연내 양적 완화 축소”라는 선언이 나왔던 2013년 5월 이후의 금리 급등기에 찍었던 3%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2.6% 수준에서 이중 천정을 형성하고 재차 국채수익률 하락(국채가격 상승) 랠리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즉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연준이 주장하는 만큼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고 보는 시장의 반응이기도 하다([그림 7] 참조). 연준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재차 강세로 돌던 달러도 막상 금리인상 이후에는 약세로 반전 중인데, 2014년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선의 지지 혹은 붕괴 여부가 중요해졌다([그림 8]).

불확실성(3)... 정치적 변수(아키에 스캔들 & 프랑스 대선)

지지율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이렇다 할 정치적 맞수가 없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총리직 3연임에 도전하려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외의 일격을 맞으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또는 아베 총리의 부인 이름을 딴 아키에 스캔들로 국내 언론에서도 비교적 세세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총리직과 의원직을 걸겠다면서 강하게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아베인지라 당장 그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아베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아베노믹스' 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제법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동안 일본은행(BOJ)의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 내 국채(JGB) 물량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어 110엔 공방이 한창인 달러/엔(USD/JPY) 환율의 추가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4월이 될 듯하다.

그림 9. 정치적 곤경에 처한 아베(日 총리)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지난 3월 15일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마르크 뤼테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전체 150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하며 극우 포퓰리스

트 헤이르트 빌더르스(자유당)의 돌풍을 잠재웠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과 유로존 국가들은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네덜란드 국민들의 선택에 고무되면서 오는 4월 23일 1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反EU, 反이민 정책 등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무소속 에마뉴엘 마크롱 후보에게 패배하기를 기대하는 양상이다([그림 10] 참조). 유럽 쪽 주류 언론들이나 금융 자본가들은 일방적으로 마크롱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네덜란드 총선 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트럼프 당선 이후 몇 개월 만에 극단적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랑스 대선은 아무래도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마크롱의 승리는 유로화 강세, 마린 르펜의 승리는 유로화의 추가하락을 이끌어낼 재료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 전망이다. 참고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火)이다.

그림 10.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할 프랑스 대선

인용: YTN, 연합뉴스 등

2. 환율 동향 및 전망

▌환율조작국 지정 앞두고 펼쳐지는 외국인들의 단기 트레이딩?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던 작년 11월 9일 1,931p까지 급락하던 코스피는 이후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3월 23일 2,182p까지 치솟으며 역사적 고점인 2,230p 돌파를 노리는 흐름으로까지 이어졌다([그림 11] 참조). 4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3%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일부 외국인 선호 IT 주들만 오르는 종목별 차별화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형편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탄핵 정국에 북한發 지정학적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시장치고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증권가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밝게 내다본 외국인 자본의 유입이라거나 기업실적 회복(기대감)에 의한 근거 있는 강세장이라는 등의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4월 중으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외국인(증시) 및 역외(환시) 세력의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짙다.

그림 11. 코스피(KOSPI) 월간차트

차트 인용: Infomax(3/27 현재, 이하 같음)

그림 12. 달러/원(USD/KRW) 주간차트

[그림 12]를 보면 달러/원 환율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에 딱 걸려있는 형국이다. 연초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달러약세 선호 발언으로 촉발된 글로벌 달러약세 흐름과(☞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 있는 자들의 말이 앞서는 시기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신경 쓰는 서울 외환당국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단행되기 어려운 시기라 보고 숏 플레이에 나선 역외 매도세에 고무되어 역내 플레이어들도 1,100원 아래를 노리며 달러 매도 대열에 동참한 상황이다. 주간 차트로 살피면 기술적으로도 아직 달러 과매도 내지 바닥 신호는 확실치 않아 추세선을 깨고 내려서서 적어도 직전 전저점인 1,090원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케어 법안의 폐기가 이미 과매수권에 한참 진입해 있는 뉴욕증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면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에다 트럼프 당선 이후만 살피면 한국 원화가 가장 강세를 보인 통화라([그림 13] 참조) 코스피 전고점 돌파 및 달러/원 환율의 1,000원대 진입을 노리던 세력들이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고 탄식하며 포지션 청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그림 13. 주요 통화들의 절상, 절하율 비교 (트럼프 당선 이후)

기준통화	등락률	사용자	기준가	현재가		대비
USD						
EUR	-0.58		1.090900	1.084600	▼	-0.006300
JPY	-4.02		0.009445	0.009065	▼	-0.000380
KRW	+3.15		0.00086994	0.00089738	▲	0.00002744
GBP	+0.85		1.242140	1.252720	▲	0.010580
CHF	-0.32		1.015641	1.012351	▼	-0.003290
AUD	-0.43		0.766100	0.762800	▼	-0.003300
CAD	+0.39		0.747496	0.750413	▲	0.002917
CNH	-0.30		0.146327	0.145892	▼	-0.000435

인용: Infomax

또 한 가지 환율 전망과 관련하여 관찰해야 할 것은 달러/엔(USD/JPY) 환율과 엔/원(JPY/KRW) 재정환율이다. 3월 마지막 주간 현재 엔/원 환율은 100엔 당 1,000원 근방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110엔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은 달러/엔 환율에(즉, 엔화의 추가강세에) 달러/원 환율도 동반 하락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엔/원 환율이 1,000원 위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을지가 궁금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아키에 스캔들'이나 글로벌 증시의 하락 조정 기미는 모두 엔화에는 강세 요인이다. 달러/엔 환율이 110엔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108엔이나 105엔까지 노릴 경우 달러/원 환율도 엔/원 10:1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면 1,080원이나 1,050원 같은 환율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깊어지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로 돈다면 달러/원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하면서 엔/원 환율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4월 중 발표될 환율보고서에서 그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호(號)는 나토(NATO; No Action Talk Only)가 적당할 듯하다.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3월 국제 원자재시장은 그동안의 상승기조에서 벗어나 약세로 전환되었다. 3월 20일까지의 국제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의 약세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곡물시장과 비철금속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품목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원유시장은 OPEC 국가들의 감산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감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감산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시추기와 원유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곡물시장은 미국의 예상파종면적과 남미의 작황에 따라 품목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비철금속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의 에탄올시장은 3개월 연속 약세에서 벗어나 강세로 전환되었다. 사상 최대의 에탄올생산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소비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언급되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해결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1. 원자재시장 동향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7년 3월 국제 원자재시장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3월 평균 CRB지수(CRB Index)는 185.8을 기록하여 전월 192.2에 비해 3.4% 하락했으며 1년 전 171.7에 비해서는 8.2% 상승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388.0으로써 전월 402.1보다 3.5%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325.0보다는 19.4% 상승했다.

* hwanilpark@gmail.com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6.3	2017.2	2017.3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171.7	192.2	185.8	8.2	-3.4
S&P GSCI	325.0	402.1	388.0	19.4	-3.5

주: 변화율은 2017년 3월 평균지수(3월 20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6년 3월)와 전월(2017년 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지난 2월까지 국제 원자재시장은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3월 들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국제 원자재지수는 2016년 한 해 동안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2016년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11월 평균지수가 최근의 저점인데 CRB Index는 184.4, S&P GSCI는 359.9를 기록했다. 2017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2016년 11월 저점에 비해 CRB Index는 4.3%, S&P GSCI는 11.7% 상승했다. 하지만 3월의 하락으로 CRB Index는 2016년 11월에 기록했던 지수 수준으로 낮아졌다. CRB Index는 3개월 연속 190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가능성이 높았지만 3월의 하락으로 인해 다시 190선 아래로 내려앉은 모습이다. CRB Index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95라는 1차 목표지수에 도달해야 하지만 3월에는 다소 목표지수대와 멀어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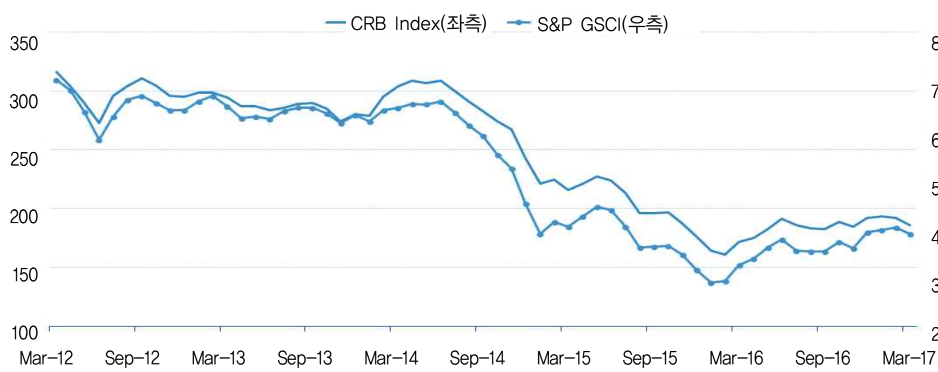
3월의 S&P GSCI는 2016년 11월 저점보다는 높지만 최근의 지수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되었다. 2월 평균지수가 400을 넘어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400 아래로 내려선 것이 아쉽지만 상승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RB Index와 달리 S&P GSCI는 1차 상승목표지수인 360을 넘어섰기 때문에 3월의 하락이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조정성격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월의 국제 원자재시장 약세는 원유시장의 하락에 기인한다. 국제 원유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곡물시장, 비철금속시장은 품목별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냈다. 원유시장은 OPEC 국가들의 감산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감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서 감산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시추기와 원유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곡물시장은 미국의 예상파종면적과 남미의 작황에 따라 품목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비철금속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은행은 3월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에서 예상한 바대로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으며 앞으로의 예상되는 정책금리 경로도 예상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진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으로 금리인상속도 가속화 우려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시장에 팽배되어있던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는 강세가 아닌 약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1일에는 달러인덱스가 99.64였으나 금리인상 이전인 3월 14일 101.70을 기록해 2.1% 상승했다. 하지만 3월 22일 기준 99.85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초반까지 진행되었던 달러화 강세는 국제 원자재시장에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이었지만 최근의 달러화약세는 그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향후 국제 원자재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가능성과 OPEC 및 비OPEC의 감산속도에 따라 반등 또는 추가 약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원자재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요인보다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다소 우세한 상황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7년 3월의 원유시장은 3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WTI원유의 3월 가격은 50.4달러/배럴로서 2017년 2월 가격 53.5달러/배럴에 비해 5.7%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32.8%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3월 가격이 53.2달러/배럴로서 전월의 56.0달러/배럴에 비해 4.9% 하락, 전

년보다는 33.8% 상승했다. 3월 천연가스 가격은 2.92달러/백만Btu로서 전월에 비해 0.3% 상승했으며, 1년 전보다는 61.3%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6.3	2017.2	2017.3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38.0	53.5	50.4	32.8	-5.7
브렌트유	39.8	56.0	53.2	33.8	-4.9
천연가스	1.81	2.91	2.92	61.3	0.3

주: WTI원유(CME선물), 브렌트유(ICE선물)는 달러/배럴, 천연가스(CME선물)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7년 3월 평균가격(3월 20일까지의 평균)과 전년 동기(2016년 3월)와 전월(2017년 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3월의 국제 원유시장은 4개월 만에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월간 등락률 기준으로 2016년 11월에 WTI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8% 넘게 하락한 이후 2017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3개월 동안 WTI원유와 브렌트유는 각각 16.4%, 19.2% 상승하여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3월에 기록한 하락으로 인해 국제 원유시장은 다소 불안한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WTI원유는 2017년 1월 이후 50달러 이상을 유지했지만 3월 9일부터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아직 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가격은 2016년 11월말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OPEC의 원유감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PEC의 감산 이행률은 1월에 90%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 감산률도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 회원국들이 감산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했다. OPEC의 1월 생산량은 3,214만 배럴/일로서 12월보다 89만 배럴/일 감소했다. OPEC 사무총장은 전 세계 석유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에 따라 감산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전 세계 원유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6월 이후에도 감산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 세계 원유재고가 5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원유시장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감산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감산률이 지속될지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OPEC은 감산합의 이후에는 단기간에 걸쳐 감산률이 높게 나왔으나 시

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겨울에 이루어진 감산은 계절적인 효과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름철에 원유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높은 감산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사우디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OPEC 감산정책을 중재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감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OPEC과 달리 비OPEC의 감산이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OPEC 11개국의 1월 감산 이행률은 60% 수준에 불과했는데, 감산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는 감산량이 하루 10만 배럴로써 목표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2월 원유생산량은 1,111만 배럴/일로써 감산합의 시점에 비해 10만 배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단계적인 감산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차 감산을 늘려가면서 4월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OPEC의 감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재고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원유재고증가는 수입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비수기에 따른 수요둔화가 주요 원인이다. 2월 17일 기준 원유재고량은 1주전보다 56만 배럴 증가한 5억1,868만 배럴로써 사상 최고수준을 갱신했다. 이는 1년 전보다 8.9% 높으며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8.3% 높은 수준이다.

3월 초반까지 유가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2월 24일 기준 903만 배럴/일로써 2017년 들어 26만 배럴이 증가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3월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전망을 전월 대비 8만 배럴/일 증가한 487만 배럴/일로 상향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추기는 2016년 5월말 316기에서 2017년 3월초 617기로 늘어났다. 이는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원유가격이 강세를 유지하자 미국 석유기업들의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현재의 시추기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017년 4분기 및 2018년 1분기 사이에 미국의 생산량은 41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원유시장에 대한 수급전망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IA는 2월 전망에서 2017년 세계 공급은 9,803만 배럴/일로써 종전보다 81만 배럴 상향 조정했으며, 수요는 9,809만 배럴/일로 162만 배럴 상향했다. 이로서 전체적으로 약 6만 배럴/일의 공급부족을 전망했는데, 이는 1월의 33만 배럴 공급과잉 전망에서 시각이 변화된 것이다. IEA는 2월 보고서에서 OPEC과 비OPEC 감산으로 전세계 1월 석유생산량은 전월 대비 150만 배럴/일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국제 원유시장은 OPEC과 비OPEC 국가들의 감산속도와 미국의 증산속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감산효과는 이미 원유가격에 반영이 된 것이고 감산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2017년 3월 곡물시장은 2월의 상승세가 둔화되어 품목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3월의 옥수수가격은 370.3센트/부셸로 전월보다 0.1%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9% 상승했다. 대두는 1,016.6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 1,037.7센트/부셸에 비해 2.0%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14.2% 높은 수준이다. 3월의 생육우는 117.1센트/파운드로 전월에 비해 1.9% 상승했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옥수수는 2016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3월 상승률은 강보합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대두는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5개월 연속 상승을 마무리하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호주 등 지역에서의 곡물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고,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확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2017년

파종면적 전망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농가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대두는 늘릴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국제 곡물시장은 당분간 급격한 가격변동보다는 기술적 차원의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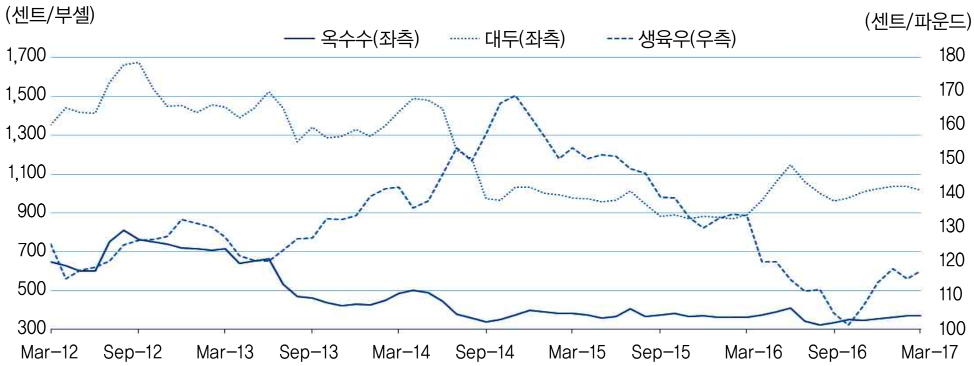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6.3	2017.2	2017.3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363.5	370.0	370.3	1.9	0.1
대두	890.5	1,037.7	1,016.6	14.2	-2.0
생육우	133.6	115.0	117.1	-12.3	1.9

주: 옥수수(CME선물), 대두(CME선물)는 센트/부셸, 생육우(CME선물)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7년 3월 평균가격(3월 20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6년 3월)와 전월(2017년 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3월의 비철금속시장은 품목에 따라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3월 구리가격은 5,885달러/톤을 기록하여 2월 가격보다 1.5%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0.0% 상승했다. 알루미늄은 1,939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3%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0.6% 높은 상태이다. 3월 금 가격은 1,219달러/온스로써 2월보다 1.4%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1% 하락했다.

구리가격은 2016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3월 들어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2월 9일부터 세계 최대 구리 생산지역인 칠레 구리광산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페루 등 지역에서도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글로벌 구리시장의 공급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구리 실물시장에서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가운데 3월의 구리가격은 하락했다. 향후 구리광산의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실물시장에도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은 3개월 연속 상승하여 3월 가격은 지난 2014년 12월 1,963달러/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알루미늄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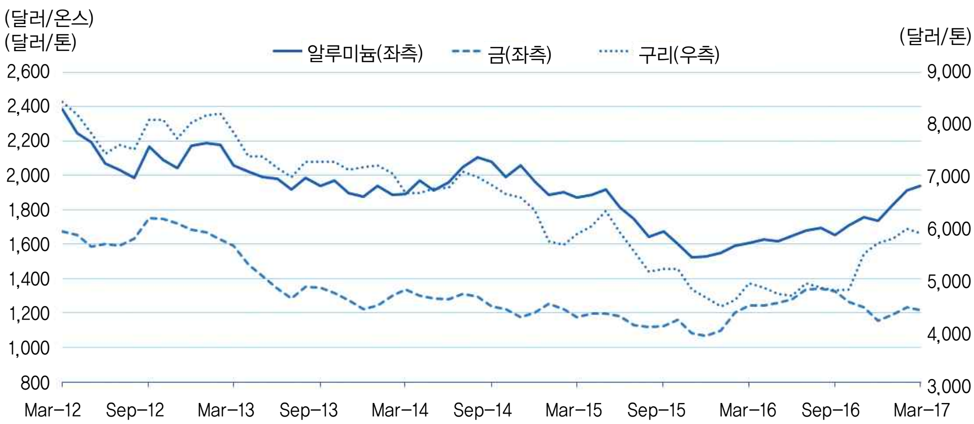
국제 비철금속시장은 2015년 말부터 진행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인해 단기간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최근의 공급차질로 인해 주요 비철금속의 강세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6.3	2017.2	2017.3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608	1,915	1,939	20.6	1.3
구리	4,906	5,972	5,885	20.0	-1.5
금	1,246	1,236	1,219	-2.1	-1.4

주: 알루미늄(LME선물), 구리(LME선물)는 달러/톤, 금(CME선물)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7년 3월 평균가격(3월 20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6년 3월)와 전월(2017년 2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견조한 에탄올생산량을 기반으로 가격반등 모색

2017년 3월 미국 에탄올시장은 3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 강세로 전환되었다. 3월 마지막 주 가격은 152.9센트/갤런으로 2월 마지막 주 가격인 152.3센트/갤런 대비 0.4%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5.6% 상승했다. 에탄올시장은 2017년 3월 초반 주간 평균 가격기준 149.8센트/갤런을 기록하며 150센트 아래로 하락했으나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6.3.28	2017.2.27	2017.3.20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144.8	152.3	152.9	5.6	0.4

주: 에탄올(CME선물)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7년 3월 마지막 주(3월 20일 기준) 평균가격의 전년 동기(2016년 3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7년 2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미국 에탄올생산은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기준 106.1만 배럴/일의 사상 최고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약간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00만 배럴/일 이상의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1월과 2월 평균 에탄올생산량은 각각 105.4만 배럴/일, 104.1만 배럴/일로써 월간 기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1월과 2월의 생산량 98.0만 배럴/일, 98.1만 배럴/일에 비해 7%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저조했던 가솔린소비량은 3월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기준 주간 가솔린소비량은 926.8만 배럴/일로써 2016년 12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7년 2월 초의 가솔린소비량 894.1만 배럴/일에 비해서도 3.7% 증가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서 가솔린소비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솔린소비량 증가속도는 예전에 기록했던 속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연비개선으로 인해 가솔린소비량의 빠른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비록 가솔린소비량이 늘어났지만 에탄올생산량 증가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에탄올재고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2월 24일 기준 에탄올재고량

은 23.1백만 배럴로써 2016년 3월 4일 23.3백만 배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월 들어 재고량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탄올재고량 증가는 기본적으로 에탄올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트럼프 정부의 에탄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생산량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수출 확대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탄올 부산물인 DDGS에 대한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미국 에탄올 수출에 타격이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에탄올업계에 다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에탄올업계에 미국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업계 내 규제 완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미국 신행정부가 에탄올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취해왔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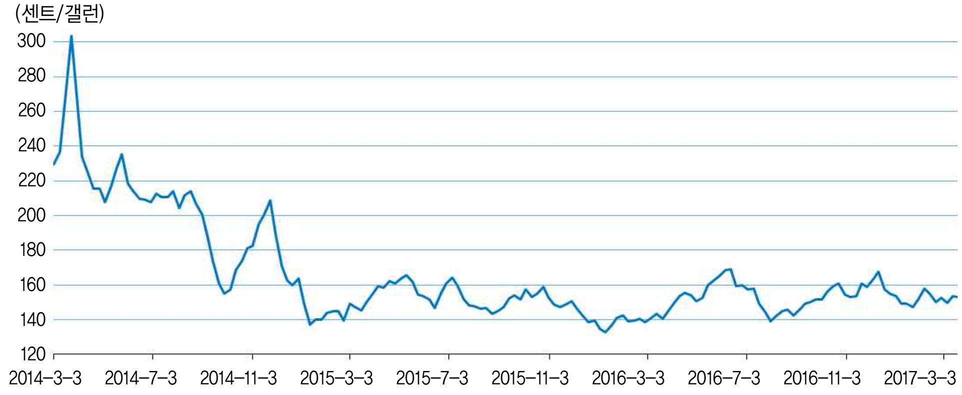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연료 의무혼합비율이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의견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에탄올시장은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중국과의 무역마찰 해소 여부에 따라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2016/11/25	1,012	18.4	9,080
2016/12/30	1,043	18.7	8,465
2017/1/27	1,061	21.9	8,310
2017/2/24	1,034	23.1	8,686
2017/3/3	1,022	22.9	9,268
2017/3/10	1,045	22.8	9,254
2017/3/17	1,044	22.6	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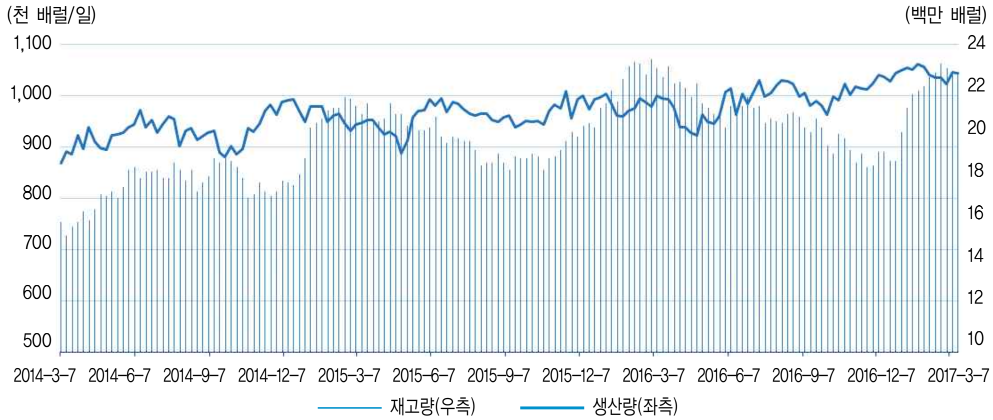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주간 에탄올 생산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부장)*

2016/17 시즌 소맥, 옥수수, 대두 물동량 합계치는 전 시즌 대비 3.7% 증가한 '4.66억 톤'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망치가 전월 대비 계속 상향 조정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 수출량은 '4.7%'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호주의 작황 호조로 인한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르헨티나 또한 자국 통화 약세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미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옥수수 물동량의 경우 전 시즌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남미 지역의 강세가 지속되는 한편 주요 수출국들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에 밀어내기 수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두 물동량은 미국의 수출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반면 브라질의 수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수출 여력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화물선 시황은 대형선 중심의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며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1,000 pt'선을 넘어섰으며 다소 이례적인 1분기 시황 강세가 나타남에 따라 금년 남은 기간 본격적인 시황 상승에 대한 선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연료유가 약세로 인한 선박들의 증속과 해체량 감소는 시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석탄 생산에 대한 정책 방향과 남미 곡물 강세 지속 여부가 금년 시황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 운임은 US Gulf 운임이 '$38.0'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전월 대비 '$4.0', 전년 동기 대비 '$17.50' 가량 상승했으며 대서양 수역을 중심으로 뚜렷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철광석 운임 강세가 점차 석탄과 곡물 운임 상승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철강원료 수입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선물 시장과 기간용선 시장 또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곡물 운임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ydjung@kamcosimc.com, 051-660-5521.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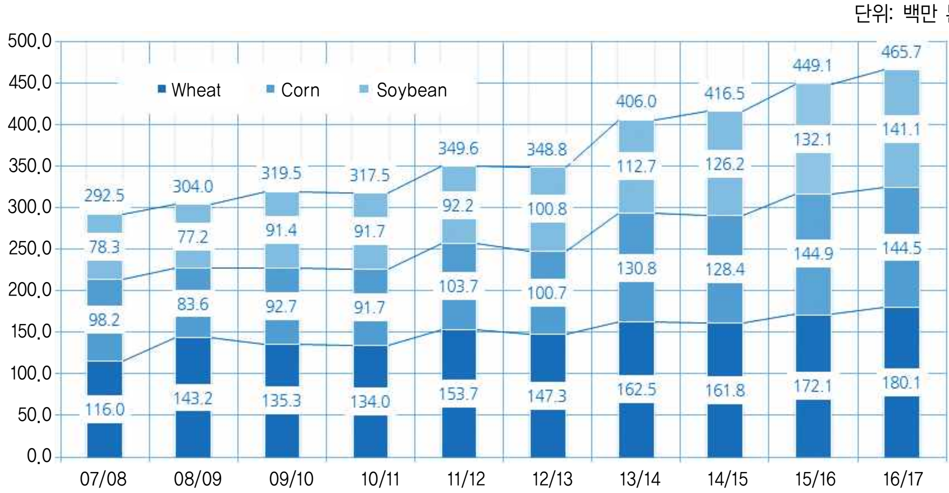
美 농무성(U.S.D.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6/17 시즌 전 세계 소맥, 옥수수, 대두(이하 주요 곡물)물동량 합계치가 전 시즌 대비 3.7% 증가한 '4.6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430만 톤' 가량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곡종 별로 보면 현재 시즌 대두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맥 또한 물동량 증가율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당초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2016/17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제 곡물 위원회(I.G.C)는 2016/17 시즌 주요 곡물 물동량을 전 시즌 대비 '1.9%(850만 톤)' 증가한 '4.44억 톤'으로 전망하였다. 美 농무성 (U.S.D.A)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물동량 감소폭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대두와 소맥 물동량이 각각 '3.2%'와 '2.7%' 증가하며 전체 곡물 물동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림 1. 전 세계 주요 곡물(소맥·옥수수·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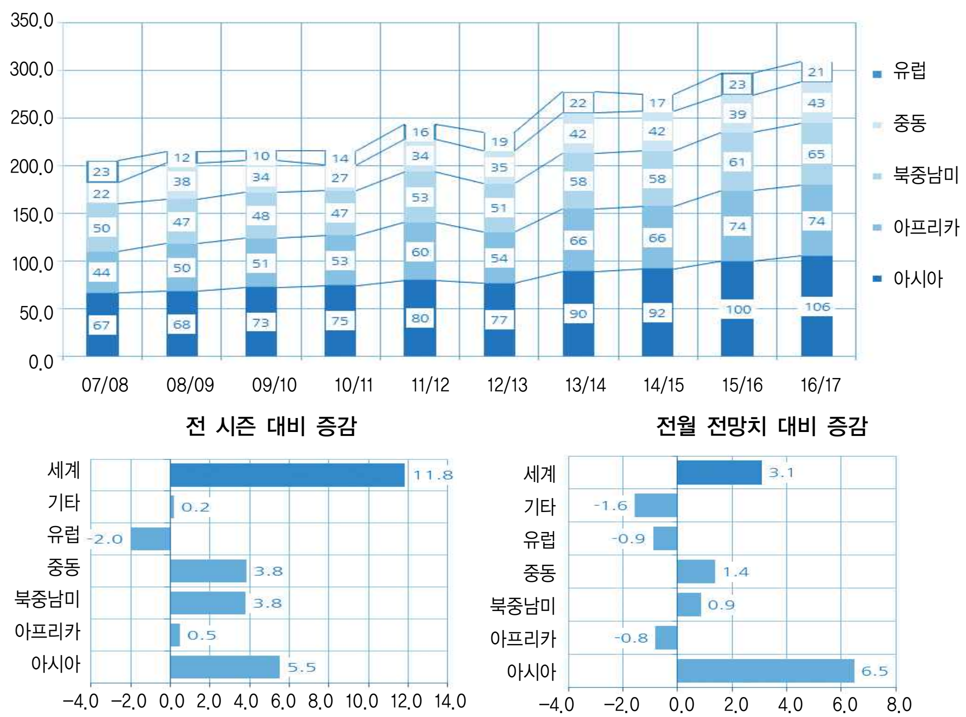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와 전망

2016/17 시즌 전 세계 옥수수와 소맥 수입량 합계치는 전 시즌 대비 3.9%(1,180만 톤) 증가한 '3.19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310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로 아시아, 중동, 북·중·남미 지역의 수입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유럽 지역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Clarkson'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6/17 시즌 곡물 수입량이 '13%'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옥수수가 2/3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곡물 수입 증가의 이면에는 어류 양식 산업의 빠른 성장이 있는 것으로 동 기관은 분석하였는데, 소득 증가로 인해 어류 소비 또한 늘기 때문이며 상대적인 곡물 가격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곡물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주로 호주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인 이점과 더불어 양 국가 간의 FTA로 인한 영향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지역별 곡물(소맥, 옥수수)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소맥(Wheat) 수출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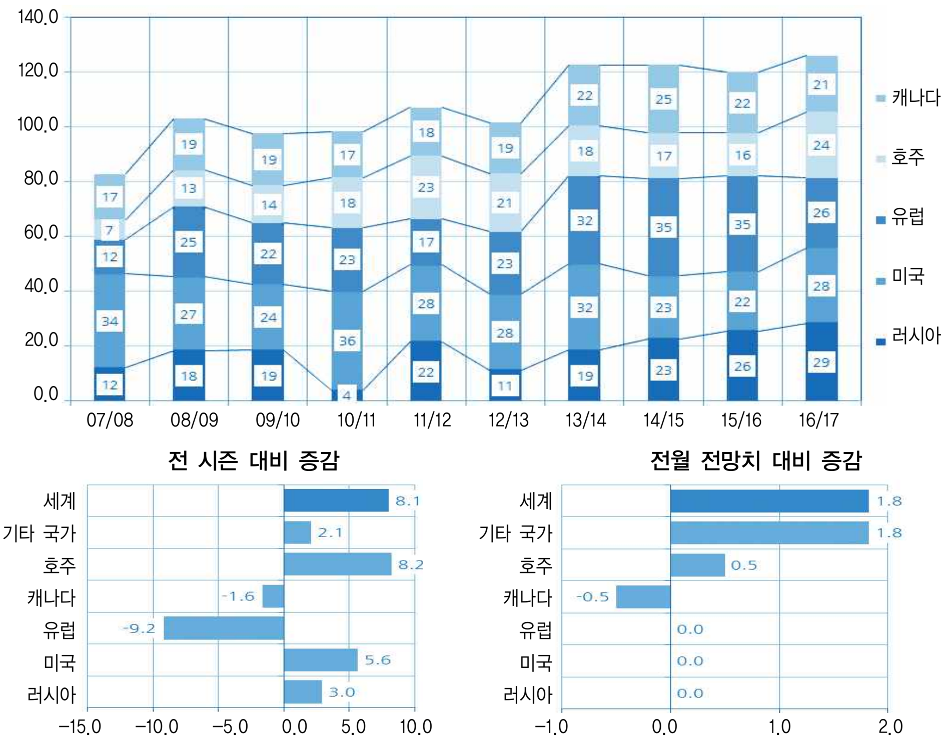
2016/17 시즌 전 세계 소맥 수출량은 전 시즌 대비 4.7%(810만 톤) 증가한 '1.78억 톤'으로 전망되며 전월 전망치 대비 '180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호주의 소맥 작황 호조로 인해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며 현재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52%(8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월 전망치 또한 전월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美 농무성'은 금월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소맥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작황 증가 및 자국 통화인 페소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한 가운데 작년에 실시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소맥 수출 증가는 미국과의 수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동 기관은 전망하였다.

그림 3. 지역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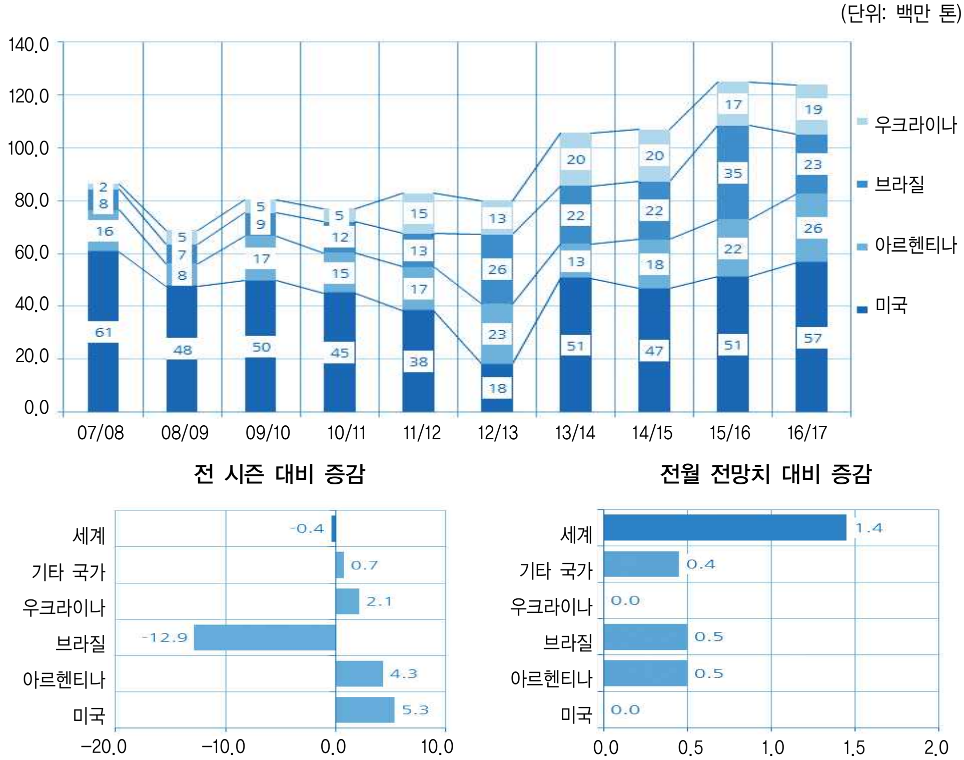
옥수수(Corn)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6/17 시즌 옥수수(Cor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0.3%(30만 톤) 감소한 '1.45억 톤'으로 전망되며 전월 전망치 대비 '140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미국의 수출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출량 전망치가 각각 '50만 톤'씩 상향 조정되는 등 남미 지역의 수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대해 '美 농무성'은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브라질의 경우 사상 두 번째로 작황이 좋은 상황에서 이란과 베트남의 남미산 옥수수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남미 지역들의 옥수수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의 옥수수 재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5%' 가량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단기간에 밀어내기 수출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그림 4. 지역별 옥수수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대두(Soybean) 수출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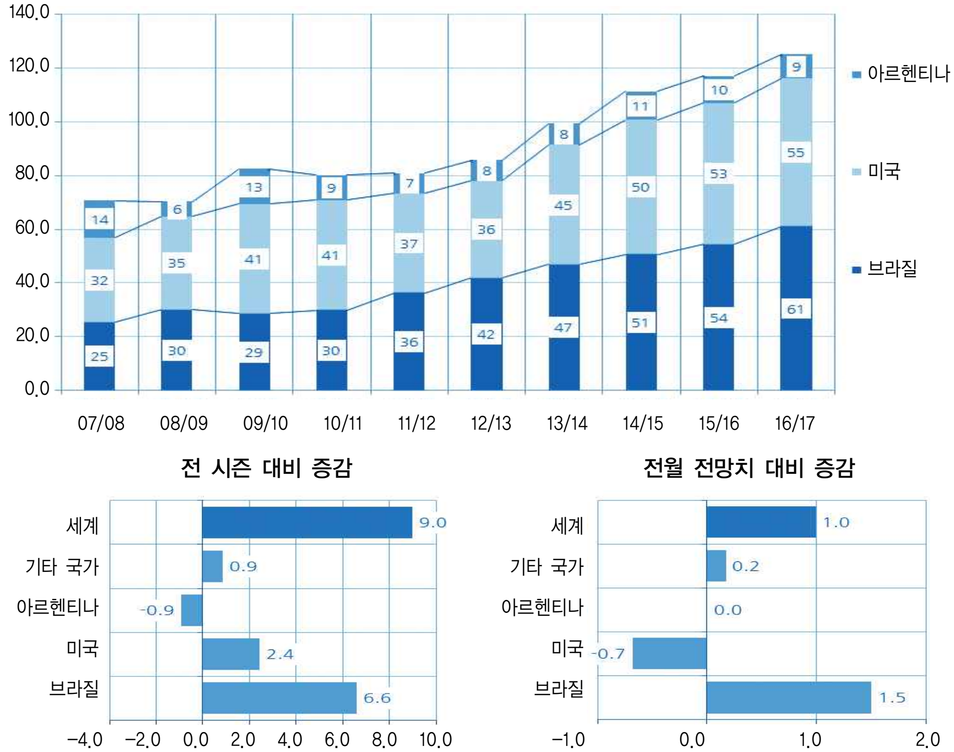
2016/17 시즌 전 세계 대두(Soybea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6.8% 증가한 '1.41억 톤'으로 전월 전망치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미국의 2016/17 시즌 대두 수출 전망치가 '68만 톤'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美 농무성'은 브라질과의 대두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영국의 해운시황 전문 분석 기관인 'SSY'에 따르면 2016/17 시즌 브라질의 대두와 대두박 수출량 전망치가 '7,620만 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2월까지 실적치는 '1,11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브라질의 2016/17 시즌이 금년 9월까지임을 고려하면 금년 3분기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수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곡물 운임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림 5. 지역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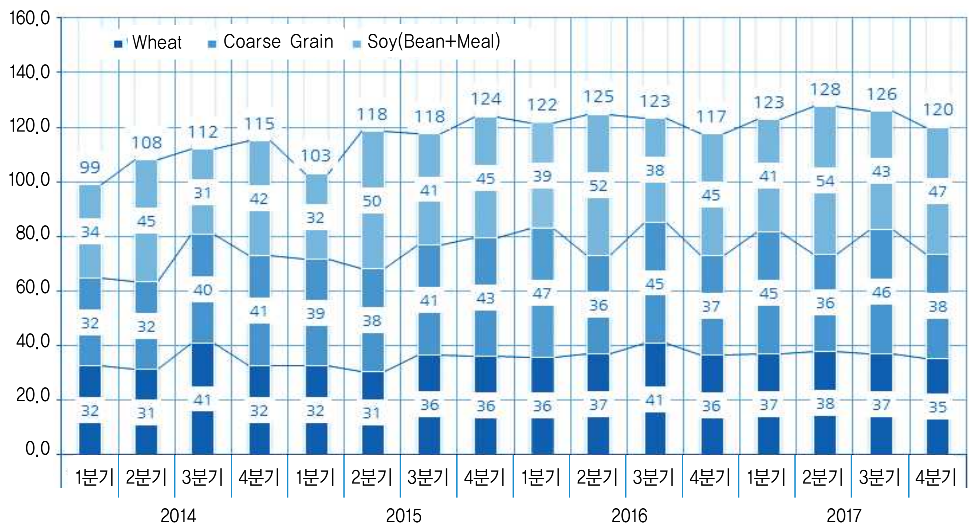
'SSY'가 집계한 분기별 주요 곡물(소맥, 잡곡, 대두, 대두박)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물동량은 약 '4.84억 톤'으로 작년 대비 2%(9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1분기 곡물 물동량은 '1.23억 톤'으로 대두 물동량이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미국의 옥수수 수출 강세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잡곡(Coarse Grain) 물동량이 감소하겠지만 남미 지역의 대두와 대두박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 2분기 대두와 대두박 물동량 전망치는 '5,410만 톤'으로 작년 '5,190만 톤' 대비 '220만 톤' 증가한 동시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분기를 기점으로 곡물 운임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선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후 3분기에는 대두와 대두박 물동량이 감소하는 반면 잡곡 물동량이 증가하며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4분기 곡물 물동량은 분기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동 기관은 전망하였다.

그림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MAR, 2017.

미국 곡물 수출 추이와 전망

금년 2월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수출량 합계치는 약 '975만 톤'으로 전월 약 '910만 톤' 대비 7%(65만 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두 수출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 수출량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년 동기 수출량이 '849만 톤'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5%(127만 톤)으로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옥수수 수출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년 3월에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주간 단위로 '150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소 이례적인 옥수수 중심의 수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2분기에도 지속되고 같은 기간 남미 지역의 본격적인 대두 수출 강세가 나타날 경우 곡물 운임 상승 동력은 배가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금년 초 미국 한파의 영향으로 내륙 철도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포틀랜드 등 미국 서부 지역 곡물 선적항의 체선이 극심해졌다. 이로 인해 선적지가 미국 동부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선박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현재 체선은 완화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림 7. 주간 미국 곡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황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하는 Cape 시황 강세가 지속되며 동 선형 용선료가 '$18,000'선을 넘어선 뒤 최근 들어 일시적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max 와 S'max 시황 또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마침내 '1,000 pt'선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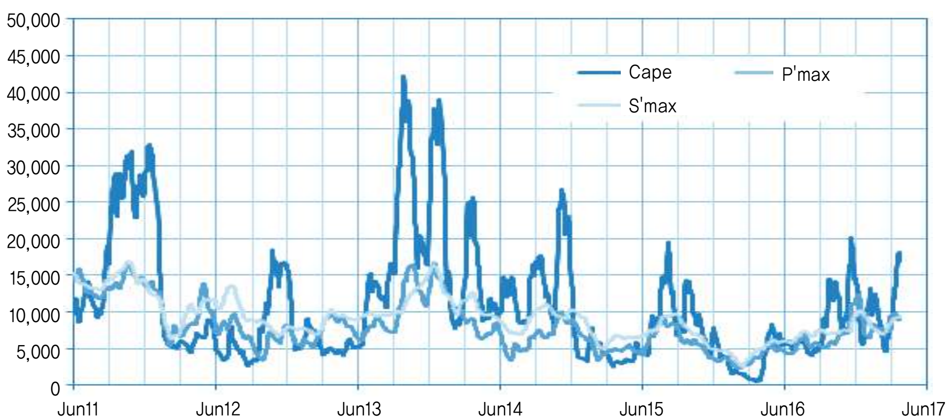
1분기에는 계절적으로 건화물선 시황 약세가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강세에 힘입어 시황 강세가 나타남에 따라 금년 남은 기간 본격적인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황 회복에 따라 선복 해체량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OPEC'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산으로 인해 상승하지 못하면서 연료유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로 운항하던 선박들의 선속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이에 따른 공급 증가 효과로 시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년 건화물선의 수급 상황은 사상 최악의 시황을 기록했던 작년 대비 개선됨에 따라 대형선 중심의 상승이 예상되며 상승 속도와 시기는 중국의 석탄 수입에 대한 정책 방향과 남미 곡물 수출 강세 지속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단위: US$/DAY)



자료: Baltic Exchange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Clarkson'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7일 기준 중국 향 US Gulf 곡물 운임은 톤 당 '$38.0' 수준으로 이는 선을 기록 전월 대비 톤 당 '$4.0' 가량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비교 시 톤 당 '$17.50' 가량 크게 상승하였다. 美 서부 노선(PNW) 운임의 경우 톤 당 '$19.33' 선으로 전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나 전년 동기 대비 톤 당 '$7.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미 곡물 수출 강세의 영향으로 곡물 운임은 대서양 수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된 이후 최근 들어 브라질 헤알화 강세로 인해 동 지역의 곡물 수출이 다소 보류되는 듯 한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연료유가 또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일시적인 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ape 운임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 태평양 수역에서 기존에 Cape 선형으로 운송되던 철광석과 석탄 화물이 Panamax 선형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중국의 철강원료 수입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곡물 운임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기간 용선과 선물 시장에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곡물 운임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9. 노선별 곡물 현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자료: Clarkson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러시아의 밀 산업 동향과 전망

임송수(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 서론

20세기 중반부터 세계시장에 밀을 수출하는 주요국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 수출국으로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서유럽이 이른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출범시켰고, 그 일환으로 역내 밀 생산 및 수출에 보조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에 의한 밀 수출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곧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국들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밀 시장에 새로운 수출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흑해(Black Sea) 지역의 국가들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그들이다. 현재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이다. 이는 흑해 지역의 기후, 정치 또는 기술의 변화가 잠재적으로 세계시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 수출국 곧 선진국들과 다른 공급망이나 생산 및 운송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이한 시사점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은 러시아의 밀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수출에까지 이르는 밀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다른 수출국의 여건과 비교하여 이러한 변화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songsooc@gmail.com

2. 생산과 공급망

2.1. 지형적 특성과 공급망

러시아는 세계 전체 면적의 1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영토를 지닌 국사로 그 토지 면적이 1,638만㎢에 이른다〈표 1 참조〉. 이 가운데 농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이고, 농용지는 7%이다. 2015년 기준으로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인데, 이는 14%를 기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낮으나 카자흐스탄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에서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다.

표 1. 흑해 지역 국가들의 주요 경제 지표 비교: 2015년

지표	단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구	백 만	142	46	17
출산율	천 당	13	11	23
1인당 GDP	2010년 가격기준 달러	11,039	2,824	10,547
소비자물가	%	16	49	7
수출	GDP 대비 %	30	53	29
농식품 수출	GDP 대비 %	5	31	3
연료 수출	GDP 대비 %	63	3	77
농업 부가가치	GDP 대비 %	4.6	14	5
농촌 인구	전체 대비 %	26	30	47
농업고용	전체 대비 %	7	15	24
토지면적	1,000㎢	16,376	579	2,700
경제활동수월도	1=가장 수월 100=가장 제한적	51	83	41
농업면적	토지면적 대비 %	13	71	77
수출비용	$/컨테이너	2,401	1,880	5,285
농용지 면적	토지면적 대비 %	7	56	9
곡물생산량	백만 톤	103	63	17
곡물 단수	톤/ha	2.4	4.4	1.2

자료: 세계은행

러시아는 그 토지자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곡물 생산에 활용되지 않은 비옥한 처녀지를 지니고 있어 미래 생산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은 처녀지에 상업적인 작물을 도입했을 때의 경제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흑해에 접한 지형적 특성아래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힘입어 그 곡물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이른바 MENA(중동과 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하다〈그림 1 참조〉.[1] 러시아의 곡물 생산은 대부분 남부지대에 집중되어 있어 흑해에 위치한 대규모 항구들, 특히 곡물 무역에 적합한 5만 톤 이상의 선박 수용이 용이한 심해 항구들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공급망 비용이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다른 수출 경쟁국들과 견주어 상당히 낮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림 1. 흑해 지역 국가들

자료: 구글 지도

극동지역에 있는 유일한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는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접근하기 유리하다〈그림 2 참조〉. 비록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그 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곡물 주산지가 흑해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여기로부터 약 7,000㎞나 떨어져 있는

1) 예를 들면, MENA에 속한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 연간 1,800만 톤 이상의 밀을 소비하고 있다. 2017년에 이집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각각 30만 톤과 6만 톤의 밀을 톤당 195-199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하였다(Blackseegrain 2017). 톤당 운송비는 10~12달러로 명시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수출 포인트로 활용하기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과 남동아시아를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곡물 수출을 촉진시키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

자료: 구글 지도

러시아는 주로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을 도로 운송을 거쳐 수출로 연결시킨다. 이는 철도보다 도로 운송이 더욱 탄력적이고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운송체계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철도 하부구조와 농가가 보유한 곡물 저장시설들은 1950-70년에 대부분 건설된 것이라 그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도의 경우 소유권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철도 연장은 총 8만 6,000㎞로 EU나 미국의 30~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로망 또한 EU나 미국, 중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13)에 따르면, 러시아의 운송부문 경쟁력은 세계 148개국 가운데 철도의 품질 31위, 도로 136위, 항공 102위, 항구 88위 등으로 아주 미흡한 편이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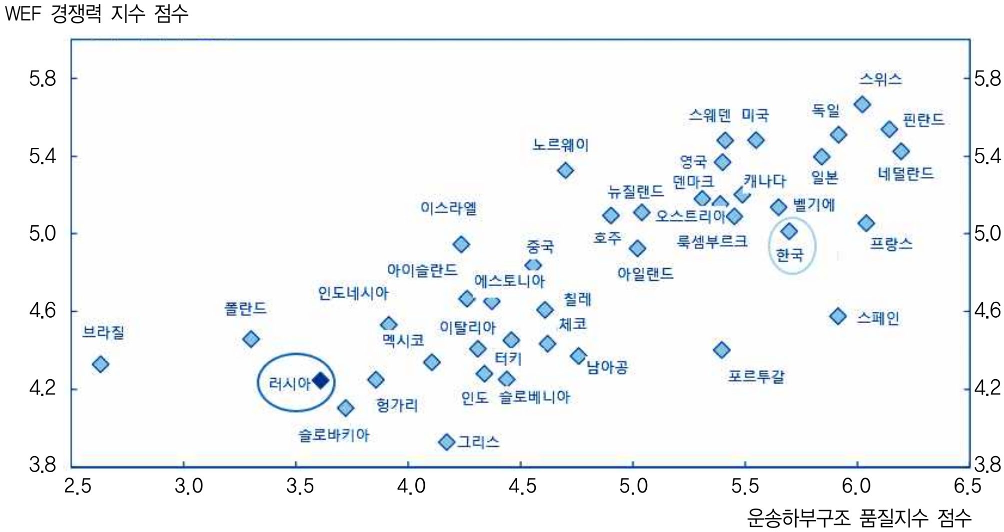
표 2. 러시아와 주요국의 운송 하부구조 비교: 2009년

(단위:㎞)

	EU-27	미국	중국	러시아
도로	5,000	4,400	3,056	776
철도	212	202	86	86
내륙 수로	41	41	117	102

자료: OECD(2015)

그림 3. 세계 운송 하부구조의 경쟁력과 품질



자료: WEF(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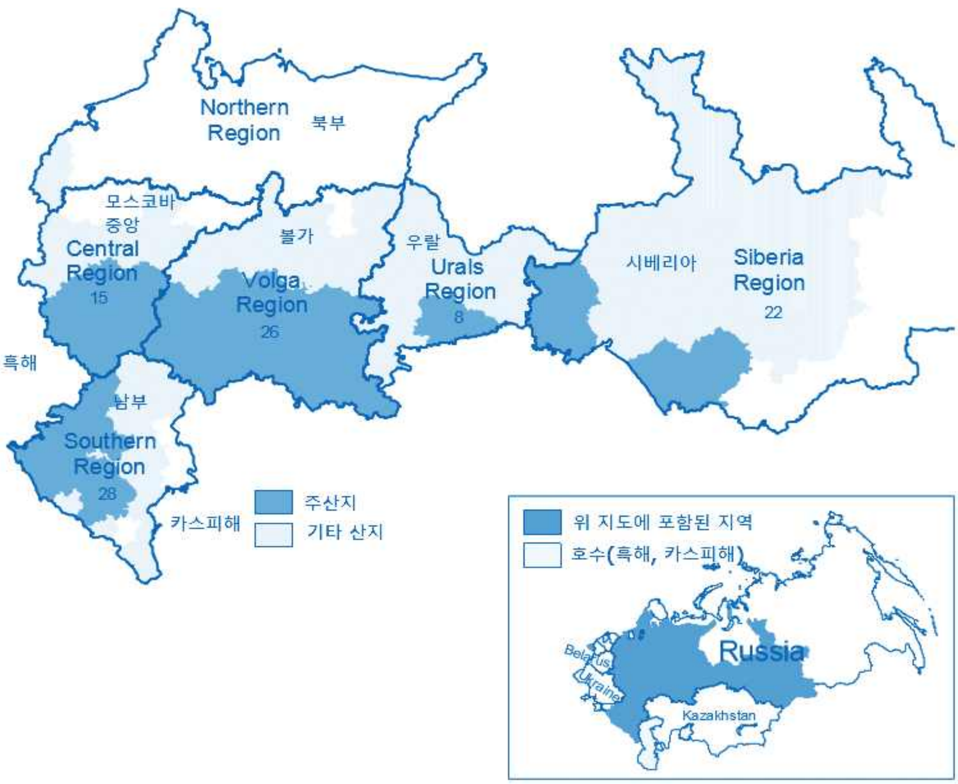
2.2. 재배면적과 생산량

러시아의 농지자원은 실로 광대하다. 1970년대에 농용지 면적은 2억 2,000만 ha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08년에는 2억 ha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토지면적의 약 25% 또는 4억 ha가 농용지로 활용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경작 가능한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7.5%인 1억 2,000만 ha로 추정된다(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이 가운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7,800만 ha가량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4년까지) 약 5,000만 ha의 경작지에 곡물과 유지작물이 재배되었다.

〈그림 4〉는 밀의 생산지역을 주산지와 기타 산지로 구분하여 표기한 것이다. 밀

의 주산지는 국토 서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수도인 모스크바(Moscow)를 포함한 중앙(Central) 주, 볼가(Volga) 주, 남부(Southern) 주, 우랄(Ural) 주, 시베리아(Siberian) 주 서부지역 등이다.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밀은 국가 전체 생산량의 75%가량을 차지한다. 기타 산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밀이 그림에 표시된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 기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Southern) 주로 28%를 기록하고 있으며, 볼가(Volga) 주 26%, 시베리아(Siberia) 주 22%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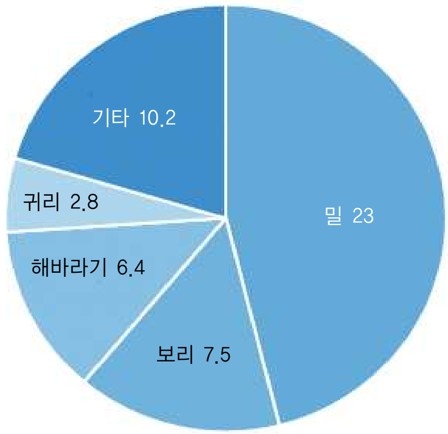
그림 4. 러시아의 밀 주산지 분포



주: 각 지역 안에 표기된 수치는 전체 밀 생산량에 기여하는 해당지역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USDA(2016)

곡물 가운데 그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큰 작물은 밀인데, 평균 46% 또는 2,300만 ha을 기록하였다〈그림 5 참조〉. 그 다음은 보리로 평균 750만 ha, 해바라기 640만 ha, 귀리 280만 ha 순이다.

그림 5. 러시아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배면적(백만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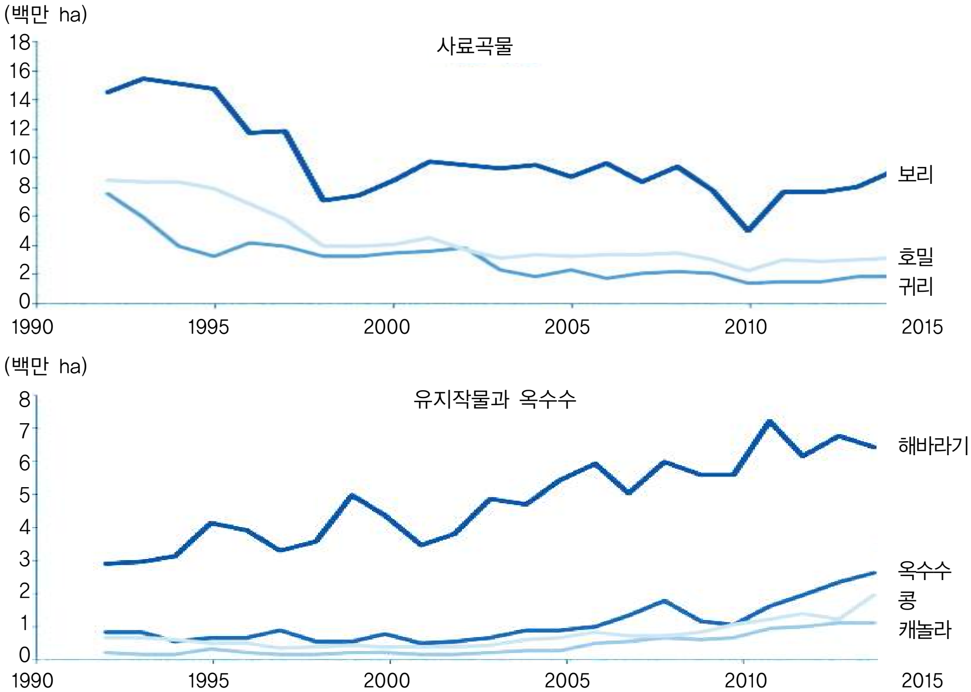


자료: FAO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 초반에 당시 소련연방의 흐루시초프(Khrushchev) 대통령은 이른바 “처녀지(Virgin Lands)”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는 볼가 주, 시베리아 주, 북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곳을 농업생산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60년에 소련의 파종면적은 4,600만 ha나 증가하였는데, 그 90%가량이 처녀지 캠페인에 힘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ikipedia, https://goo.gl/rCaC8k). 그러나 이와 같은 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못하였는데,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가 나타났다. 실제로 1998년에는 곡물과 유지작물 면적이 사상 최저 수준인 4,200만 ha를 기록하였다〈그림 6 참조〉. 이후 재배면적은 연평균 43만 ha가 증가하면서 2014년 현재 5,400만 ha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면적은 1,970만 ha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난 10년 이상 경작되지 않은 농지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재배면적의 변화 추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재배면적의 회복이 단지 묵혔던 농지를 대상으로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서부나 남부 지역의 농지로 재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재배면적의 재조정이 수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축산부문에 공급하기 위해 재배되는 사료곡물(예: 보리, 귀리, 호밀)의 생산량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반면에 수출용인 해바라기의 재배면적이 2배나 증가하였고, 옥수수와 콩이 각각 3배, 캐놀라 재배면적이 5배나 증가한 사실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림 6. 곡물과 유지작물의 재배면적 추이



자료: FAO

재배면적의 확대는 수출항구가 위치한 흑해 인근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표 3〉은 흑해 인근지역에서 밀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다른 사실은 해바라기, 옥수수, 콩, 캐놀라 등의 재배면적 확대가 밀의 재배면적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출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주 정도만 예외로 볼 수 있다.

표 3. 주요 지역별 곡물과 유지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199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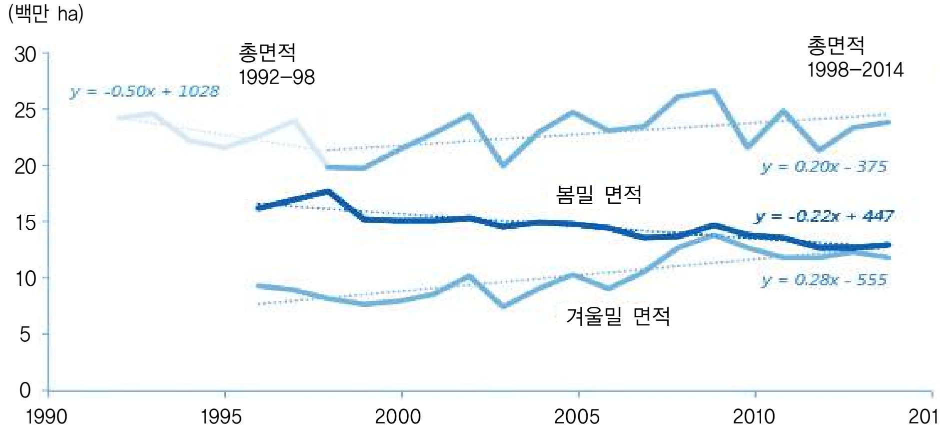
(단위: 천 ha)

지역	밀	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 해바라기, 콩, 캐놀라	전체
중앙(Central)	326	−1,937	2,280	669
남부(Southern)	2,536	−1,076	1,012	2,473
볼가(Volga)	−2,649	−2,150	2,148	−2,652
우랄(Ural)	−122	−304	160	−266
시베리아(Siberian)	−1,112	8	616	−488

자료: AEGIC(2016)

1990년 중반 이후 봄밀(spring wheat)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겨울밀(winter wheat)의 재배면적은 상승하여 2015년 현재 두 형태의 밀 재배면적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7 참조〉. 이는 기후가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부와 서부 지역의 생산이 수출과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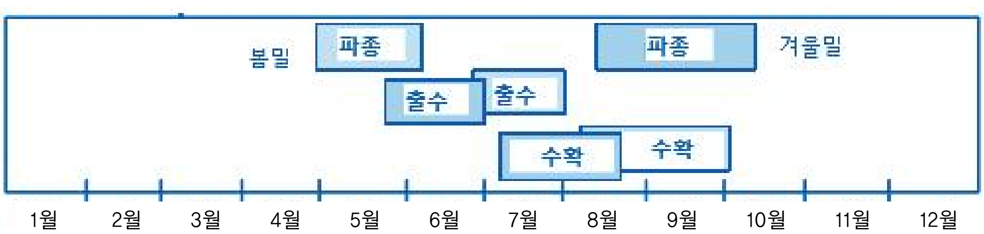
그림 7. 봄밀과 겨울밀의 재배면적 추이



자료: AEGIC(2016)

봄밀은 추운 겨울이 끝난 5월경에 파종하여 9월까지 수확한다〈그림 8 참조〉. 반면에 겨울밀은 여름 끝자락인 8월경에 파종하여 이듬에 여름에 수확하는 재배주기를 가진다.

그림 8. 봄밀과 겨울밀의 재배주기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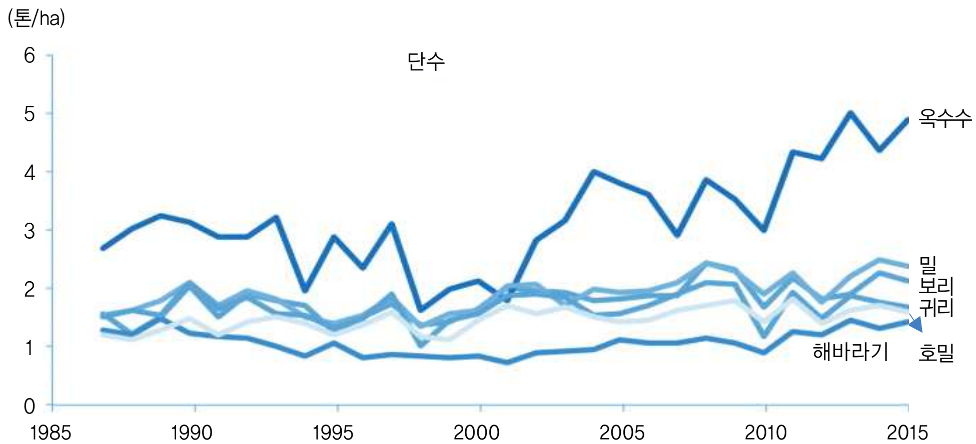
2) 겨울밀은 기후가 온화하고 심한 정도의 서리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쌀쌀한 곳에서 경작된다. 주로 중간 위도에 속한 지역이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반면에 봄밀은 겨울밀보다 추운 북쪽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추운 겨울이 지난 때에 파종하게 된다. 겨울밀과 봄밀 모두 경질(hard) 또는 연질(soft) 밀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경질 밀은 상대적으로 수분의 함량이 낮고 빵의 원료로 적합한 반면에 연질 밀은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케익이나 과자 등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러시아 밀의 생산량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2000-14년에 추세치를 제거한 밀 단수의 변동계수(CV)는 남부와 중부 지역의 경우 약 23%로 추정되었다.[3)4)] 이는 러시아 전체 밀 단수의 변동계수인 1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단수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불규칙적인 기후여건이다.

〈그림 9〉는 주요 곡물과 유지작물의 단수와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다. 밀의 단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ha당 2톤 안팎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옥수수의 단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ha당 2톤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5년 현재 ha당 5톤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밀과 마찬가지로 보리나 해바라기, 귀리, 호밀의 단수는 ha당 2톤 이하로 낮은 편이다.

밀 생산량은 1998년에 최저 2,700만 톤에서 2016년에 기록적인 7,330만 톤으로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기록적인 생산량은 서방국가들에 의한 러시아 경제제재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예산 압박과 감축 와중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소련연방 붕괴 이후에 가장 높은 생산량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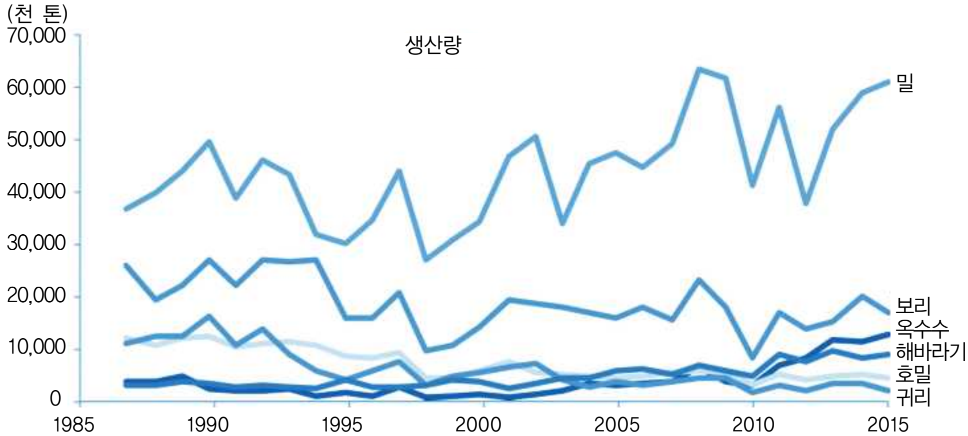
그림 9. 곡물과 유지작물의 단수 및 생산량 추이



3)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은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변동 계수의 값이 클수록 상대적인 차이가 큼을 나타낸다.

4) 러시아 밀의 단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 폭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의 문제로만 한정질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주요 밀 수출국인 호주의 변동계수는 25%로 러시아의 변동 폭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AEGIC 2016).

(계속)



자료: AEGIC(2016)

<표 4>는 1990-2013년의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수출량 관련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5)]

표 4. 밀 공급 관련 통계

연도	재배면적 (백만 ha)	생산량 (백만 톤)	수출량 (백만 톤)	수출액 (십억 달러)
1990	24.2	49.6		
1991	23.2	38.9		
1992	24.3	46.2		
1993	24.7	43.5		
1994	22.2	32.1		
1995	23.9	30.1		
1996	25.7	34.8		
1997	26.1	44.2		
1998	26.1	27.0		
1999	23.0	31.0		
2000	23.2	34.5		
2001	23.8	47.0	1.7	0.1
2002	25.7	50.6	10.6	0.8
2003	22.2	34.1	7.8	0.8
2004	24.0	45.4	4.9	0.5
2005	25.3	47.6	10.4	1.1
2006	23.6	44.9	9.7	1.4

5) <그림 9>의 그림에 일부 관련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표 4>는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제시하였다.

(계속)

연도	재배면적 (백만 ha)	생산량 (백만 톤)	수출량 (백만 톤)	수출액 (십억 달러)
2007	24.4	49.4	14.5	3.6
2008	26.6	63.8	11.8	2.9
2009	27.7	61.7	16.9	2.8
2010	26.6	41.5	11.9	2.1
2011	25.6	56.2	15.2	3.7
2012	24.7	37.7	16.9	4.7
2013	25.1	52.1	14.2	3.6
2014		59.7		
2015		61.8		
2016		73.3		

자료: Expert Analytical Center of Agribusiness (http://nilsky-nikolay.livejournal.com/793965.html)

2.3. 공급망과 비용

〈그림 10〉은 곡물의 수확에서 수출에 이르는 공급망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다음은 공급망아래 관찰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이다.

① 수확
- 약 76,000농가가 연간 1억 톤 이상의 곡물을 생산한다.
- 전체 곡물생산 농가의 약 75%가 대농이다.

② 농가저장
- 농장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총 5,100만 톤 규모이다.
- 이 규모는 수확량의 절반 수준이다.

③ 도로운송
- 농가로부터 내륙 엘리베이터까지 평균 반출 거리는 30-60km에 이른다.
- 운반 트럭의 용량은 보통 25-35톤이다.

④ 내륙 엘리베이터
- 약 1,200개의 엘리베이터가 총 6,300만 톤의 저장용량을 제공한다.
- 이 용량에는 가공공장이 제공하는 물량도 포함된다.

⑤ 항구까지 운송
- 화차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국영철도회사가 100-1,100km의 운송을 맡고 있다.

• 기차운송 25%, 도로운송 70%, 바지선 5% 등으로 구성된다.
• 화차의 평균 용량은 70톤이다.

⑥ 항구 터미널
• 총 9개 항구에 23개 곡물 터미널이 있다.
• 이는 크림반도(Crimea), 발트해(Baltic coast), 블라디보스토크, 카스피해 등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터미널을 제외한 수치이다〈그림 11 참조〉.

⑦ 수출
• 연간 약 2,900만 톤의 곡물과 유지작물이 수출된다.
• 밀의 수출규모는 평균 2,000만 톤이다.
• 수출물량의 4%가량은 기차나 도로로 운송되고, 그 나머지 96%는 배로 운송된다.

그림 10. 곡물의 공급망

자료: AEGIC(2016)

그림 11. 흑해(Black Sea)의 수출항구들

자료: AEGIC(2016)

〈표 5〉은 각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밀의 총 생산비용은 톤당 91.6달러이고, 운송과 저장 및 부과금 등을 포함한 총 공급망 비용은 42.2달러이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과 공급망 비용이 전체 비용을 구성하는 비중은 약 7대 3이라 할 수 있다. 공급망 비용과 생산비용의 합은 톤당 134달러인데, 이는 경쟁 수출국인 호주의 비용보다 절반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곧 생산 및 공급망 측면에서 러시아가 호주 등 다른 수출국에 견주어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곡물(밀)의 생산 및 공급망 비용

단계		비용(달러/톤)	비중(%)
짐차에서 저장시설까지		2.6	6
저장		3.9	9
내륙에서 처리		7.0	17
항구까지 운송		11.7	28
항구에서 처리		16.8	40
운송(shipping)		0.14	0
부과금(levies)		0.07	0
곡물 공급망 비용 소계($/톤)		42.2	32
밀 변동비용 ($/ha)	종자	32.5	-
	비료	145.2	-
	농약	52.9	-
	농기구 및 관리	38.6	-
	인건비	12.8	-
	소계	282.1	-
밀의 토지($/ha)		3.8	-
밀의 기타 고정비용($/ha)		12.1	-
밀 생산비용 소계	$/ha	298.0	-
	$/톤	91.6	68
총 비용		133.8	100

주: 자료의 출처가 2013-16년으로 다양함.
자료: AEGIC(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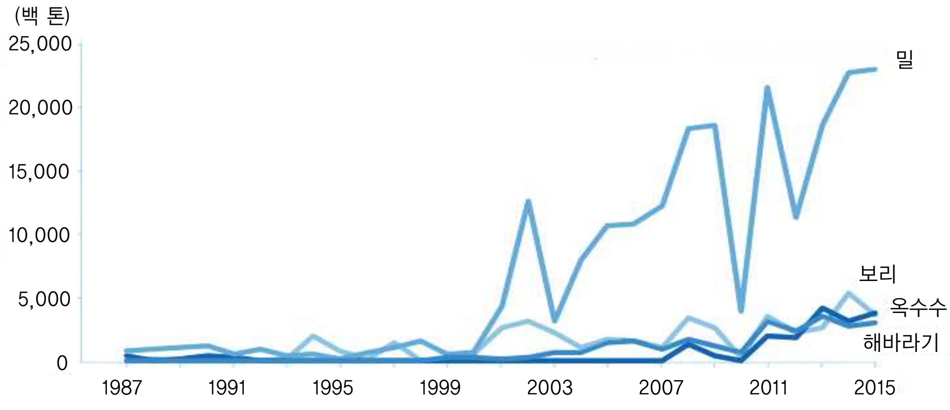
3. 수출

3.1. 수출 동향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는 곡물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수출작물은 밀,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보리 등이다〈그림 12 참조〉.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는 밀과 보리 및 해바라기 기름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배경에는 식량안보 확충과 식량 자급률 증진이라는 정책 측면의 노력이 있었다. 1990년대에 축산부문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농업정책 전환이 2000년대에 추진되었다. 곧 사료곡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제가 정책의 초점이 된 것이다.

이처럼 당초에는 곡물 수출 자체보단 자급률 제고와 사료곡물 공급을 통한 축산부문의 재건이 목표였지만, 곡물수출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동시에 거두게 된 것이다. 특히 2014년 이후에 국제유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에너지 수출에 따른 외환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곡물 수출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12. 주요 곡물과 유지작물의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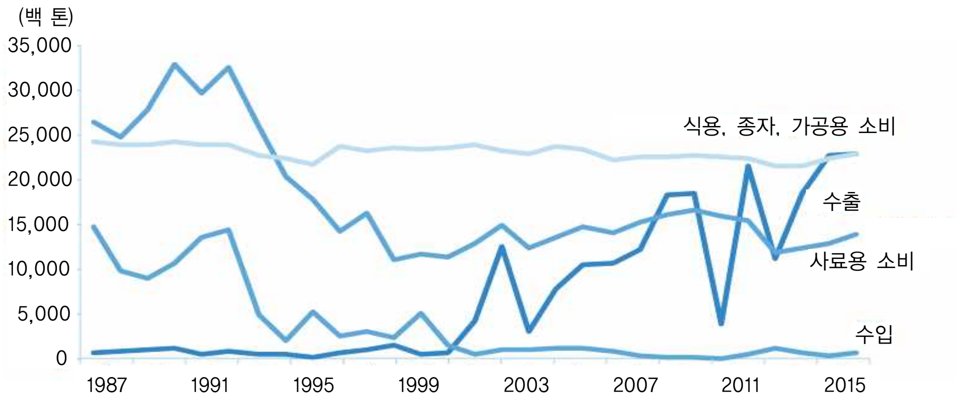


자료: AEGIC(2016)

밀의 경우 러시아의 수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까지 러시아는 밀 순수입국이었다. 이처럼 수출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① 앞서 지적한 대로 1990년대에 축산부문 위축으로 인한 사료곡물로서 밀 국내 사용량의 감소,

② 식량 원료로서 밀 국내 소비량의 정체, ③ 국내 생산여건의 개선, ④ 수출에 관한 관심과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199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한 사료용 밀 소비량은 오늘날까지 연간 1,500만 톤 안팎의 소비에 머물러 있으며, 식용, 종자용 및 가공용 소비량 또한 연간 2,300만 톤 수준으로 안정 내지 정체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 밀 수출입과 소비량 추이



자료: AEGIC(2016)

〈표 6〉은 러시아의 주요 생산지역별 연평균 밀 생산량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1987-2015년 기준으로 밀의 최대 생산지역은 남부(Southern) 주로 연간 평균 2,404만 톤을 생산하고 전체 밀 수출의 84%를 담당하였다. 그 다음은 중앙(Central) 주로 연평균 1,193만 톤 생산에 수출 기여도는 10%이다. 볼가(Volga) 주와 우랄(Ural) 주 및 시베리아(Siberia) 주의 수출 기여도는 모두 합해 7%를 기록하였다.

표 6. 주요 밀 생산지역별 수출 비중: 1987-2015년 평균

지역	생산량 (백만 톤)	수출비중 (%)
중앙(Central)	11.93	10
남부(Southern)	24.04	84
볼가(Volga)	9.22	3
우랄(Ural)	2.96	1
시베리아(Siberian)	8.91	2

자료: AEGIC(2016)

3.2. 주요 수출국과 비교

〈표 7〉은 세계의 주요 밀 수출국들의 수출물량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2016/17년 전망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2,85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는 기록적인 수출량을 나타낸 201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7. 주요 수출국의 밀 수출량 비교

(단위: 백만 톤)

수출국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러시아	18.4	18.6	38.6	21.6	11.3	18.6	22.8	25.5	28.5
우크라이나	13.0	9.3	11.6	5.4	7.2	9.8	11.3	17.4	16.5
카자흐스탄	5.7	7.9	6.2	11.8	6.3	8.1	5.5	7.6	7.5
호주	14.8	14.8	18.7	24.7	18.7	18.6	16.6	16.1	25.5
아르헨티나	6.8	5.1	9.5	12.9	3.6	2.3	5.3	9.6	8.9
캐나다	18.8	19.0	16.6	17.4	19.0	23.3	24.1	22.1	20.5
EU-27	25.3	22.1	22.9	16.7	22.7	32.0	35.4	34.7	25.5
미국	27.6	23.9	35.1	28.6	27.5	32.0	23.3	21.1	27.9
세계							164.4	172.8	181.0

주: 2016/17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2017)

2016/17년에 러시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6%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인다〈표 8 참조〉. 최근에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최대 수출국인 EU의 점유율은 하락하면서 이와 같이 역전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개년 간 평균 시장점유율은 EU가 19%로 선두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가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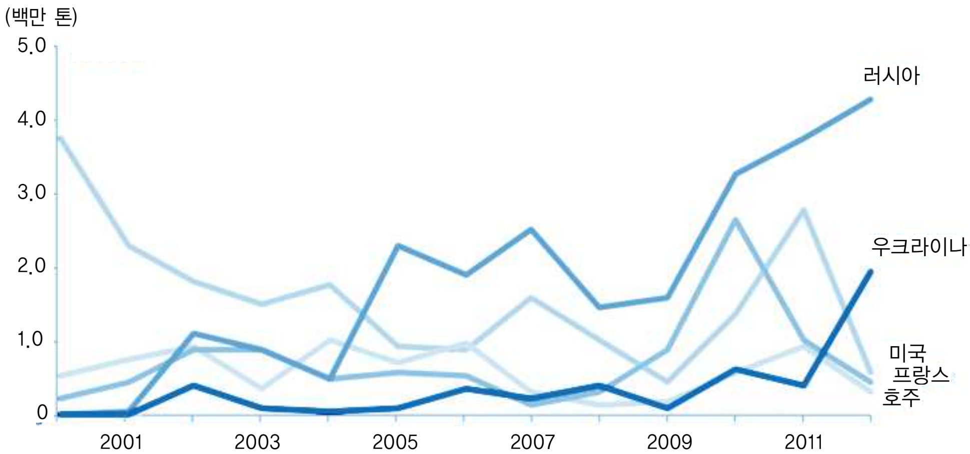
표 8. 주요 밀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동향: 2014/15-2016/17년 평균

	2014/15	2015/16	2016/17	평균
러시아	14%	15%	16%	15%
우크라이나	7%	10%	9%	9%
카자흐스탄	3%	4%	4%	4%
호주	10%	9%	14%	11%
아르헨티나	3%	6%	5%	5%
캐나다	15%	13%	11%	13%
EU-27	22%	20%	14%	19%
미국	14%	12%	15%	14%
세계	100%	100%	100%	100%

주: 2016/17년은 전망치에 근거하여 산출함.
자료: USDA(2017)

러시아의 밀은 주로 MENA 지역으로 수출된다. 지난 5개년(2015년까지) 동안 러시아 밀 수출량의 40%가량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유입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하였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밀 수출입과 소비량 추이



자료: AEGIC(2016)

터키 또한 밀 제분산업의 수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이 싼 러시아산 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산 밀은 터키 전체 밀 수입량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터키 시장은 러시아 밀 수출의 20%에 해당한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수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터키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밀가루 제분산업에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세계를 대상으로 한 터키의 수출망을 통해 잠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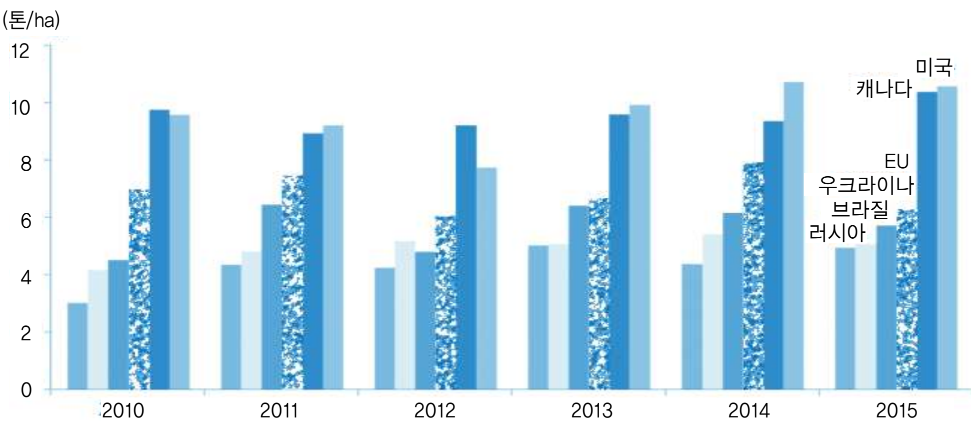
4. 과제와 전망

구 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상당 수준의 곡물 경작면적을 상실하였다. 이는 곡물생산에서 생산성이 낮거나 생산비용 또는 공급망 비용 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지가 생산에 다시 투입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계가격이

형성되어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고, 2014년 말부터 시작된 루블화(rouble)의 평가절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시설 및 항구 등 비용 효율적인 공급망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투자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무역정책, 관료화된 행정체제, 부패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나타난 러시아 곡물부문의 약진은 약화된 루블화, 사료곡물 수요의 증대, 수출수요의 확대 등에 따라 그 경제적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농기업들(agroholdings)이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단수와 그 안전성을 높인 것도 주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러시아의 곡물 생산성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옥수수 단수는 다른 주요 곡물 수출국과 견주어 열악한 수준이다〈그림 15〉.

그림 15. 주요국의 옥수수 단수 비교



자료: AEGIC(2016)

또한 러시아 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류 소비의 증대에 기댄 사료곡물 수요의 확대 또는 유제품 소비의 증가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사료수요는 주로 옥수수, 콩, 보리 등 밀 이외의 작물로 충당될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MENA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등 기존 시장의 수출수요가 증대되고,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로코, 알제리 등의 잠재적 수출시장이 개척된다면 러시아의 밀 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생산 수익성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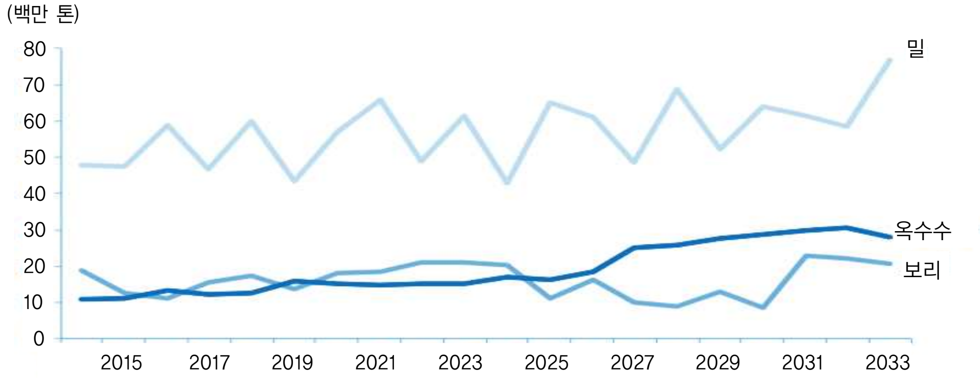
이밖에도 지적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정책 동향이다. 2012년에 러시아는 이른바 "바이오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승인하였다(USDA 2012). 2020년까지 약 390억 달러(약 44조원)를 투입하는 이 계획에는 현재 그 개발 정도가 현격히 저조한 바이오연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곡물에 대한 수요 창출에 잠재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후변화 요인이다. 기후변화가 러시아의 밀 생산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양(+)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 온도가 상승하고 안정된다면 생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리가 발생하지 않는 일수가 5-15일이 늘어나면 단수가 증진되고, 수확하기 용이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는 러시아의 농업생산 가능지역을 북쪽으로 600km 정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농지 및 농장개발에는 저장과 운송 하부구조 등의 확충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CO2)의 증가가 단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반면에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가뭄은 우려할 사항이다. 특히 수출용 밀을 주로 생산하는 남부(Southern) 주에서 가뭄빈도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전망대로라면 가뭄빈도 상승이 가져올 생산 감소의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수로에 유출이 나타나 바지선을 통한 밀 운송에도 음(-)의 간접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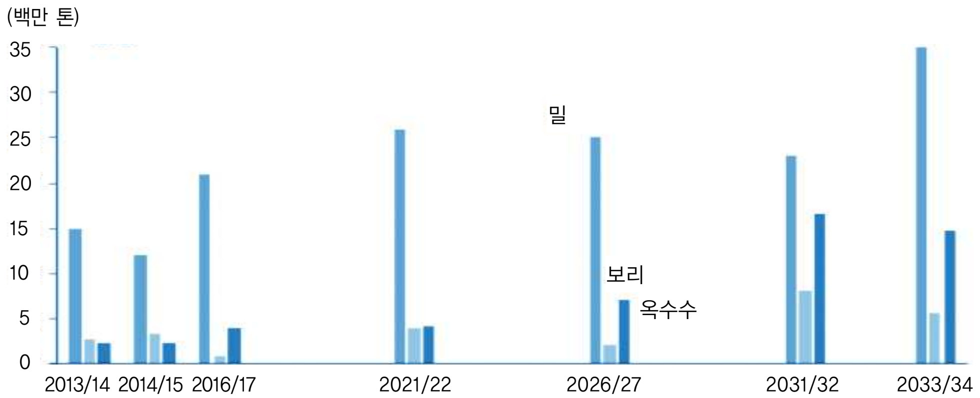
〈그림 16〉과 〈그림 17〉은 각각 2033년까지 러시아의 밀과 보리 및 옥수수의 생산량과 수출량에 관한 전망이다. 이 전망치에 따르면 2033년의 밀 생산량은 현재 수준 대비 50%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곧 2033년까지 연간 밀 수출량은 3,300만 톤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일부는 이 전망치가 러시아의 운송용량 상한을 초과는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철도와 도로 등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수출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림 16. 주요 곡물의 생산 전망



자료: AEGIC(2016)

그림 17. 주요 곡물의 수출 전망



자료: AEGIC(2016)

끝으로, 러시아가 직면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우선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간 생산량의 변동 폭을 줄이면서 생산량 증대
- 단수 향상과, 종자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윤작체제 확충
- 운송비용의 절감과 저장 및 운송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강화
- 단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시장의 가격 변동성 완화

참고문헌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er[AEGIC]. 2016. Russia's Wheat Industry: Implications for Australia. (https://goo.gl/WN5mr4)

Blackseagrain. 2017. "Egypt to Import Wheat from Russia, Ukraine." Feb. 24, 2017. (https://goo.gl/XC2LKN)

OECD. 2015. Improv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n Russia. ECO/WKP(2015)11, Paris. (https://goo.gl/qBwxUr)

World Economic Forum[WEF]. 201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13-14. Geneva. (https://goo.gl/Mwbd6m)

USDA. 2017.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 563. (https://goo.gl/Aj8166)

______. 2016. Russian Federation Grain and Feed Annual 2016. GAIN Report No. RS1617. (https://goo.gl/AYOimj)

______. 2012. Program on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Russia through 2020. GAIN Report No. RS1239. (https://goo.gl/krsGFs)

미국농업부(USDA)의 곡물수급 장기 전망 2017~2026년[1)]

이병훈(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1. 곡물수급 장기 전망 개요

미국농업부(USDA)의 농업전망 2026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보고서는 2026년까지 10개년 농업부문 장기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급, 농산물 무역, 농가소득, 농가경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망의 기본 가정은 거시경제 여건, 기후, 정책, 국제환경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되 대내외적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특히 전망기간 동안 2014년 농업법(Farm Act)의 정책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12월 기준 전망모형 결과 및 거시경제 지표를 준용하였으며, 단기 전망은 2016년 11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다.

전망 초반기에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곡물가격을 더욱 하락시켜 결국 식부면적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료비용 절감은 축산부문 확대에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반기의 경우 바이오연료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농산물의 가격 상승, 교역 및 소비 증가가 함께 맞물려 농업부문 성장도 상당 수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의 둔화와 미 달러화 강세는 미국 농산물 수출 증가에 일정부분 제약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국제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곡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규모는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

1) 본 내용은 미국농업부(USDA)의 정부합동농업전망위원회(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보고서 內 곡물부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발췌한 것임.

* (bhleeok@kang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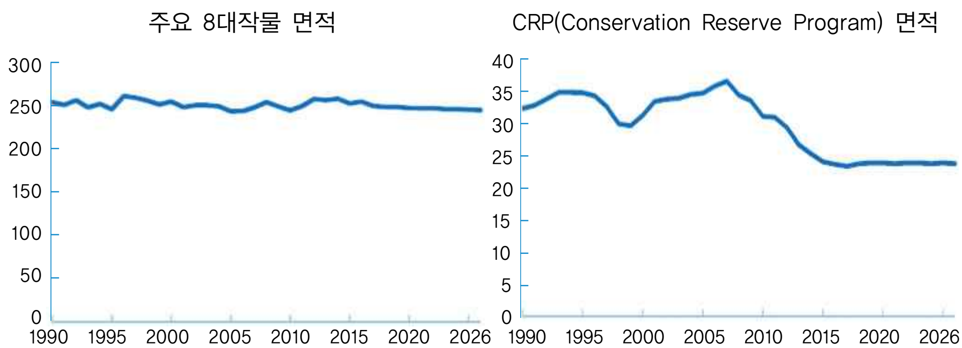
2. 면적 전망

유통년도 2016/17년 기간 동안 식품 및 사료곡물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7/18년부터는 가격 상승으로 반전하여 2026년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예상되는 가격 수준은 지난 10년간 나타난 가격 보다 낮게 유지되어 면적 및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14년 기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8대 주요작물(옥수수, 대두, 밀, 면화, 수수, 쌀, 보리, 귀리)의 식부면적은 평균 2억 4천5백만 에이커에서 2015년 2억 5천2백만 에이커로 감소하다 2016년 소폭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26년까지 약 245백만 에이커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8대 주요작물 및 농지보전계획(CRP) 면적 추이 전망(1990년~ 2026년)

(단위: 백만 에이커)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이 같은 곡물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질가격은 2007년 이후 10년 동안 평균가격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경제성장이 곡물수요 확대로 이어진 것에 기인한다. 식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의 기존 생산 수준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농지보전계획(CRP)은 2014년 농업법을 근거로 최대 등록 면적을 2천4백만 에이커로 한정하여 전망되고 있다.

표 1. 미국의 8대 주요작물 및 농지보전계획(CRP) 면적 추이 전망

(단위: 백만 에이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요 8대 면적 (A)	251.9	254.1	248.9	248	247.8	246.7	246.5	246.5	245.4	245.3	244.7	244.2
Corn	88	94.5	90	89.5	89.5	88.5	88	88	87	87	86.5	86
Sorghum	8.5	6.8	6.3	6.3	6.3	6.2	6	5.9	5.8	5.7	5.6	5.6
Barley	3.6	3.1	2.9	2.8	2.8	2.8	2.8	2.8	2.8	2.8	2.8	2.8
Oats	3.1	2.8	2.5	2.4	2.4	2.4	2.4	2.4	2.4	2.4	2.4	2.4
Wheat	55	50.2	48.5	49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Rice	2.6	3.2	2.7	2.8	2.8	2.8	2.8	2.9	2.9	2.9	2.9	2.9
Cotton	8.4	10	10.5	10.3	10	10	10	10	10	10	10	10
Soybeans	82.7	83.7	85.5	85	84.5	84.5	85	85	85	85	85	85
농지보전계획 (CRP) 면적(B)	24.2	23.8	23.5	23.9	24	24	23.9	24	24	23.9	24.0	23.9
총합계 (A) + (B)	276.1	277.9	272.4	271.9	271.7	270.7	270.5	270.4	269.3	269.2	268.7	268.2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3. 품목별 수급전망

3.1.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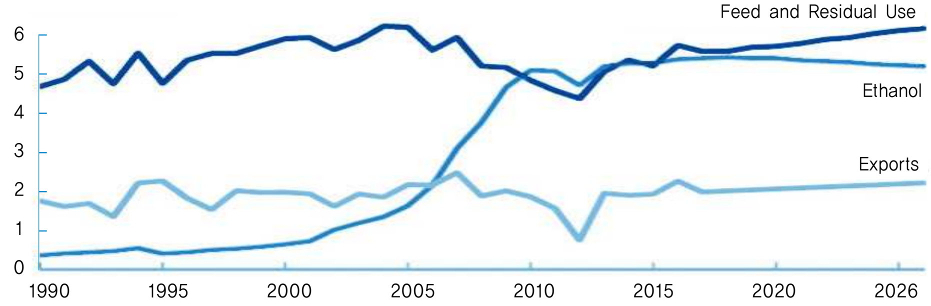
미국산 옥수수 수요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는 생산 증대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까지 충족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식부면적은 대규모 재고누적에 따른 실질가격 및 수익률 하락으로 감소하고, 이후 전망기간 동안 재고는 서서히 감소하겠지만 2015년 수준 보다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에탄올 생산은 거의 대부분 옥수수를 원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옥수수 에탄올 생산은 2018/19년부터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 매년 옥수수 50억 부셸 이상 에탄올 생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10년 내 총 옥수수 수요의 약 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옥수수 생산은 2017년에 감소한 이후 전망기간 내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낮아진 가격의 옥수수는 사료용 및 기타용으로 적극 활용되어 많은 육류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2. 미국산 옥수수: 사료용 및 기타용, 에탄올 원료, 수출용

(단위: 십억 부셸)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한편, 식용 및 산업용(에탄올 생산 제외) 옥수수 수요는 전망 전반기 내내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콘시럽 용 옥수수 수요는 미국 내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중심 수출이 증가하여 큰 변화 없이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전망기간동안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소득증가는 육류소비를 증가시켜 사료곡물용 미국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 달러화 강세는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주요 옥수수 수출국들과 경쟁이 심화되어 결국 세계 옥수수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 미국의 옥수수 장기 수급전망

(단위: 백만 에이커)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식부면적	88	94.5	90	89.5	89.5	88.5	88	88	87	87	86.5	86
재배면적	80.7	86.8	82.3	81.8	81.8	80.8	80.3	80.3	79.3	79.3	78.8	78.3
단수 (부셸/에이커)	168.4	175.3	170.8	172.8	174.8	176.8	178.8	180.8	182.8	184.8	186.8	188.8
기초재고	1,731	1,738	2,403	2,298	2,213	2,193	2,104	2,033	2,023	1,933	1,923	1,896
생산	13,601	15,226	14,060	14,135	14,300	14,285	14,360	14,520	14,495	14,655	14,719	14,784
수입	67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총공급	15,400	17,013	16,513	16,483	16,563	16,528	16,514	16,603	16,568	16,638	16,692	16,730
사료 및 기타	5,130	5,650	5,500	5,500	5,600	5,625	5,700	5,800	5,850	5,950	6,025	6,075
식량, 종자,	6,635	6,735	6,765	6,795	6,770	6,775	6,730	6,705	6,685	6,640	6,620	6,595

(계속)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산업, 에탄올	5,206	5,300	5,325	5,350	5,325	5,325	5,275	5,250	5,225	5,175	5,150	5,125
국내수요	11,764	12,385	12,265	12,295	12,370	12,400	12,430	12,505	12,535	12,590	12,645	12,670
수출	1,898	2,225	1,950	1,975	2,000	2,025	2,050	2,075	2,100	2,125	2,150	2,175
총수요	13,662	14,610	14,215	14,270	14,370	14,425	14,480	14,580	14,635	14,715	14,795	14,845
기말재고	1,738	2,403	2,298	2,213	2,193	2,104	2,033	2,023	1,933	1,923	1,896	1,885
재고율(%)	12.7	16.5	16.2	15.5	15.3	14.6	14	13.9	13.2	13.1	12.8	12.7
가격($/부셸)	3.61	3.3	3.3	3.35	3.35	3.45	3.5	3.55	3.6	3.65	3.65	3.7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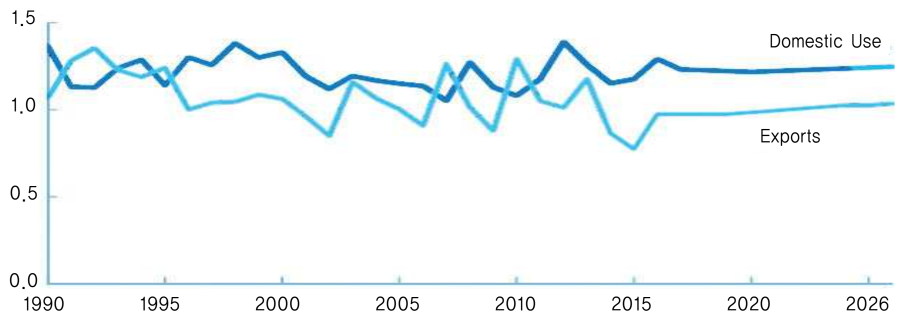
3.2. 밀

미국 생산자들은 향후 10년간 밀 식부면적을 감축하여 총 식부면적은 약 5천만 에이커 이하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 내 수요도 약 12억 부셸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용에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고 사료 및 종자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밀 수출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계 밀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15%에서 14%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출 규모는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밀의 식용 소비는 천천히 증가할 것이나 미국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밀 소비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과 중장기 밀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

그림 3. 미국산 밀: 내수 및 수출

(단위: 십억 부셸)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사료 및 기타용 소비는 2016/17년에 소폭 증가하다 2017/18년에는 공급이 확대되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옥수수 재고는 옥수수 가격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사료용 밀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밀 수입은 전망초기에는 평년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 비교적 낮은 수송비용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캐나다산 밀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밀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소련(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국가, EU, 캐나다 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세계 밀수출 비중은 서서히 축소될 전망이다.

표 3. 미국의 밀 장기수급 전망

(단위: 백만 에이커)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식부면적	55	50.2	48.5	49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재배면적	47.3	43.9	41.1	41.6	42	42	42	42	42	42	42	42
단수 (부셸/에이커)	43.6	52.6	47.1	47.5	47.9	48.3	48.7	49.1	49.5	49.9	50.3	50.7
기초재고	752	976	1,143	993	892	832	784	742	707	679	658	654
생산	2,062	2,310	1,936	1,976	2,012	2,029	2,045	2,062	2,079	2,096	2,113	2,129
수입	113	125	120	125	125	125	130	135	140	145	150	155
총공급	2,927	3,410	3,199	3,094	3,029	2,986	2,959	2,939	2,926	2,920	2,921	2,938
식용	957	963	965	970	975	980	985	990	995	1,000	1,005	1,010
종자	67	69	66	67	67	67	67	67	67	67	67	67
사료 및 기타	152	260	200	190	18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국내수요	1,176	1,292	1,231	1,227	1,222	1,217	1,222	1,227	1,232	1,237	1,242	1,247
수출	775	975	975	975	975	985	995	1,005	1,015	1,025	1,025	1,035
총수요	1,952	2,267	2,206	2,202	2,197	2,202	2,217	2,232	2,247	2,262	2,267	2,282
기말재고	976	1,143	993	892	832	784	742	707	679	658	654	656
재고율(%)	50	50.4	45	40.5	37.9	35.6	33.5	31.7	30.2	29.1	28.9	28.8
가격($/부셸)	4.89	3.7	4	4.3	4.5	4.7	4.7	4.8	4.9	5	5	5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3.3. 대두

대두 식부면적은 가격 상승 및 수익성 개선으로 약 8천5백만 에이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내수 및 수출수요 확대는 현재 대규모의 대두

면적 유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대두박, 대두유 등 대두 부산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보다 저렴해진 사료가격이 축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해외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망기간 내내 중국 중심의 전 세계 대두수요 확대는 미국의 대두교역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두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브라질 중심의 남미와의 경쟁으로 세계 대두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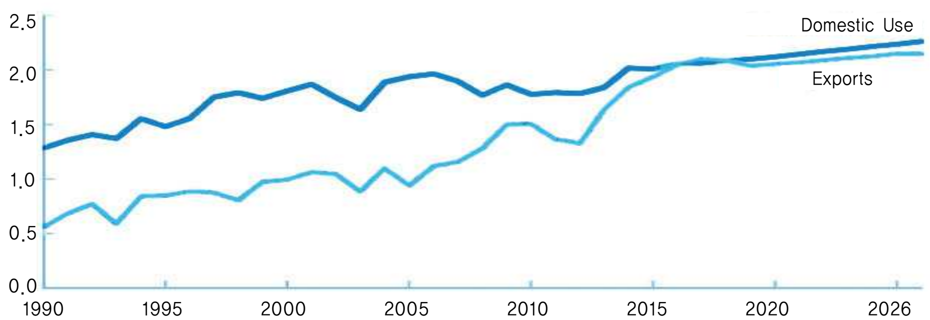
한편, 전망기간 동안 미국산 대두박 소비는 연평균 약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두박 총 소비에서 미국 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정도이고 연평균 1%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대두박 수출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지역과의 치열한 경합으로 인해 평년수준 정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두유 소비 역시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약 1%씩 증가될 전망이며, 주로 식용 및 비(非)메틸에스테르용으로 전체 소비의 약 65%가 활용된다. 대두유 수출은 아르헨티나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망기간 동안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48%에서 5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바이오디젤(메틸에스테르)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대두유는 2021/22년까지 사용규모가 약 64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약 9억 갤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같은 전망은 신재생연료표준(Renewable Fuel Standard; RFS)의 바이오메스-바이오디젤 소비요건에 맞춘 것이다.

그림 4. 미국의 대두: 내수 및 수출

(단위: 십억 부셸)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표 4. 미국의 대두 장기수급 전망

(단위: 백만 에이커)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식부면적	82.7	83.7	85.5	85	84.5	84.5	85	85	85	85	85	85
재배면적	81.7	83	84.6	84.1	83.6	83.6	84.1	84.1	84.1	84.1	84.1	84.1
단수(부셸/에이커)	48	52.5	47.9	48.4	48.9	49.4	49.9	50.4	50.9	51.4	51.9	52.4
기초재고	191	197	480	396	326	306	291	300	309	317	330	338
생산	3,926	4,361	4,050	4,070	4,090	4,130	4,195	4,240	4,280	4,325	4,365	4,405
수입	24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총공급	4,140	4,588	4,560	4,496	4,446	4,466	4,516	4,570	4,619	4,672	4,725	4,773
유지용	1,886	1,930	1,935	1,955	1,970	1,990	2,015	2,040	2,060	2,085	2,105	2,130
종자 및 기타	121	128	130	129	130	130	131	131	132	132	132	132
수출	1,936	2,050	2,100	2,085	2,040	2,055	2,070	2,090	2,110	2,125	2,150	2,150
총수요	3,943	4,108	4,165	4,169	4,140	4,175	4,216	4,261	4,302	4,342	4,387	4,412
기말재고	197	480	396	326	306	291	300	309	317	330	338	361
재고율(%)	5	11.7	9.5	7.8	7.4	7	7.1	7.2	7.4	7.6	7.7	8.2
가격($/부셸)	8.95	9.2	9.35	9.4	9.4	9.45	9.45	9.5	9.55	9.55	9.55	9.55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표 5. 대두박 및 대두유 단위당 채유량 전망

(단위: 파운드/부셸)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대두유	11.6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	11.61	11.62	11.63	11.64	11.65
대두박	47.37	47.47	47.55	47.47	47.51	47.54	47.49	47.45	47.52	47.48	47.55	47.51
단가(달러/부셸)	2.19	2.45	2.54	2.58	2.66	2.71	2.75	2.82	2.86	2.91	2.99	3.05

3.4. 주요 3대 곡물 농가수취가격 : 옥수수, 대두, 밀

2000년대 후반기 동안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생산은 진작되고 옥수수, 밀, 대두의 국제 공급량 또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2013년 미국 농가수취가격은 급격히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16년에는 전 세계 옥수수, 밀, 대두의 공급과잉으로 가격은 하향세를 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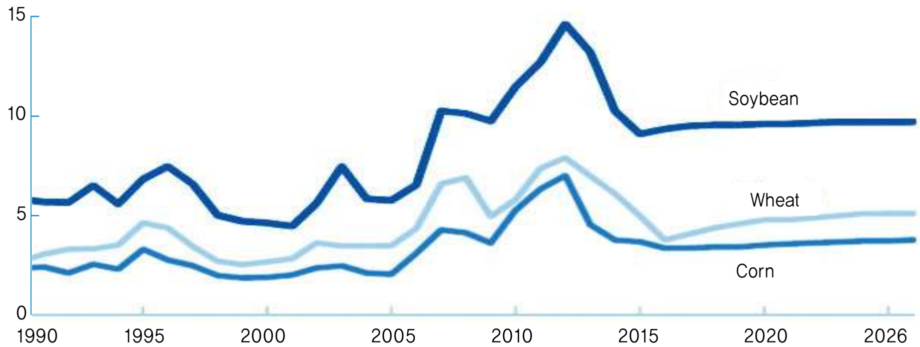
2017년부터 명목가격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되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곡물 및 대두 가격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인구 증가 및 소득 향상 그리고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에 기인한다. 그 결과 명목가격은 2007년 이전 수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명목 옥수수 가격은 사료 및 수출 그리고 에탄올 원료용 옥수수 수요 확대가 기말재고 감축으로 이어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목 대두 가격은 전망기간 내내 대두 및 대두 생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명목 밀 가격은 식부면적 감소, 수출증가 그리고 재고감축 등 가격상승 요인에 힘입어 상승세가 예상된다.

그림 5. 미국 곡물농가 수취가격

(단위: 달러/부셸)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표 6. 옥수수, 대두, 밀의 단위당(달러/부셸) 가격 전망

(단위: 달러/부셸)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옥수수	3.61	3.3	3.3	3.35	3.35	3.45	3.5	3.55	3.6	3.65	3.65	3.7
밀	4.89	3.7	4	4.3	4.5	4.7	4.7	4.8	4.9	5	5	5
대두	8.95	9.2	9.35	9.4	9.4	9.45	9.45	9.5	9.55	9.55	9.55	9.55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3.5. 쌀

2017/18년 식부면적은 최근 가격하락에 기인하여 감소할 전망이나, 2018/19년부터 전망기간 내내 예상가격은 서서히 상승하고 면적도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장립종은 쌀 면적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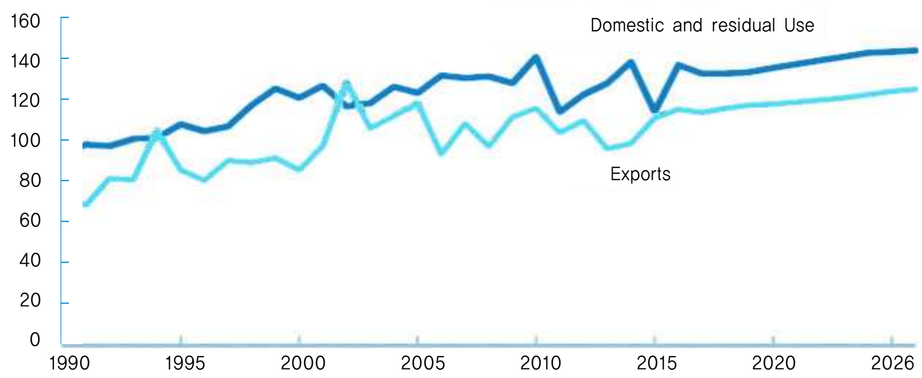
내수용 및 기타용 생산은 전체 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인구성장률 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쌀 수입 역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수입품종은 향미와 같은 장립종이며,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은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주로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수출은 증가하나, 베트남과 태국과의 경합이 치열해 지면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국은 전망 중반기 이후 인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에 등극할 전망이다.

미국산 쌀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상승폭은 전망기간 전반기의 경우 연평균 약 1%이며, 후반기는 약 2% 그리고 전체기간은 약 1.6% 정도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결과는 내수 및 기타용 증가, 국제수요 증가, 미국 내 재고율 하락 등 가격변동요인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

그림 6. 미국의 쌀 : 내수 및 기타용, 수출

(단위: 백만 hundredweight)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표 7. 미국의 쌀 장기수급 전망 (장립+중립)

(단위: 천 에이커, 백만 hundredweight, $/hundredweight)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식부면적	2,614	3,181	2,700	2,785	2,785	2,810	2,835	2,860	2,885	2,910	2,910	2,910
재배면적	2,575	3,133	2,678	2,764	2,764	2,789	2,814	2,839	2,864	2,889	2,889	2,889
단수 (파운드/에이커)	7,470	7,493	7,707	7,750	7,786	7,824	7,861	7,901	7,936	7,975	8,013	8,055
기초재고	48.5	46.5	59.7	50.6	47.9	44.6	42.3	40.6	39.9	40	40.4	40.5
생산	192.3	234.8	206.4	214.2	215.2	218.2	221.2	224.3	227.3	230.4	231.5	232.7
수입	24.1	23.5	24	24.5	25.1	25.6	26.2	26.7	27.3	27.8	28.4	28.9
총공급	265	304.7	290.1	289.4	288.2	288.5	289.6	291.7	294.5	298.2	300.3	302.1
내수 및 기타	110.8	133	129	129	129.6	131.7	133.5	135.3	137	138.8	139.3	139.9
수출	107.7	112	110.5	112.5	114	114.5	115.5	116.5	117.5	119	120.5	121.5
총수요	218.5	245	239.5	241.5	243.6	246.2	249	251.8	254.5	257.8	259.8	261.4
기말재고	46.5	59.7	50.6	47.9	44.6	42.3	40.6	39.9	40	40.4	40.5	40.7
재고율(%)	21.3	24.4	21.1	19.9	18.3	17.2	16.3	15.8	15.7	15.7	15.6	15.6
가격($/hundred weight)	12.1	10.6	10.7	10.8	10.9	11.2	11.4	11.7	11.9	12.1	12.3	12.6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4. 교역전망

4.1. 국제 곡물 소비 및 무역 규모 증가

전망기간동안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곡물에 대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용 밀과 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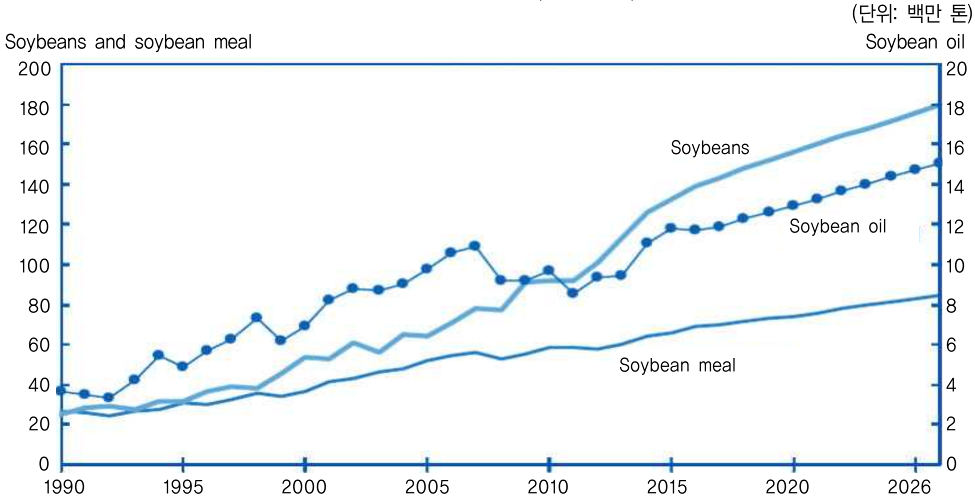
국제곡물 교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밀의 교역량은 향후 10년간 15% 가까이 증가하여 2026/27년에는 1억 9천7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및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개도국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밀 생산자급 중인 인도와 중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쌀 교역량은 2026/27년까지 약 14% 증가하여 거의 48백만 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쌀 수입은 서아프리카 지역, 사하라이남 기타지역,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이 세계 쌀 수입 증가분의 76%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최대 쌀 수입국이나 전망기간의 경우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세계 최대 쌀 수출은 인도이며, 이어서 태국, 베트남 순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대두 교역량도 역시 전망기간 동안 약 25%(약 3천6백만 톤) 증가하여 2026/27년에는 무려 1억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두 수입 증가분이 전 세계 증가분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대두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두유의 경우도 같은 기간 27%(약 3백 2십만 톤)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수입국 인도의 비중은 3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7. 대두 수출: 대두, 대두박, 대두유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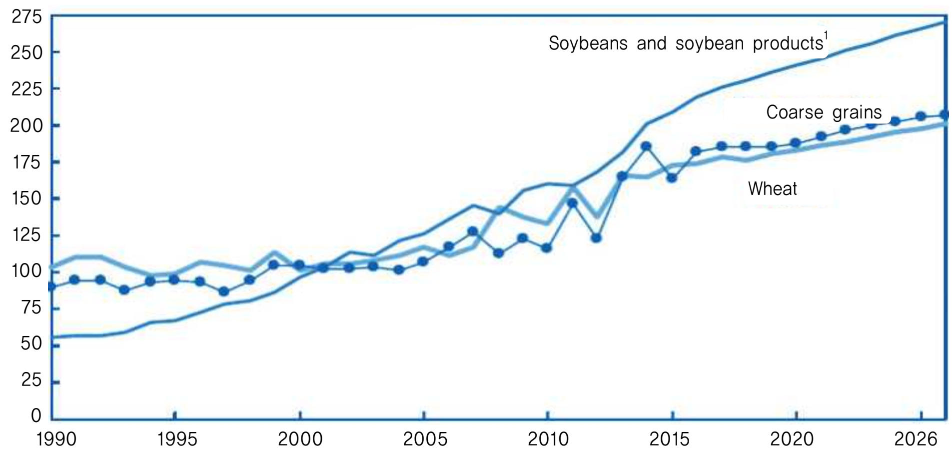
세계 옥수수 교역은 향후 10년간 약 18% 증가하여 2천5백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6/27년 수출규모는 1억 6천8백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은 약 62% 이상 멕시코, 이집트, 이란, 중국, 베트남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리의 경우 같은 기간 약 7%대의 교역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역 규모는 2026/27년

에 약 2천8백만 톤으로 예상되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16년 3천만 톤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8. 교역규모: 밀, 기타곡물, 대두 및 대두 생산물

(단위: 백만 톤)



주: 1) 1 Total of soybeans, soybean meal, and soybean oil.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4.2. 국제 밀 및 쌀 소비 패턴

밀은 많은 국가의 주요 식품으로 수세기 동안 빵과 면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쿠키, 다양한 면 요리, 후식 등 더욱 다양한 요리로도 이용되고 있다. 전망기간동안 밀 소비는 현재 보다 약 8% (약 6천1백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 밀 소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5개국(중국(23%), 인도(23%),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12%))을 중심으로 담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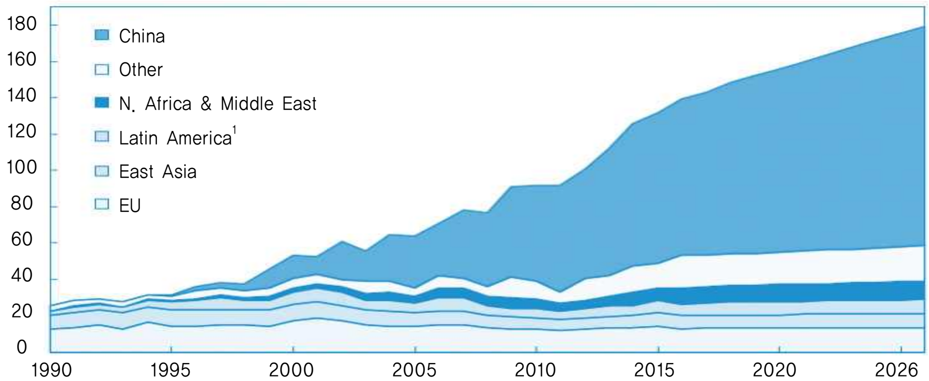
밀 소비 증가는 주식용, 기타 식용, 축산 사료용 등 소비확대와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인도와 중국은 각국 소비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면적 및 단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계 밀 교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두 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생산자의 재배의향과 면적증감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밀 수입 증가세가 높은 국가 및 지역은 소비 증가도 가파르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밀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확대할 수 없으며, 주로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 남동아시아, 방글라데시 지역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세계 밀 수입 수요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9. 국가별 세계 밀 수입규모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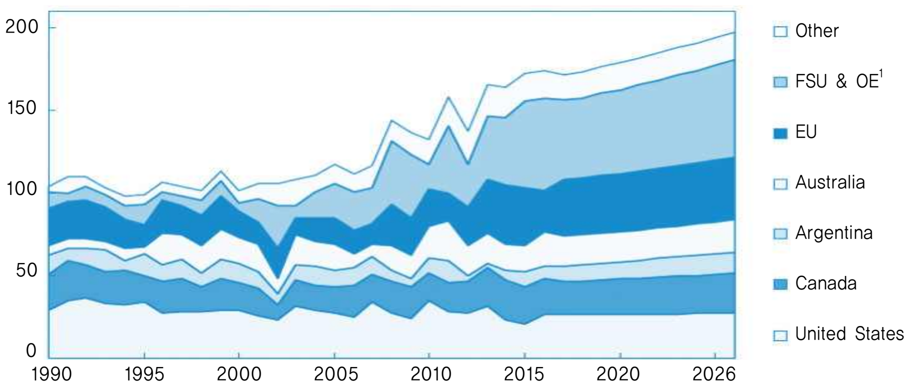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주: 1) 멕시코 포함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그림 10. 국가별 세계 밀 수출규모 추이 전망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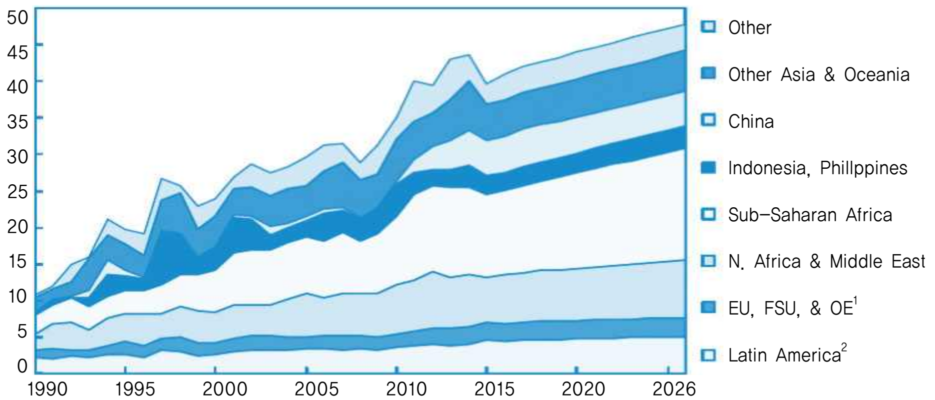
주: 1)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 Europe; prior to 1999, includes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Slovakia, and Slovenia.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세계 쌀 소비는 전망기간동안 3천9백만 톤 이상 증가하고, 이 소비증가량의 약 51%는 인도(31%)와 중국(20%) 두 국가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필리핀 순으로 쌀 소비증가율이 높을 전망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인도,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으며 전망기간동안 현상 유지 내지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동아시아 및 남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쌀 소비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쌀 소비 증가세가 가장 빠른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각각 32%, 20%, 17%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 들 지역은 세계 쌀 소비의 30%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계 쌀 수입 증가분의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 국가별 세계 쌀 수입규모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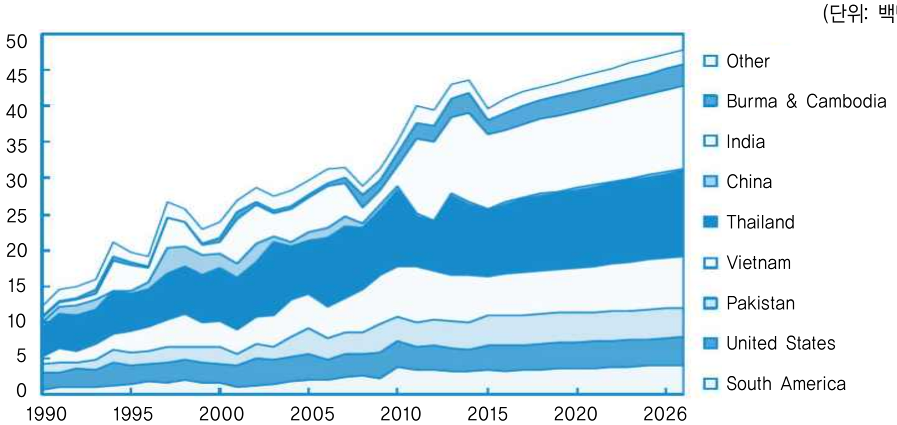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주: 1) European Union,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 Europe. 2) Includes Mexico.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그림 12. 국가별 세계 쌀 수출규모 추이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4.3.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세계 육류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옥수수는 핵심 사료용 곡물이다. 일부 국가는 사료용 옥수수 생산 확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확대되고 있다. 옥수수 수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각각 연평균 4.3%, 3.0%, 2.5% 대 수입확대가 예상된다. 이들 3개 지역 옥수수 수입규모는 1,170만 톤이며 전망기간 중 옥수수 증가분의 46% 수준이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수입 증가는 대부분 가금 및 양돈 산업용 성장에 기인한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연간 수입량은 약 3백80만 톤 수준으로 전 세계 증가분의 15%에 해당된다.

남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육류 생산이 확대되어 옥수수 수입은 2026/27년까지 약 2백90만 톤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결국 상기 논의된 네 개 지역의 옥수수 수입 규모는 전망기간 동안 전 세계 옥수수 수입증가분 의 약 73%를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8. 주요 국가별 세계 옥수수 수입규모 추이 전망

(단위: 백만 톤)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총계	120.4	144.2	142.2	144.8	147.4	150.4	153.8	157	160	162.7	165.3	167.6
멕시코	13.8	13.8	14.7	15.2	15.6	16.3	17.2	17.7	18.2	18.8	19.2	19.7
일본	15.2	15	15	15	14.9	14.9	14.8	14.8	14.8	14.8	14.8	14.8
이집트	8.6	8.8	9	9.2	9.6	9.9	10.3	10.6	11.1	11.6	12	12.3
한국	10.1	9.8	10.1	10.2	10.3	10.4	10.5	10.5	10.6	10.7	10.7	10.7
EU	13.4	13.5	12.7	12.5	12.4	12.1	11.7	11.5	11.2	10.9	10.6	10.3
이란	6.6	6.5	7.1	7.6	8.1	8.5	8.8	9.1	9.3	9.5	9.7	9.9
베트남	8	6.5	7.1	7.2	7.4	7.6	7.9	8.1	8.4	8.7	8.9	9.1
북아프리카	6	6.2	6.3	6.4	6.6	6.7	6.9	7.1	7.3	7.5	7.7	7.9
중국	3.2	3	3.4	3.6	3.8	4.2	4.6	5	5.3	5.6	5.9	6.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	3.6	3.8	4	4.2	4.4	4.6	4.9	5.1	5.3	5.5	5.7
말레이시아	4.1	3.6	3.9	4	4.1	4.1	4.2	4.3	4.4	4.5	4.5	4.6
사우디아라비아	3.6	3.7	3.6	3.7	3.9	4	4.1	4.2	4.3	4.3	4.4	4.5
중동기타	4.1	4.1	4.2	4.2	4.2	4.3	4.3	4.3	4.4	4.4	4.4	4.5

자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2017.

5. 요약 및 결론

최근 미국 농업부가 발표한 곡물 수급전망 따르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육류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옥수수는 핵심 사료로 사용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 내지 개도국을 중심으로 옥수수 수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해당 국가 내지 지역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가파른 속도의 수입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3개지역외에도 동남아시아의 가금 및 양돈 산업용 수입확대와 남미의 육류 생산이 확대되어 옥수수 수입은 빠르게 증가될 전망이다. 결국 상기 논의된 네 개 지역의 옥수수 등 곡물 수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곡물에 대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용 밀과 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제곡물 교역에서 식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밀의 교역량은 향후 10년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옥수수 교역에 대한 증가요인과 마찬가지로 소득 및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개도국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기인한다.

세계 대두 교역량도 역시 전망기간 동안 대폭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두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따른 재고감축으로 세계 곡물가격 또한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입선의 다변화 및 해외농업개발 참여, 사료작물 재배 확대 등 다양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곡물가격 폭등 및 식량안보 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USDA. 2017.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6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Wheat import duty hike: Minister Ram Vilas Paswan flip-flops on policy
인도 식품 장관, 소맥 수입 관세 정책 번복

소맥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인한 재고 과잉을 감안할 때, 인도식품공사(FCI)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최저지원가격(MSP)을 보장하는 조달이 지원되지 않는 주(州)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람 빌라스 파스완(Ram Vilas Paswan) 인도 식품 장관은 정부가 현재 제로인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향력 있는 농민 지도자들은 농민들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맥 수입 관세를 올리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상인들이 약 8,200~8,300만 톤의 생산량을 예측했지만, 정부는 생산량이 이보다 천만 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소맥 가격은 계속 치솟았고 그 사이에 정부는 수입 관세 인하를 연기하였다. 대신 가격 상승에 따른 사재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는 상인들의 재고 한도를 줄였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던 시기에 인도의 완충 재고량(buffer stocks)이 지난 몇 년 간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2016년 9월 수입 관세를 10%로 내렸고, 12월에는 관세를 폐지하였다.

파스완 장관이 제안한 수입 관세 인상은 소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다음 시즌의 소맥 파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농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콩의 경우에는 유사한 가격 하락으로 장기적인 생산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이들은 이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관세 수준을 올리는 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생산량 예측 실패 원인을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사탕수수 생산을 두고 이와 비슷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수입 관세를 부당하게

높은 40%나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수입 관세의 변경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활한 기능을 하는 선물 시장은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사전에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오늘날 만연하는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수출 정책이 수입 관세의 갑작스럽고 임의적인 변동처럼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수출이 허용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상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동안 농민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농민들은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수입/수출 관세와 가격 변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한다면, 가격 추세에 대한 표준편차가 1인 경우에는 수입관세는 10% 증가할 수 있고, 가격 변동이 표준편차 2로 간다면 15%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장기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호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2017.2.27).

Malawi sees bigger maize harvest despite pest invasion 말라위 해충 유입 불구 옥수수 풍작 전망

콩고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옥수수 농장에 확산된 남미산 조밤나방(army worm)으로 인한 해충 피해에도 불구하고, 말라위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하여 2017년 3분기 기준 3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말라위는 심각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수년간 발생하고 있는 가뭄으로 지난해 주식(主食)인 옥수수 곡물이 황폐화되었다. UN 세계식량프로그램(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에 따르면, 올해 3월 수확까지 말라위 인구의 1/3 이상인 약 65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빈곤국으로 아프리카 남부 내륙에 위치한 말라위는 조밤나방 발병으로 올해 수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Erica Maganga 농업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충을 박멸하였다고 밝혔다. 폭우와 성공적인 살충제 배포로 해충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16/17 농업 생산량 추정치에 의하면, 지난 시즌 240만 톤에서 올해는 320만 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 이달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해충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은 짐바브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17.2.27).

Top wheat buyers grow more of their own to swell global glut 대규모 소맥 바이어들 구매 줄여, 글로벌 비축은 증가

글로벌 소맥 과잉 상태가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 것처럼, 일부 대규모 바이어들은 구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축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맥 수입으로 자국의 식량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이집트와 알제리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예상처럼 기상이 양호하면 올해는 수확량이 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곡물위원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는 전망하였다.

시카고 소재 AgResource Co.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수입이 기록적인 수치에서 3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글로벌 소맥 수요는 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생산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은 4년 연속 급락하고 있다. 지난달 EU MARS (Monitoring Agricultural Resources Unit)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북아프리카는 가뭄으로 국내 곡물이 피해를 입었으나 올해는 강수와 온화한 기후가 곡물 생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달러 대비 통화 약세로 수입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AgResource의 Dan Basse 회장은 “만약 소맥에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다면, 수요 또는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세계 소맥 무역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곡물 생산국들의 무역 증가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더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으로 식료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알제리는 세계 소맥 수입 3위 국가이다. United Nations에 따르면, 가뭄으로 황폐화된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식량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북아프리카의 5개국은 여전히 수백만 명이 영양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의 수확 전망이 ‘양호에서 우수’(good to excellent)로 전망하였다. 미 농무부(USDA)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습윤한 기후로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gResource사는 양호한 기후로 2017/18 시즌 생산량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난해 수확량에서 39%나 증가한 1,96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덕분에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입은 2,810만 톤에서 감소한 2,76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로코 농민 Abdessamad Raiss씨는 가뭄으로 수확량이 71%나 줄어들면서 수입이 64%나 급증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좋은 기후 상태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북동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케미세트에서 30 헥타르(74 에이커) 상당의 연질 소맥을 재배하고 있는 Raiss씨는 “올해는 강우량이 많았다. 작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미 6월까지 대출을 갚을 것으로 은행원과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밀 작물 재배는 대부분 강우에 의존하지만, 이집트는 대부분 관개 시설로 재배된다.

런던 소재 국제곡물위원회의 선임 경제학자인 Amy Reynolds는 “북아프리카는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수입이 늘었지만, 다가오는 시즌에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타이트한 외화 보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관련된 지출을 줄이는 것은 큰 이득이다”고 분석하였다.

풍작을 기록했던 과거에도 북아프리카는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 FAO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집트와 모로코의 곡물 수요의 40% 이상은 수입으로 충족한다고 한다. 튀니지와 알제리에서는 60%가 넘고, 리비아의 수입 의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5개국은 5월 30일 종료하는 올해 2,860만 톤의 기록적인 수입량을 보일 것으로 USDA는 전망했다. 수입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30% 증가한 수치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동기간 대비 국내 생산량은 26% 감소했으며, 소비량은 9.2% 증가한 4,470만 톤을 기록했다.

FAO 경제학자 Monika Tothova는 “수입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며, 경제적 압력에 대한 영향은 투입 요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가격에 달려있다”고 이메일을 통해서 밝혔다.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은 최근 몇 년 간 글로벌 생산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월 23일 곡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 비축량은 2억 3,600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시카고 거래소의 밀 선물은 최고를 기록했던 2012년 부셸 당 9.47 1/4달러에서 8월에는 3.86 3/4달러까지 내려갔다. 올해 가격은 11% 오른 4.51달러에 마감되었다. 이 역시 지난 10년 평균치인 6.29달러를 밑도는 수치이다.

영국 뉴마켓에 소재한 CRM AgriCommodities의 디렉터 Benjamin Bodart는 “무역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국가의 재고 감소가 줄어들어 소맥 강세를 전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2017.2.24).

IGC forecasts record grains output in 2016-17
IGC, 2016/17 곡물 생산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제곡물위원회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는 2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총 곡물 생산량을 1월 전망한 20억 9,400만 톤에서 21억 200만 톤으로 수정하였다. 2015/16 년 20억 600만 톤보다 증가했다. 만약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처음으로 생산량이 21억 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총 소비량은 20억 6,200만 톤에서 20억 6,900만 톤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IGC는 보고서에서 “호주에서의 소맥과 보리의 기록적인 수확 및 남미 옥수수 전망 개선으로 변경 되었다”고 한다.

공급 증가분의 대부분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상쇄되었고, 이월 수치는 이전보다 약간 상승했다. 상향 수정에 이어 무역은 전 시즌 최고치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었다. 2017/18년 북반구의 겨울 곡물 컨디션은 대부분 호의적인 상황이다. all-wheat harvested 지역에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평균 수확량은 감소가 예측되면서 다음 글로벌 수확은 전년대비 2%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IGC는 2016/17년 세계 소맥 생산량을 1월 기대치와 변동 없이 7억 5,200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2015/16년 7억 3,700만 톤의 기록적인 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소맥 기말 재고량은 1월 2억 3,500만 톤에서 증가한 2억 3,600만 톤으로 예상되었고, 2015/16년 2억 2,10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IGC는 2016/17년 옥수수 생산량을 1월 10억 4,500만 톤에서 늘어난 10억 4,900만 톤으로 보았고, 이는 2015/16년 9억 7,300만 톤보다 증가하였다. 소비 전망은 1월 10억 2,800만 톤에서 10억 3,5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남미의 기상여건 개선으로 IGC는 글로벌 대두 생산량 전망을 1월 3억 3,400만 톤에서 3억 3,6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소비 전망은 3억 3,300만 톤에서 3억 3,400만 톤으로 올랐다. IGC는 세계 무역량이 1억 3,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2016/17년 세계 쌀 생산량은 총 4억 8,200만 톤으로 예상되어, 1월 기대치와 변함이 없다. IGC는 많은 아시아 곡물 생산국에서 곡물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풀 시즌 생산량은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곡물이사회(IGC) 곡물 및 오일시드 가격지수(Grains and Oilseeds Index, GOI)는 2% 하락했다.

남미의 호의적인 신곡 전망 상황이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수 하락은

대두와 옥수수 시세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다르게, 세계 보리 가격은 최근 활발한 수출 움직임과 물류 제약 조건, 통화 이동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밀 시장 역시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쌀 하부지수(sub-Index)는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2017.2.23).

China signals cautious farm policy reforms will continue 중국 농업 정책 개혁 진행 중

중국 주력 농업 정책 성명서는 농업 부문에 '공급 측면'(supply side)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반복하였다. 농민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의 혜택을 누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위원회(China Central Committee)와 국무원(State Council)에서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정책 문서인 '1호 문건'은 계획된 개혁의 광범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이 농업과 농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로, 2017년판은 14년 연속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중앙 농촌 근로자 지도 그룹(Central Rural Work Leading Group)의 부국장인 Tang Rengjian은 이달 초 열린 기자 회견에서 "농업 부문의 공급 측면 개혁 추진과 농업의 포괄적인 혜택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 정책 수립에서의 우리의 주요 목표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혁 프로그램은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 부문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발표한 문서에서, 중국은 쌀, 밀과 관련하여 최저수매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소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곡물을 최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낮은 관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높은 국내 가격 등으로 공공 비축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정책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국제 가격을 억제하고 글로벌 무역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일부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다. 지난 9월 미국은 중국이 쌀, 밀, 옥수수 등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였다(2016년 9월 15일 및 2017년 1월 19일 Bridges Weekly 호 참조). 이와 함께, 중국은 2016년 옥수수 보조금 및 2014년 면화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지원 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만약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을 유

발하고 무역 왜곡이 적은 목표 가격 시스템과 최저수매가격정책을 대체한다(2014년 1월 23일 및 2016년 2월 4일 Bridges Weekly 호 참조).

Tang Rengjian은 옥수수 시장 개혁을 중국의 농산물 공급 개혁에서 처음으로 겪는 힘든 전투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17년에는 밀과 쌀의 최저수매가격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국내 정책의 개혁과 함께, 새로 발표한 1호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다른 기구에서 운영하는 국내 농산물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1호 문건에는 보조금 철폐, 농산물 무역의 덤핑 방지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과 규제를 완전히 제정할 것이고, 법에 따른 농산품 무역 구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입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식품자원경제연구소 부교수인 Wusheng Yu는 "이 성명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이다"고 Bridges에 전했다. 미 농무부(USDA) 산하 농업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의 선임 연구원 Fred Gale은 '공정한'이라는 문구에 숨은 의미가 있다고 Bridges에 말했다. 연구원은 "이것은 그들이 미국 제품들을 특히 불공정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 부문에서 미국은 대중국 순수출국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WTO에 중국이 2014년에 미화 140억 달러 상당의 무역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반면 중국은 2010년에 1,230억 위안(미화 180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2015년 5월 13일 및 2017년 1월 26일 Bridges Weekly 호 참조).

글로벌 무역 기구에 관련된 농업 지원 보고가 연기되면서, 양국의 최신 WTO 데이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올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 회의를 앞두고 농산물 무역에 관한 글로벌 규범을 개혁하기 위한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무역 관계자들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농업 보조금 통지가 최신인지 확실히 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2016년 5 월 12 일 Bridges Weekly 호 참조).

중국의 새로운 정책 문서에는 중국은 국제 무역 규칙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히 늘어나는 농가 보조금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농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의 훨씬 부유한 생산자들과 중국의 낮은 1인당 보조금 지급 수준

을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Tang Rengjian은 “빈곤 퇴치 운동은 지난해 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6.2%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호 문건에 의하면, 중국은 2017년에 빈곤 인구 천만 명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이 미화 8천 달러인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중산층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중이다”고 한다. 연구원 Fred Gale은 중국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도시 지역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새 문서는 혁신 지원, 고품질 농산품 육성, 농촌 경제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농업 부문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015년 2월 26일 Bridges Weekly 호 참조).

그리고 중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과 관련된 우려뿐만 아니라, 국가의 농업 보조금 계획과 관련된 재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Tang Rengjian은 “경기 침체 및 재정적 어려움의 맥락에서 농업과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 방법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동시에 새 문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농업용수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습지 및 기타 민감한 지역의 보전 프로젝트 역시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양보다는 품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고 Tang은 전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압력이 줄어들면서, 주요 농산물의 공급 과잉 또는 과도한 재고 문제를 겪고 있는 새로운 시장 상황에서 환경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2017.2.23)

Wheat prices to rise likely but much drier season ahead: National Australian Bank
호주 NAB 은행, 소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매우 건조한 기상 예측으로 우려

호주의 소맥 가격은 2017년 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의 풍작으로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이 줄어들었던 곡물 재배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포커스: NAB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의 겨울 곡물 수확 업데이트에 의하면, 호주 1달러가 미국 달러 70센트로 내려갈 것이라는 NAB 환

율 전망에 따라 소맥 가격이 약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NAB Agribusiness의 경제학자 Phin Ziebell는 2016-17년 겨울 작물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우수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 소맥 재고가 넘쳐나면서 곡물 가격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주요 곡물의 글로벌 공급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면서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호주달러(AUD)의 화폐가치가 하락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 농무부(USDA)의 최근 추정치는 기말 재고량(ending stocks)이 2억 5천만 톤에 달하면서, 특정 이슈를 제기하였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다. 호주의 2016-17년 소맥 생산량은 예외적인데, 빅토리아 주(州) 생산량은 작년 대비 150%, 뉴사우스웨일스 주(州) 생산량은 5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큰 수확량을 보였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업데이트 소식에 따르면, 올해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뉴사우스웨일스 애그리비즈니스 대표인 Geoff Rose는 일부 지역이 침수를 겪었지만, 높은 강우량 덕분에 곡물 수확량이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은 매우 강했다. 일부 지역은 침수 및 중서부 포브스(Forbes) 지역 홍수 피해로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강우량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늘었다"고 덧붙여 전하였다. 글로벌 곡물 공급량은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NSW의 높은 수확량은 낮은 가격을 상쇄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 병아리콩은 대규모 파종으로 좋은 수확량을 보였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s)는 2016-17년 소맥 추정치는 1,140만 톤으로, 파종이 약간 증가한 것에 비해 지난 시즌 대비 52%나 증가하였다. 2016년 여름과 가을 대부분 평균보다 건조한 기후로 시즌 시작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대부분 지역에서 5월부터 높은 강우량을 보였다. 특히 6월과 9월 강우량이 높았고, 전역에 걸쳐 높은 강우량을 보였다. 우기 시즌에는(4월~9월) 올해 곡물 재배 지역의 경우 장기 평균 강우량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봄에는 침수 및 품질 저하와 관련된 날씨로 우려가 컸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강우량은 주(州) 수확량의 순이익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확실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즌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기상청의 기후모델은 올 겨울 호주 동부 및 북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기후와 연관된 엘니뇨의 출현을 지적했다.

경제학자 Ziebell에 따르면, 지난해 습한 겨울과 봄을 겪으면서 거대한 곡물 수확량을 보였고, 일 년 내내 발생한 라니냐 조건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올해 불행히도 기상청의 전망은 매우 다르며, 더 건조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17년에는 기록적인 수확을 보였다. Abares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소맥 생산량은 3,500만 톤 이상으로 5년 전보다 5백만 톤 이상 높다고 전했다(2017.2.22).

US upgrades South America as rival in maize, wheat exports 미국 옥수수, 소맥 수출로 남미와 경쟁

세계 옥수수 및 소맥 수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이 남미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덕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완화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멕시코가 옥수수 수입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할 것이라는 시장 염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미 농무부(USDA)는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미국 소맥 수출 전망을 60만 톤 삭감한 2,740만 톤으로 조정하였다. 옥수수의 경우, 전망치는 320만 톤 줄어든 5,460만 톤으로 쌀과 수수 역시 감소했다. 조정된 수정치는 미국이 9년 동안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33%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39%에서 줄어든 수치이다. 밀 수출 시장에서 미국은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한 14.1%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후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2%에서 10년 만에 29%로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구소련과의 경쟁이 미국 밀 수출 점유율 상실의 요인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도입한 곡물 수출 관세 폐지와 같은 농업 개혁으로 남미 국가의 생산 전망에 대한 부양을 언급하면서, USDA는 2025~26년 아르헨티나 소맥 수출 전망치를 71% 상승한 1,250만 톤으로 보고 있다. 또한, USDA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 세계 농업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의 옥수수와 소맥 재배 농가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통화 자유화에 따른 페소 평가 절하로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되는 곡물의 국내 가치를 높였다. USDA는 아르헨티나의 밀 재배는 특히 콩과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수출 관세 폐지 이후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5~26년 약 2,970만 톤의 수출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에서 46%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 기간에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은 22% 증가한 3,720만 톤으로 예상된다. USDA는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이모작종 옥수수(safrinha)의 생산량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USDA는 중서부 지역에서 콩과 이모작이 가능한 옥수수 생산은 새로운 경작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예측하였다.

미국에서 남미로 농작물 수입 수요의 잠재적인 전환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멕시코 정치인들이 옥수수 구매를 미국이 아닌 남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호세 깔사다 로비로사 농림부 장관은 멕시코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일 이내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은 미국 농민들은 옥수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5~16년 미국은 멕시코에 1,360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출하였다. 이는 미국 옥수수 수출의 30% 정도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US broker Futures International의 Terry Reilly는 남미에서 3,700~4,000만 톤의 연간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 멕시코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다면, 남미에서 옥수수를 구입하는 주요 수입업자들은 미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 가격이 대체 수입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17.2.17).

Russia, EU to vie for top spot in key wheat markets in 2017/18
러시아와 EU 2017/18시즌 소맥 시장 경쟁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7/18 마케팅 시즌에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자리를 두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전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호주와의 치열한 판매 경쟁은 가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AgResource Co.사 댄 베이스(Dan Basse) 대표는 “기상 여건이 정상이라면, 세계 소맥 가격은 늦여름에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곡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하였고, “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적인 글로벌 무역 상황과 세계 밀 시장 점유율을 위한 지속되는 싸움이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6년에 기록적인 밀 작물을 수확했으며, 현재 2016/17 시즌에 미국과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순위를 놓고 경쟁하

고 있다. EU는 프랑스에서 곡물 수확이 좋지 않아 이번 시즌 약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2017년 곡물 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기록적인 밀 재고 덕분에 다음 시즌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했다. AgResource Co.사 댄 베이스(Dan Basse) 대표는 러시아의 밀 재고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여 7월에는 1,200~1,3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금융회사 INTL FCStone의 상품 리스크 관리자인 Matt Ammermann는 새 시즌에 대해 현재 러시아는 2016/17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EU의 곡물은 다음 시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의 컨설팅기업인 Strategie Grains은 러시아의 2017/18 밀 수출은 2,960만 톤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EU는 2,860만 톤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농업시장연구소인 IKAR와 농산물시장민간연구소인 SovEcon은 러시아의 2017/18 밀 수출량을 각각 2,800만과 2,7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SovEcon 의 Andrey Sizov 대표는 “러시아의 지리와 공급 물량은 2017/18년에도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는 EU는 러시아의 수출국인 모로코를 빼앗을 수 있고,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기록적인 수확 덕분에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분 일부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trategie Grains에 따르면, 러시아는 방글라데시에 대규모 수출을 유지하고 터키에 수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러시아 농민들은 루블화 약세로 현지 통화 수익이 증가하면서 2017년 겨울 곡물을 7년 만에 가장 넓은 재배 면적에 파종을 하였다. 2015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달러-루블은 57루블로 반등했으며, 최근 강세로 수출이 둔화 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쟁국인 미국은 겨울 밀 재배 수준이 약 1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밀 파종은 옥수수와 대두 파종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루블화 가치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고 대표는 밝혔다(2017.2.16).

Mexico ready to retaliate by hurting American maize farmers
멕시코, 미국 옥수수 수입 금지로 무역 보복 시작

멕시코는 미국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멕시코 상원 외교위원장인 아르만도 리오스 피테르 의원은 미국산 옥수수 대신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에서 옥수수를 수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대응하는 멕시코의 잠재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이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反트럼프 시위에서 리오스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서부에서 구입하던 옥수수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리오스 의원은 “적대적인 관계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미국에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음식에는 미국 옥수수가 많이 사용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타코와 같이 옥수수가 들어가는 음식을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길거리 노점까지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급증하였다. 2015년에 미국 농부들은 24억 달러 상당의 옥수수를 멕시코에 수출하였다. NAFTA가 발효된 일 년 후인 1995년에는 3억 9,1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법안이 미국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농업 관리 회사인 DTN의 대린 뉴섬 애널리스트는 “멕시코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옥수수를 수입한다면 무역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서 옥수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리오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의 협박에 대응하려는 멕시코의 의지의 신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국경 장벽 건설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멕시코산 수입품에 20~3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도 원하고 있다. 그리고 NAFTA 체결 이후 제조업 부문의 거대한 손실을 멕시코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초당적 기관인 의회 조사국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좋은 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협상은 90일간의 협의 기간이 끝난 후인 5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NAFTA를 탈퇴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멕시코의 Rios Piter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가 관세를 물리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멕시코의 한 뉴스에서 "우리가 미국이 특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영향을 즉시 상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명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2017.2.13).

South Africa's 2016 maize crop drops 22 percent to smallest in 9 years
남아프리카공화국 2016년 옥수수 생산 22% 감소, 9년 만에 최저치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대 흰색 옥수수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6년 옥수수 수확량은 22% 감소하면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엘니뇨에 의한 가뭄 발생으로 2년 연속 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다. Crop Estimates Liaison Committee 대변인 Marda Scheepers는 전화통화에서 지역 농민들이 지난해 778만 톤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996만 톤보다 적고, Bloomberg survey의 4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평균치인 757만 톤보다 2.8% 많은 수치이다.

1904년 강우량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 강우량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곡물 피해 및 가격 상승을 일으키면서, 남아공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곡물 순수입국 (Net Importer) 이 되었다. 2016년 강우량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었다. 요하네스버그와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Vaal Dam은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정부는 1월 17일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최대 옥수수 생산국으로 흰색 옥수수 품종은 팝(Pap)이라 알려진 주식 (主食)에 사용되며, 노란 품종은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 흰색 옥수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8% 감소한 341만 톤을 기록했으며, 노란 옥수수는 16% 하락한 437만 톤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흰색 옥수수 생산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던 작년 이후 2016년에 24% 감소한 반면, 노란 옥수수는 2015년 66% 증가한 이후 11% 감소하였다.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742,000톤을 기록하였고, 해바라기씨 생산량은 14% 증가한 755,000톤을 기록하였다. 수수 생산은 41% 줄어든 70,500톤이고, 땅콩 생산량은 72% 감소한 17,680톤이라고 한다(2017.2.13.).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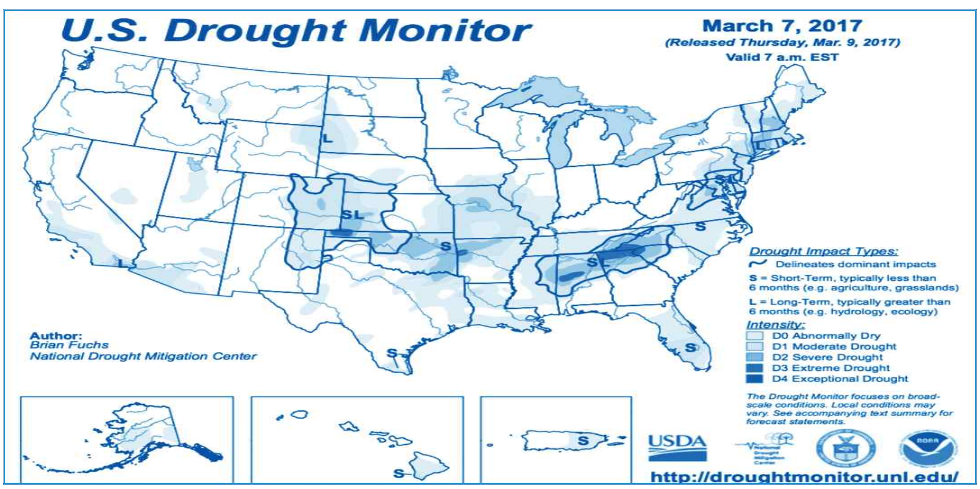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미국

3월

3월 초순,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주 초반 따뜻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산불이 몇 차례 발생했다. 남서부와 대서양 연안 일대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반면, 북서부를 비롯해서 오하이오, 오대호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는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남동부 내륙 지역에서도 1~3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부 및 북동부, 북서부 북단에서는 눈이 내렸고, 특히 몬태나와 노스다코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남서부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간 지역의 눈이 녹기 시작했다. 남동부에서는 따뜻한 날씨를 회복했지만, 봄철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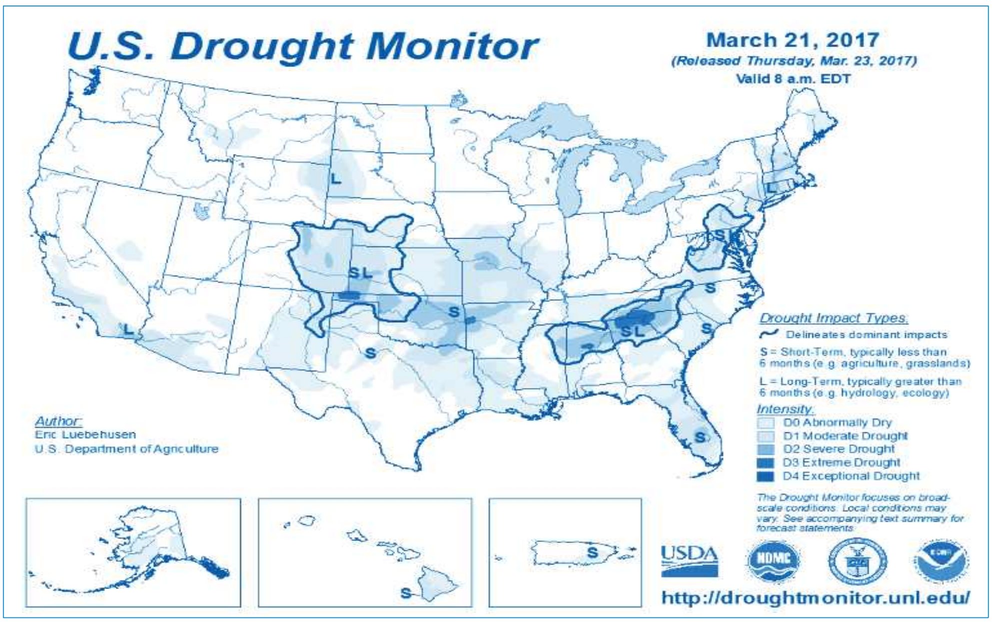
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4(No. 11), Mar 7, 2017.

3월 중순,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눈과 비가 섞여 내렸다. 이번 비는 주로 3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집중되었다. 한편, 남동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다. 이번 추위로 최근 발아하기 시작된 옥수수, 수박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자세한 피해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10~15°F 정도 낮았지만, 로키산맥 일대와 내륙 산간지역, 캘리포니아 남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주 후반에는 중서부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 위치한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대서양 연안 일대와 노스 캐롤라이나 북부 등에서는 2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남부와 중부, 남부 평원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이들 지역에 쌓여있던 눈도 비로 인해 녹기 시작했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4(No. 13), Mar 23, 2017.

2. 유럽

3월

3월 초순, 북부와 중부의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프랑스에서부터 잉글랜드, 폴란드 등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7°C 이상 높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폴란드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영국에서도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남부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3월 중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인 덕분에 겨울작물들이 평년에 비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으며, 북부 일대에서는 주 후반에 비가 내리기도 했다. 동부와 북부의 겨울 작물들은 대부분 평년에 비해 2~4주 정도 일찍 휴면기를 끝내고 성장을 재개했다. 독일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려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폴란드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도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주 후반에는 2~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 남부와 프랑스 남서부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다뉴브 강 하류에서도 비가 내렸다.

3. 구소련(서부)

3월

3월 초순, 남부의 겨울밀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지를 덮고 있던 눈이 많이 녹아내렸다.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6~10°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대체적으로 10°C까지 올랐다(흑해 연안 일대에서는 20°C). 남부의 따뜻한 날씨 덕분에 겨울밀의 발달 상황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약 4주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남부 및 러시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평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3월 중순, 3주 연속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지를 덮고 있던 대부분의 눈이 녹아내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4~8°C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낮 최고기온이 10°C 또는 15°C까지 오르기도 했다. 눈이 남아 있는 지역은 러시아 남부의 Volga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 수준에 그쳤으며, 계속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10~22mm 내외, 벨라루스에서는 5~15mm 내외, 우크라이나 동부와 중부 및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2~8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 남서부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4. 호주

3월

3월 초순, 지난 한 주간 전역에 걸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확 전망이 밝다. 기온도 지난 3주간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3월 중순,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곳에 따라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으며, 이번 비로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졌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5. 아르헨티나

3월

3월 초순, Buenos Aires 전역에서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후 비는 La Pampa, Entre Rio 북동부까지 확대되었다. 남부의 Cordoba, Santa Fe 등에서는 10mm가 조금 넘는 정도의 비가 내렸고, 중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

았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La Pampa, Buenose Aires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10°C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보다 북부의 옥수수, 대두, 면화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곳에 따라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Santiago del Estero, Santa Fe 북부, chaco, Formosa 등 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3월 9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39%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에 비해 늦은 편이다.

3월 중순, Salata 남서부에서 Corrientes, Entre Rio 등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Santiago del Estero, Santa Fe 북부, Chaco, Formosa 등의 면화 재배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반면, 남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Buenos Aires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15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Cordoba 동부, Santa Fe 남부 등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서부의 옥수수, 대두 재배지 일대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북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 날씨를 보였고, 밤사이 기온이 10°C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16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7%에 비해 느린 편이다.

6. 브라질

3월

3월 초순, 남부와 중부에서는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남부 및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 대두와 1기 옥수수의 수확률은 각각 56%,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작 옥수수의 파종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as Gerais 북부와 남서부 등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Goias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모작 옥수수와 면화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었다. Mato Grosso의 대두 수확률은 3월 10일 기준 8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p 앞서

는 수치이다. 북동부 내륙의 Bahia 서부, Tocantins, 남부의 Piaui, Maranhao 등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4°C 정도 높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내렸다.

3월 중순, 중부, 서부 및 북동부 내륙지역에 이르는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북동부, Tocantins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높은 정도를 유지하면서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Bahia 서부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수확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옥수수 파종작업은 거의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두의 수확률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반면, 남부의 Parana, Rio Grande do Sul 등 최근 대두 파종작업을 마친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44,736	318,034	10,311	11,485	306,817	97,702	3.23
1986/1987	144,797	316,033	10,686	13,063	308,053	103,305	3.21
1987/1988	141,442	315,135	10,452	11,572	312,060	105,260	3.29
1988/1989	146,584	332,083	11,701	14,015	323,383	111,646	3.35
1989/1990	147,811	345,264	10,589	11,484	335,411	120,604	3.45
1990/1991	146,981	351,376	10,593	12,115	343,817	126,641	3.53
1991/1992	147,550	353,253	12,028	14,453	350,797	126,672	3.54
1992/1993	146,441	353,878	12,954	14,876	355,479	123,149	3.58
1993/1994	145,327	354,685	16,138	15,837	359,214	118,921	3.62
1994/1995	147,335	364,108	19,380	21,058	363,790	117,561	3.66
1995/1996	148,352	368,791	18,127	19,820	366,582	118,077	3.69
1996/1997	150,200	380,390	16,666	19,110	375,773	120,250	3.75
1997/1998	151,743	387,440	24,232	26,646	377,546	127,730	3.79
1998/1999	153,313	394,919	25,219	25,633	388,227	134,008	3.83
1999/2000	155,860	409,305	20,263	22,831	397,681	143,064	3.91
2000/2001	152,780	399,244	22,073	23,988	393,708	146,685	3.89
2001/2002	151,645	399,456	25,969	26,982	412,194	132,934	3.92
2002/2003	147,663	378,182	26,297	28,659	405,744	103,010	3.81
2003/2004	149,521	392,483	25,012	27,436	411,412	81,657	3.92
2004/2005	151,442	400,799	25,973	28,252	406,186	73,991	3.94
2005/2006	154,214	417,865	26,537	29,646	412,259	76,488	4.04
2006/2007	154,284	420,090	28,585	31,326	418,460	75,377	4.05
2007/2008	154,976	433,631	30,027	31,442	426,711	80,882	4.15
2008/2009	158,488	449,937	27,415	28,962	436,354	92,918	4.23
2009/2010	155,764	440,676	28,263	31,344	435,402	95,111	4.21
2010/2011	158,229	450,397	33,068	35,080	443,405	100,091	4.25
2011/2012	160,432	467,613	35,515	39,945	456,492	106,782	4.35
2012/2013	158,834	472,530	36,758	39,361	462,825	113,884	4.44
2013/2014	161,605	478,335	38,537	43,017	473,868	113,871	4.41
2014/2015	160,928	478,553	41,112	43,582	475,042	114,912	4.43
2015/2016 (추정치)	159,167	472,163	37,894	40,389	468,435	116,145	4.42
2016/2017 (전망치)	161,346	480,347	37,951	41,232	475,557	117,654	4.44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29,825	494,837	80,505	82,452	482,770	178,639	2.15
1986/1987	227,895	524,082	86,488	89,274	508,745	191,190	2.30
1987/1988	220,087	498,710	112,247	111,565	531,449	159,133	2.27
1988/1989	217,878	495,282	102,384	105,151	516,536	135,112	2.27
1989/1990	226,333	533,133	98,797	103,419	526,734	136,889	2.36
1990/1991	231,004	588,781	99,003	103,843	549,658	171,172	2.55
1991/1992	222,791	543,434	108,361	109,948	551,375	161,644	2.44
1992/1993	222,175	562,620	108,810	110,039	545,542	177,193	2.53
1993/1994	221,055	558,570	98,561	103,717	547,337	183,270	2.53
1994/1995	213,352	523,137	99,877	98,215	543,365	164,704	2.45
1995/1996	216,739	537,523	97,188	99,197	543,624	156,594	2.48
1996/1997	227,101	581,316	98,254	106,943	563,944	165,277	2.56
1997/1998	226,396	610,192	103,533	104,400	575,633	198,969	2.70
1998/1999	219,192	590,497	99,635	101,319	577,307	210,475	2.69
1999/2000	212,673	587,474	106,726	113,449	580,915	210,311	2.76
2000/2001	215,367	582,806	99,331	101,257	585,182	206,009	2.71
2001/2002	214,254	583,894	106,233	105,793	587,089	203,254	2.73
2002/2003	213,417	569,690	103,712	105,442	602,216	168,998	2.67
2003/2004	207,954	555,712	100,959	108,522	581,359	135,788	2.67
2004/2005	215,791	626,766	110,423	111,189	605,571	156,217	2.91
2005/2006	217,526	618,825	111,572	117,202	616,138	153,274	2.85
2006/2007	212,316	596,664	113,933	111,598	618,839	133,434	2.81
2007/2008	216,876	611,914	113,509	116,485	614,297	128,075	2.82
2008/2009	224,075	683,953	137,699	144,137	636,490	169,100	3.05
2009/2010	225,598	687,236	133,577	136,994	649,633	203,286	3.05
2010/2011	216,850	649,460	132,127	132,694	653,271	198,908	3.00
2011/2012	220,973	697,327	150,192	158,147	689,826	198,454	3.16
2012/2013	215,801	658,630	145,344	137,527	687,084	177,817	3.05
2013/2014	219,623	715,052	158,529	165,985	690,490	194,923	3.26
2014/2015	221,682	728,279	159,082	164,415	700,353	217,516	3.29
2015/2016 (추정치)	224,967	735,254	169,887	172,788	709,582	240,287	3.27
2016/2017 (전망치)	221,922	751,074	176,626	181,018	737,025	249,944	3.38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0,997	479,086	53,470	55,302	417,728	177,672	3.66
1986/1987	131,861	475,451	52,484	55,077	445,668	204,862	3.61
1987/1988	126,862	450,997	57,323	59,128	456,354	197,675	3.56
1988/1989	126,109	400,439	66,465	68,461	450,862	145,256	3.18
1989/1990	127,346	461,717	73,603	72,176	475,535	132,865	3.63
1990/1991	129,066	481,854	58,547	58,389	473,475	141,402	3.73
1991/1992	132,519	492,834	63,107	62,053	494,237	141,053	3.72
1992/1993	133,156	535,695	60,289	63,263	509,172	162,740	4.02
1993/1994	130,744	475,923	56,973	58,861	507,337	129,438	3.64
1994/1995	135,199	559,615	68,911	66,126	538,490	153,348	4.14
1995/1996	135,057	516,714	65,702	70,422	532,059	133,283	3.83
1996/1997	141,490	592,887	64,846	65,572	559,129	166,315	4.19
1997/1998	136,252	574,146	63,206	63,347	573,125	167,195	4.21
1998/1999	138,951	605,811	66,556	66,938	581,253	191,371	4.36
1999/2000	138,834	608,086	70,859	75,541	600,371	194,404	4.38
2000/2001	137,116	591,657	74,862	76,722	608,962	175,239	4.32
2001/2002	137,091	601,783	71,441	74,579	622,402	151,482	4.39
2002/2003	137,729	603,882	75,650	76,746	627,415	126,853	4.39
2003/2004	141,628	627,652	76,809	77,135	649,562	104,617	4.43
2004/2005	145,388	717,141	75,927	77,659	688,918	131,108	4.93
2005/2006	145,446	701,015	80,114	80,904	707,691	123,642	4.82
2006/2007	150,504	716,462	90,142	93,905	727,458	108,883	4.76
2007/2008	160,275	795,528	98,242	98,554	776,238	127,861	4.96
2008/2009	158,747	800,056	82,489	84,174	782,752	143,480	5.04
2009/2010	158,400	825,234	89,913	96,644	821,079	140,904	5.21
2010/2011	164,640	835,750	92,680	91,290	854,605	123,439	5.08
2011/2012	172,065	889,702	100,261	116,923	868,399	128,080	5.17
2012/2013	177,545	869,638	99,600	95,334	868,836	133,148	4.90
2013/2014	180,316	990,380	125,114	131,579	942,288	174,775	5.49
2014/2015	179,815	1,015,584	125,163	142,200	963,620	209,702	5.65
2015/2016 (추정치)	177,732	961,854	139,918	120,229	980,375	210,870	5.41
2016/2017 (전망치)	181,879	1,049,242	137,187	152,918	1,023,703	220,678	5.77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1,991	97,006	27,325	26,061	92,635	23,575	1.87
1986/1987	51,577	98,049	29,071	28,552	102,119	20,024	1.90
1987/1988	54,062	103,654	28,143	30,114	101,095	20,612	1.92
1988/1989	55,659	95,857	23,901	23,558	97,620	19,192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275	104,154	21,517	1.84
1990/1991	54,419	104,290	25,546	25,392	104,625	21,347	1.92
1991/1992	54,944	107,297	28,220	28,098	109,293	19,391	1.95
1992/1993	56,595	117,206	30,047	29,296	115,900	21,448	2.07
1993/1994	60,258	117,582	28,178	27,729	120,823	18,656	1.95
1994/1995	62,150	137,646	32,762	31,982	132,407	24,675	2.22
1995/1996	61,063	124,699	32,462	31,643	131,699	18,494	2.04
1996/1997	62,431	131,943	35,631	36,764	134,013	15,291	2.11
1997/1998	68,528	157,951	38,164	39,314	145,100	26,992	2.31
1998/1999	71,299	159,820	38,550	37,928	158,696	28,738	2.24
1999/2000	71,876	160,308	45,522	45,634	159,310	29,624	2.23
2000/2001	75,577	175,792	53,089	53,814	171,503	33,188	2.33
2001/2002	79,618	184,922	54,357	53,015	183,960	35,492	2.32
2002/2003	81,605	196,898	62,885	61,318	191,039	42,918	2.41
2003/2004	88,568	186,745	54,037	56,049	188,972	38,679	2.11
2004/2005	93,327	215,827	63,561	64,754	204,695	48,618	2.31
2005/2006	93,032	221,229	64,100	63,851	215,942	54,154	2.38
2006/2007	94,781	235,706	69,046	71,137	224,671	63,098	2.49
2007/2008	90,934	218,964	78,682	78,320	229,683	52,741	2.41
2008/2009	96,407	211,974	77,903	77,212	222,546	42,860	2.20
2009/2010	102,564	260,491	87,502	91,440	238,904	60,509	2.54
2010/2011	103,366	264,284	89,786	91,705	252,253	70,621	2.56
2011/2012	102,944	240,473	94,552	92,186	260,216	53,244	2.34
2012/2013	109,871	268,474	97,192	100,797	262,760	55,353	2.44
2013/2014	112,398	282,510	113,068	112,677	276,509	61,745	2.51
2014/2015	118,262	319,595	124,361	126,218	301,997	77,486	2.70
2015/2016 (추정치)	120,043	312,813	133,341	132,129	314,921	76,590	2.61
2016/2017 (전망치)	121,196	340,788	138,249	141,105	331,701	82,821	2.81

국가별 대두 통계

▢ 한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56	234	1,005	0	1,220	38	1.50
1986/1987	133	199	1,014	0	1,231	20	1.50
1987/1988	154	203	1,096	0	1,252	67	1.32
1988/1989	145	239	1,009	0	1,286	29	1.65
1989/1990	157	252	1,075	0	1,179	177	1.61
1990/1991	152	233	929	0	1,162	177	1.53
1991/1992	119	183	1,330	0	1,523	167	1.54
1992/1993	105	176	1,131	0	1,296	178	1.68
1993/1994	117	170	1,160	0	1,334	174	1.45
1994/1995	122	154	1,384	0	1,523	189	1.26
1995/1996	105	160	1,422	0	1,589	182	1.52
1996/1997	98	160	1,620	0	1,796	166	1.63
1997/1998	100	156	1,349	0	1,563	108	1.56
1998/1999	98	140	1,400	0	1,573	75	1.43
1999/2000	87	116	1,606	0	1,687	110	1.33
2000/2001	86	113	1,389	0	1,491	121	1.31
2001/2002	78	118	1,434	0	1,555	118	1.51
2002/2003	81	115	1,516	0	1,631	118	1.42
2003/2004	80	105	1,368	0	1,511	80	1.31
2004/2005	85	139	1,240	0	1,400	59	1.64
2005/2006	105	183	1,190	0	1,337	95	1.74
2006/2007	90	156	1,231	0	1,398	84	1.73
2007/2008	76	114	1,232	0	1,375	55	1.50
2008/2009	75	132	1,167	0	1,338	16	1.76
2009/2010	70	139	1,197	0	1,327	25	1.99
2010/2011	71	105	1,239	0	1,329	40	1.48
2011/2012	78	129	1,139	0	1,235	73	1.65
2012/2013	81	123	1,115	2	1,248	61	1.52
2013/2014	80	154	1,271	0	1,348	138	1.93
2014/2015	75	139	1,246	0	1,457	66	1.85
2015/2016 (추정치)	57	104	1,249	0	1,350	69	1.83
2016/2017 (전망치)	68	120	1,375	0	1,460	104	1.77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7,718	10,509	280	1,260	9,529	0	1.36
1986/1987	8,295	11,614	190	1,750	10,054	0	1.40
1987/1988	8,445	12,184	208	1,482	10,910	0	1.44
1988/1989	8,120	11,645	33	1,209	10,469	0	1.43
1989/1990	8,034	10,227	1	1,107	9,121	0	1.27
1990/1991	7,560	11,000	1	1,288	9,713	0	1.46
1991/1992	7,041	9,710	136	1,090	8,756	0	1.38
1992/1993	7,221	10,300	150	300	10,150	0	1.43
1993/1994	9,454	15,310	125	1,100	14,335	0	1.62
1994/1995	9,222	16,000	155	394	15,761	0	1.74
1995/1996	8,127	13,502	795	222	14,075	0	1.66
1996/1997	7,471	13,220	2,274	195	14,309	990	1.77
1997/1998	8,346	14,728	2,940	168	15,472	3,018	1.77
1998/1999	8,500	15,152	3,850	187	19,929	1,904	1.78
1999/2000	7,962	14,250	10,100	230	22,854	3,170	1.79
2000/2001	9,307	15,409	13,245	208	26,706	4,910	1.66
2001/2002	9,482	15,410	10,385	300	28,310	2,095	1.63
2002/2003	8,720	16,507	21,417	265	35,290	4,464	1.89
2003/2004	9,313	15,394	16,933	319	34,372	2,100	1.65
2004/2005	9,589	17,401	25,802	390	40,213	4,700	1.82
2005/2006	9,591	16,350	28,317	354	44,440	4,573	1.71
2006/2007	9,304	15,082	28,726	446	46,126	1,809	1.62
2007/2008	8,754	12,725	37,816	453	49,423	2,474	1.45
2008/2009	9,127	15,542	41,098	400	51,255	7,459	1.70
2009/2010	9,190	14,982	50,338	184	59,380	13,215	1.63
2010/2011	8,516	15,083	52,339	190	65,900	14,547	1.77
2011/2012	7,889	14,485	59,231	275	72,070	15,918	1.84
2012/2013	7,172	13,011	59,865	266	76,180	12,348	1.81
2013/2014	6,791	11,951	70,364	215	80,600	13,848	1.76
2014/2015	6,800	12,154	78,350	143	87,200	17,009	1.79
2015/2016 (추정치)	6,506	11,785	83,230	114	95,000	16,910	1.81
2016/2017 (전망치)	7,200	12,900	87,000	150	101,100	15,560	1.79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4,929	57,127	0	20,158	30,981	14,580	2.29
1986/1987	23,598	52,868	0	20,600	34,972	11,876	2.24
1987/1988	23,137	52,736	34	21,870	34,544	8,232	2.28
1988/1989	23,218	42,153	98	14,355	31,174	4,954	1.82
1989/1990	24,094	52,354	68	16,933	33,935	6,508	2.17
1990/1991	22,870	52,416	95	15,150	34,914	8,955	2.29
1991/1992	23,477	54,065	94	18,614	36,922	7,578	2.30
1992/1993	23,566	59,612	56	20,972	38,319	7,955	2.53
1993/1994	23,191	50,885	175	16,006	37,318	5,691	2.19
1994/1995	24,609	68,444	149	22,867	42,305	9,112	2.78
1995/1996	24,906	59,174	121	23,108	40,306	4,993	2.38
1996/1997	25,637	64,780	242	24,110	42,317	3,588	2.53
1997/1998	27,968	73,176	136	23,796	47,666	5,438	2.62
1998/1999	28,507	74,598	96	21,899	48,749	9,484	2.62
1999/2000	29,318	72,224	114	26,537	47,388	7,897	2.46
2000/2001	29,303	75,055	97	27,103	49,203	6,743	2.56
2001/2002	29,532	78,672	63	28,948	50,867	5,663	2.66
2002/2003	29,338	75,010	127	28,423	47,524	4,853	2.56
2003/2004	29,330	66,783	151	24,128	44,600	3,059	2.28
2004/2005	29,930	85,016	152	29,860	51,407	6,960	2.84
2005/2006	28,834	83,507	92	25,579	52,751	12,229	2.90
2006/2007	30,190	87,001	246	30,386	53,473	15,617	2.88
2007/2008	25,959	72,859	269	31,538	51,627	5,580	2.81
2008/2009	30,222	80,749	361	34,817	48,112	3,761	2.67
2009/2010	30,907	91,470	397	40,798	50,724	4,106	2.96
2010/2011	31,003	90,663	393	40,959	48,351	5,852	2.92
2011/2012	29,856	84,291	439	37,186	48,786	4,610	2.82
2012/2013	30,814	82,791	1,103	36,129	48,550	3,825	2.69
2013/2014	30,858	91,389	1,954	44,594	50,070	2,504	2.96
2014/2015	33,423	106,878	904	50,143	54,955	5,188	3.20
2015/2016 (추정치)	33,076	106,857	640	52,688	54,643	5,354	3.23
2016/2017 (전망치)	33,482	117,208	680	55,112	56,287	11,843	3.50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405	1,012	175	173	954	250	2.50
1986/1987	385	960	217	147	1,166	114	2.49
1987/1988	461	1,270	151	186	1,210	139	2.76
1988/1989	533	1,153	159	273	1,007	171	2.16
1989/1990	540	1,219	287	192	1,294	191	2.26
1990/1991	484	1,262	151	213	1,181	210	2.61
1991/1992	598	1,460	72	252	1,270	220	2.44
1992/1993	623	1,455	226	211	1,535	155	2.34
1993/1994	720	1,851	57	489	1,424	150	2.57
1994/1995	820	2,251	67	542	1,743	183	2.75
1995/1996	824	2,293	70	599	1,827	120	2.78
1996/1997	860	2,165	231	478	1,961	77	2.52
1997/1998	1,060	2,738	149	769	2,063	132	2.58
1998/1999	980	2,737	254	876	2,064	183	2.79
1999/2000	1,002	2,776	455	949	2,213	252	2.77
2000/2001	1,061	2,703	431	747	2,219	420	2.55
2001/2002	1,069	1,635	982	502	2,197	338	1.53
2002/2003	1,024	2,336	651	726	2,296	303	2.28
2003/2004	1,049	2,273	613	914	2,080	195	2.17
2004/2005	1,174	3,044	386	1,124	2,048	453	2.59
2005/2006	1,165	3,156	349	1,326	1,996	636	2.71
2006/2007	1,201	3,466	234	1,683	1,998	655	2.89
2007/2008	1,167	2,686	309	1,753	1,723	174	2.30
2008/2009	1,195	3,336	387	2,017	1,660	220	2.79
2009/2010	1,412	3,581	375	2,247	1,624	305	2.54
2010/2011	1,505	4,445	250	2,943	1,760	297	2.95
2011/2012	1,554	4,467	230	2,933	1,830	231	2.88
2012/2013	1,679	5,086	270	3,470	1,959	158	3.03
2013/2014	1,860	5,359	340	3,469	2,142	246	2.88
2014/2015	2,235	6,049	339	3,854	2,314	466	2.71
2015/2016 (추정치)	2,197	6,371	308	4,258	2,586	301	2.90
2016/2017 (전망치)	2,180	6,450	350	4,400	2,414	287	2.96

▢ 브라질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9,450	14,100	285	1,187	13,507	4,751	1.49
1986/1987	9,270	17,300	289	3,294	15,690	3,356	1.87
1987/1988	10,550	18,020	471	2,710	14,308	4,829	1.71
1988/1989	12,150	23,600	63	4,839	15,912	7,741	1.94
1989/1990	11,550	20,340	63	3,933	17,104	7,107	1.76
1990/1991	9,750	15,750	126	2,478	15,406	5,099	1.62
1991/1992	9,700	19,300	279	3,872	16,201	4,605	1.99
1992/1993	10,625	22,500	375	4,056	16,977	6,447	2.12
1993/1994	11,440	24,700	190	5,434	20,046	5,857	2.16
1994/1995	11,680	25,900	1,200	3,566	21,838	7,553	2.22
1995/1996	10,950	24,150	1,050	3,458	23,239	6,056	2.21
1996/1997	11,800	27,300	940	8,424	21,617	4,255	2.31
1997/1998	13,000	32,500	1,591	8,760	21,692	7,894	2.50
1998/1999	12,900	31,300	730	8,932	22,906	8,086	2.43
1999/2000	13,600	34,700	674	11,101	22,941	9,418	2.55
2000/2001	13,934	39,500	733	15,469	24,734	9,448	2.84
2001/2002	16,350	43,500	1,112	14,504	26,963	12,593	2.66
2002/2003	18,448	52,000	1,321	19,629	29,568	16,717	2.82
2003/2004	21,520	51,000	328	20,417	31,472	16,156	2.37
2004/2005	22,917	53,000	475	20,137	31,992	17,502	2.31
2005/2006	22,229	57,000	63	25,911	30,986	17,668	2.56
2006/2007	20,700	59,000	53	23,485	33,859	19,377	2.85
2007/2008	21,300	61,000	150	25,364	34,917	20,246	2.86
2008/2009	21,700	57,800	44	29,987	34,669	13,434	2.66
2009/2010	23,500	69,000	174	28,578	36,550	17,480	2.94
2010/2011	24,200	75,300	37	29,951	39,230	23,636	3.11
2011/2012	25,000	66,500	128	36,257	40,983	13,024	2.66
2012/2013	27,700	82,000	395	41,904	38,160	15,355	2.96
2013/2014	30,100	86,700	605	46,829	40,011	15,820	2.88
2014/2015	32,100	97,200	305	50,612	43,788	18,925	3.03
2015/2016 (추정치)	33,300	96,500	410	54,383	43,402	18,050	2.90
2016/2017 (전망치)	33,900	108,000	350	61,000	44,600	20,800	3.19

▢ 일본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4	228	4,796	0	5,057	761	1.70
1986/1987	138	245	4,866	0	4,994	878	1.78
1987/1988	163	287	4,847	0	5,034	978	1.76
1988/1989	162	277	4,286	0	4,724	817	1.71
1989/1990	152	272	4,667	0	4,968	788	1.79
1990/1991	146	220	4,375	0	4,624	759	1.51
1991/1992	141	197	4,672	0	4,834	794	1.40
1992/1993	110	188	4,866	0	5,075	773	1.71
1993/1994	87	101	4,855	0	5,008	721	1.16
1994/1995	61	99	4,837	0	5,035	622	1.62
1995/1996	69	119	4,776	0	4,965	552	1.73
1996/1997	82	148	5,043	0	5,108	635	1.81
1997/1998	83	145	4,873	0	5,020	633	1.75
1998/1999	109	158	4,807	0	4,980	618	1.45
1999/2000	108	187	4,907	0	5,050	662	1.73
2000/2001	123	235	4,767	0	5,075	589	1.91
2001/2002	144	271	5,023	0	5,213	670	1.88
2002/2003	150	270	5,087	0	5,717	310	1.80
2003/2004	152	232	4,688	0	4,931	299	1.53
2004/2005	137	163	4,295	0	4,499	258	1.19
2005/2006	134	226	3,962	0	4,274	172	1.69
2006/2007	142	229	4,094	7	4,303	185	1.61
2007/2008	138	227	4,014	5	4,159	262	1.65
2008/2009	147	262	3,396	0	3,664	256	1.78
2009/2010	145	230	3,401	0	3,664	223	1.59
2010/2011	138	223	2,917	0	3,199	164	1.62
2011/2012	137	219	2,758	0	2,991	150	1.60
2012/2013	131	236	2,830	0	2,998	218	1.80
2013/2014	129	200	2,894	0	3,060	252	1.55
2014/2015	132	226	3,004	0	3,276	206	1.71
2015/2016 (추정치)	142	242	3,186	0	3,379	255	1.70
2016/2017 (전망치)	140	240	3,100	0	3,355	240	1.71

▢ 아르헨티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3,316	7,300	0	2,541	4,722	1,902	2.20
1986/1987	3,510	7,000	0	1,333	5,256	2,313	1.99
1987/1988	4,260	10,000	0	2,091	5,827	4,395	2.35
1988/1989	4,000	6,500	0	445	6,487	3,963	1.63
1989/1990	4,950	10,750	0	2,968	6,737	5,008	2.17
1990/1991	4,750	11,500	0	4,469	7,456	4,583	2.42
1991/1992	4,800	11,350	0	3,213	8,228	4,492	2.37
1992/1993	4,900	11,350	4	2,211	9,024	4,611	2.32
1993/1994	5,400	12,400	60	3,023	9,320	4,728	2.30
1994/1995	5,700	12,500	88	2,581	9,265	5,470	2.19
1995/1996	5,980	12,480	92	2,103	10,855	5,084	2.09
1996/1997	6,200	11,200	356	757	11,666	4,217	1.81
1997/1998	6,954	19,500	948	2,821	13,586	8,258	2.80
1998/1999	8,165	20,000	275	3,061	18,327	7,145	2.45
1999/2000	8,583	21,200	218	4,125	17,934	6,504	2.47
2000/2001	10,400	27,800	320	7,304	18,340	8,980	2.67
2001/2002	11,400	30,000	251	5,960	21,999	11,272	2.63
2002/2003	12,600	35,500	383	8,624	24,793	13,738	2.82
2003/2004	14,000	33,000	537	6,741	26,440	14,094	2.36
2004/2005	14,400	39,000	692	9,568	28,753	15,465	2.71
2005/2006	15,200	40,500	584	7,249	33,408	15,892	2.67
2006/2007	16,300	48,800	1,986	9,560	35,216	21,902	2.99
2007/2008	16,371	46,200	2,954	13,839	36,332	20,885	2.82
2008/2009	16,000	32,000	1,241	5,590	33,093	15,443	2.00
2009/2010	18,600	54,500	1	13,088	36,127	20,729	2.93
2010/2011	18,300	49,000	13	9,205	39,914	20,623	2.68
2011/2012	17,577	40,100	0	7,368	38,636	14,719	2.28
2012/2013	19,750	49,300	2	7,738	36,811	19,472	2.50
2013/2014	19,250	53,400	1	7,842	39,760	25,271	2.77
2014/2015	19,340	61,400	2	10,573	44,184	31,916	3.18
2015/2016 (추정치)	19,530	56,800	675	9,920	47,521	31,950	2.91
2016/2017 (전망치)	19,000	55,500	1,000	9,000	49,750	29,700	2.92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7/1988	74	85	200	0	285	0	1.15
1988/1989	76	101	200	0	301	0	1.33
1989/1990	105	124	200	0	324	0	1.18
1990/1991	88	99	180	0	279	0	1.13
1991/1992	102	135	180	0	315	0	1.32
1992/1993	97	76	60	0	136	0	0.78
1993/1994	70	60	30	0	90	0	0.86
1994/1995	43	30	20	0	50	0	0.70
1995/1996	23	22	20	0	42	0	0.96
1996/1997	16	15	20	0	35	0	0.94
1997/1998	14	18	20	0	38	0	1.29
1998/1999	31	36	6	7	35	0	1.16
1999/2000	42	45	0	7	37	1	1.07
2000/2001	61	64	10	12	62	1	1.05
2001/2002	73	74	13	1	86	1	1.01
2002/2003	98	125	1	7	118	2	1.28
2003/2004	190	232	0	61	172	1	1.22
2004/2005	256	363	0	36	315	13	1.42
2005/2006	422	613	2	224	376	28	1.45
2006/2007	715	890	0	420	478	20	1.25
2007/2008	583	723	1	190	524	30	1.24
2008/2009	538	813	0	277	538	28	1.51
2009/2010	623	1,044	1	263	660	150	1.68
2010/2011	1,037	1,680	2	989	740	103	1.62
2011/2012	1,110	2,264	1	1,338	1,030	0	2.04
2012/2013	1,411	2,410	2	1,323	990	99	1.71
2013/2014	1,351	2,774	3	1,261	1,350	265	2.05
2014/2015	1,800	3,900	4	2,422	1,581	166	2.17
2015/2016 (추정치)	2,137	3,932	5	2,369	1,601	133	1.84
2016/2017 (전망치)	1,854	4,280	0	2,600	1,651	162	2.31

▢ 파라과이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50	600	0	475	125	0	1.09
1986/1987	530	950	300	1,075	175	0	1.79
1987/1988	615	1,100	400	1,280	220	0	1.79
1988/1989	850	1,615	625	1,950	290	0	1.90
1989/1990	980	1,575	350	1,625	300	0	1.61
1990/1991	890	1,300	100	1,030	370	0	1.46
1991/1992	900	1,300	100	830	570	0	1.44
1992/1993	980	1,750	100	1,250	600	0	1.79
1993/1994	1,050	1,800	100	1,200	700	0	1.71
1994/1995	1,100	2,200	0	1,430	770	0	2.00
1995/1996	960	2,408	0	1,587	821	0	2.51
1996/1997	1,050	2,771	0	2,150	621	0	2.64
1997/1998	1,150	2,988	0	2,294	694	0	2.60
1998/1999	1,200	2,980	0	2,299	681	0	2.48
1999/2000	1,200	2,911	0	2,026	876	9	2.43
2000/2001	1,350	3,502	8	2,510	992	17	2.59
2001/2002	1,445	3,547	8	2,386	1,161	25	2.46
2002/2003	1,550	4,518	10	3,167	1,351	35	2.92
2003/2004	1,936	3,911	15	2,664	1,247	50	2.02
2004/2005	2,000	4,041	32	2,882	1,158	83	2.02
2005/2006	2,426	3,641	10	2,380	1,261	93	1.50
2006/2007	2,430	5,581	15	4,136	1,405	148	2.30
2007/2008	2,645	5,969	15	4,100	1,510	522	2.26
2008/2009	2,525	3,647	21	2,620	1,550	20	1.44
2009/2010	2,680	6,462	12	4,070	1,678	746	2.41
2010/2011	2,871	7,128	20	5,226	1,690	978	2.48
2011/2012	2,957	4,043	19	3,574	1,000	466	1.37
2012/2013	3,158	8,202	27	5,518	3,030	147	2.60
2013/2014	3,255	8,190	7	4,800	3,410	134	2.52
2014/2015	3,264	8,154	7	4,488	3,690	117	2.50
2015/2016 (추정치)	3,265	9,010	6	5,200	3,740	193	2.76
2016/2017 (전망치)	3,460	9,170	7	5,400	3,844	126	2.65

▢ 유럽연합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9/2000	529	1,522	14,122	29	15,562	667	2.88
2000/2001	513	1,323	17,675	22	18,684	959	2.58
2001/2002	479	1,467	18,783	41	20,094	1,074	3.06
2002/2003	391	1,122	17,023	24	18,319	876	2.87
2003/2004	459	908	14,751	40	15,589	906	1.98
2004/2005	431	1,166	14,591	44	15,862	757	2.71
2005/2006	451	1,294	14,014	78	15,254	733	2.87
2006/2007	557	1,402	15,181	60	16,249	1,007	2.52
2007/2008	389	814	15,139	44	16,209	707	2.09
2008/2009	273	747	13,213	36	14,177	454	2.74
2009/2010	352	951	12,683	60	13,487	541	2.70
2010/2011	426	1,198	12,472	95	13,160	956	2.81
2011/2012	445	1,220	12,070	54	13,270	922	2.74
2012/2013	422	948	12,538	92	13,580	736	2.25
2013/2014	472	1,211	13,293	57	14,560	623	2.57
2014/2015	571	1,831	13,914	116	15,570	682	3.21
2015/2016 (추정치)	849	2,256	15,006	144	16,680	1,120	2.66
2016/2017 (전망치)	892	2,385	13,800	150	16,290	865	2.67

Ⓔ 12-2017-04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7 제6권 제4호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7년 4월 5일
발　행 2017년 4월 5일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